

우리는 대언자로 부름을 받았다(렘 강해 설교 1)

성경말씀: 렘1:1-10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어야 한다(행20:27).

지금까지 4년 동안 성경의 여러 주제를 다루었음. 잘못하면 목사가 선호하는 주제만 다루게 됨.

이제는 한 책을 정해 전체 내용을 강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필요 시 다른 것도 설교할 것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모세, 다니엘, 바울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반역하는 자들, 불신자들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레미야서는 21세기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책, 제목

배경(1-3)

- A. 이름: 나면서부터 제사장, 예루살렘 북쪽 5km 베냐민 땅 아나돗에 거함.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자’를 뜻한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대언자로서 대언자들 가운데 읊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다(16:2).
- B. 기록 시기: 주전 590년경, 성격: 역사, 대언, 자서전, 기간: 약 41년, 수신자: 유다 백성
- C. 주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그들의 죄로 인한 임박한 심판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 시대에 의로운 가치를 통해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
- D. 목적: 하나님의 백성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을 통해 복이 임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
- E. 배경: 솔로몬의 죽음과 왕국 분열 이후에 유다 왕국의 역사는 여러 차례의 종교적 타락과 개혁으로 이어졌다. 요시아(8세에 왕이 되어 31세에 죽음)는 마지막으로 선정을 베푼 왕이었으며 그는 율법서를 발견하면서 마지막 개혁을 이룬다. 하지만 31세에 파라오 느고에게 죽임을 당한다(대하35:20-27).
 - 1.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3달 통치, 파라오 느고), 그의 형제 여호아김(11년, 느부갓네살), 여호아김의 아들 여호야김(3달, 느부갓네살), 요아스의 아들 시드기야(마지막 왕, 11년, 느부갓네살), 요시아 이후의 유다 역사는 계속되는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타락의 역사이며 결국 유다는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BC586년). 1차 BC 606, 2차 597, 3차 586
 - 2. 대언자 예레미야는 배도와 타락의 시기에 활동하였다. 북쪽의 아시리아, 남쪽의 이집트, 동쪽의 바빌론, 아시리아 제국은 주전 600년경에 수도인 니느웨가 함락된 뒤 붕괴되었고 바빌론이 그 당시 문명 세계의 지배자가 되었으며 이때에 예루살렘에서는 두 파가 다투었다. 이집트 지지자들은 이집트가 세계의 지배자로 재등장하고 있으니 이집트를 의지해야 한다고 믿었다. 반면에 바빌론 지지자들은 계속해서 민족이 생존하는 대가로 바빌론에 항복할 것을 촉구하였다.
 - 3. 예레미야는 요시아의 통치 제13년에 활동을 시작하였고(BC 628) 바빌론 포로 초기까지 계속해서 활동하였으며 이집트에서 생을 마쳤다(BC 586).

우리나라의 상황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열강들 가운데 놓임, 어느 편에 붙을 것인가?

1945년 이후로 남과 북이 나뉘어 총부리를 겨누며 대치하는 상황, 극도의 이념 분열

윤리와 도덕의 실종: 극악무도한 범죄, 강간, 살인, 아동 성폭력(나주 7살 어린이), ‘묻지 마 범죄’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고 한때 1000만 성도를 자랑하다가 이제는 900만으로 줄

계속해서 천주교는 수가 늘고 기독교는 수가 준다. 청년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교회의 세속화(프로그램, 은사주의, 기복주의, 음악, 탐욕, 세습)

1980년대 이후의 풍요로 인해 성경 말씀을 찾지 않는 세대, 설교 대신 프로그램

유다의 배도 속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 지금도 자신의 말을 전달할 대언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의 부르심(4-5)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출생하기도 전에 그를 알고 빚고 구분하여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움

대언자: 기존 성경에서 번역이 잘못된 단어, prophet은 예언자나 선지자가 아닌 대언자이다(7, 9절).

구약시대 아벨부터 대언자, 신약시대에도 초기에 대언자들이 있었다. 고전14장도 대언

이제는 더 이상 직통으로 말씀을 받아 전하는 대언자는 없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전달해 주는 의미의 대언자만 있을 뿐이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설명해 주고 전달해 주는 대언자라 할 수 있다.

1.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아담과 이브 창조(창2:7), 그 이후에는 출산되지만 여전히 창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생명의 숨이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이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요일5:12).

2. 생명은 모태에서 수태될 때부터 시작된다.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이다.

우리나라 낙태율 미혼 기혼 합쳐서 1000명당 31건

3. 하나님은 자신의 미리 아심을 통해 우리를 선택하신다(롬8:29-30). 예지, 예정(선택), 부르심, 칭의, 영화

칼빈주의의 무조건적 선택은 성경적이 아니다.

4. 신구약의 모든 성도는 부르심을 받았다. 구원으로, 사역으로, 지역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

당신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청소, 식사, 음악, 교제/섬김, 교사, 목사, 선교사, 복음 전도자

대언자의 망설임(6-9)

1. 말을 못한다. 경험이 없다(6)

대언자의 직무는 말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모세 출4:10 말에 능하지 못하다.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다.

마틴 로이드 존즈: 대부분의 훌륭한 목사들의 공통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해 좌절감을 느낀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르게 설교할 수 있다.

신학원 개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벧전5:5).

3.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9절, 출4:11-12).

예레미야에게도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심(7).

4.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 혹은 수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삼상14:6).

이 말은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뇌할 때 하나님이 예비시켜 주신다는 것이다.

대언자의 사역(7, 9-10, 11-16)

대언자의 사역은 평탄한 사역이 아니다. 위험한 일이다. 힘든 일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언자로 해야 할 일 역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분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 (1) 악한 것은 뿌리째 뽑고 무너뜨리며 파멸시키고

파괴해야 한다. (2) 좋은 것은 세우고 심어야 한다.

바른 성경, 바른 구원, 바른 교회, 바른 가정, 바른 사회(통일)

하나님은 아몬드나무 막대기와 끊는 가마솥을 통해 백성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보여 주심(11-16).

아몬드 나무: 겨울이 지나고 가장 먼저 깨어나는 나무, 심판이 곧 임할 것을 보여 줌

우리가 선포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행17:30-31).

하나님의 약속(8, 18-19)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8).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18-19).

마28:18-20

결론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다. 한국의 어려운 상황, 기독교의 타락, 불신, 불순종, 도덕 불감증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민족의 대언자로 선택하셨다.

말씀으로 부술 것을 부수고 세울 것을 세워야 한다(9-10).

겸손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행한다.

하나님의 이혼 소송(렘 강해 설교 2)

성경말씀: 렘2:1-13

지난 주: 하나님의 대언자, 예레미야 당시의 부패, 이번 주: 하나님이 참다못해 자기 백성을 버림.
신약: 예수님과 교회(신랑과 신부, 엠5:30-31), 구약: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남편과 아내, 호2:2))
하나님의 속성: 노하기를 더디 하신다(벧후3:9),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처럼 참고 참는다.
사사 시대 450년(바알과 아스다롯, 모압, 암몬, 아말렉, 가나안 족속, 블레셋, 미가의 우상)
행7:51-53, 하나님의 참으심에 한계가 있다(렘15:6). 간음으로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사1:3).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인: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여 주는 강력한 증거(4000년 역사), 히브리 사람들,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많이 사용되었다. 물론 이 말은 그들의 조상 유다에서 나왔다(왕하16:6; 예2:5).

- A. 유대인들의 창시자인 아브라함은 유랑하는 목자, 그의 아들과 손자인 이삭과 야곱도 그의 발자취를 따랐다. 12 지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야곱의 아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기근의 때에 자기 가족을 이집트로 불렀다.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룬 뒤에 그들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했으나 불순종으로 인해 첫 세대는 죽고 모세도 죽었다. 그 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12 지파에게 배분해 주었다. 이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부족의 치리자들의 통치를 받으며 사무엘 시대까지 이르렀다(행13:16-23).
- B. 그 후에 왕정이 시작되어 사울이 초대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그의 뒤를 이었으며 그의 가족은 바빌론 사람들의 침략이 있기까지 유다 왕국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그의 손자인 르호보암 시대에 통일 왕국은 분열되어 북쪽의 열 지파는 이스라엘 왕국을,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은 유다 왕국을 형성하고 서로를 대적하며 지내게 되었다.
- C.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 포로로 끌려감(BC 721년), 마지막 왕 호세아(왕하17:6-23).
- D. 유다 왕국은 그 뒤에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감(BC 606, 597, 586). 시드기야

이스라엘 국가의 형성

- A. 이집트 탈출 이후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출19:3-6)
특별한 보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분됨
 - a. 메시아 출생: 세상 민족들에게 복의 통로(요4:22), 하나님의 말씀 보존(마4:4; 롬3:1-2)
 - b. 그들의 장점 때문이 아니다(신7:6-9), 이런 특권과 더불어 그들에게는 의무가 주어졌다.제사장 왕국: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책임을 가졌다.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된 민족, 세상과 달리 살아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위기 6회, 11:44-45; 19:2; 20:7,26; 21:8, 벧전1:15-16)

- B. 백성들의 반응(출19:7-8)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 C. 백성들의 행동(출19:9-25) 옷을 빨고 거리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 준비함
- D. 하나님의 율법 수여(출20), BC 1491년, BC 586년까지 약 900년의 신정 정치

신혼생활의 즐거움(1-3)

- 1. 앨범: 결혼식, 리허설, 예식, 신혼여행, 가족사진, 지금 하나님께서 좋은 시절을 증언하신다.
- 2. 이스라엘은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백성이었다. 하나님은 율법 준수가 아니라 마음의 순종을 원하신다. 이스라엘이 남편 도움으로 이집트에서 탈출되어 얼마나 좋았을까?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출15)
- 3.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2, 6-7). 성막 위의 구름의 인도(출40:36-38)
- 4. 하나님은 그들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3). 이집트,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 5.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7). 빵과 포도즙과 양 털과 우물과 올리브원 등, 900년을 참음

이혼 소송의 근거(4-8, 31): 신실함을 잃어버린 아내, 간음

- 1. 완전한 남편에 대한 신뢰 없이 이스라엘은 그분을 버렸다(31:32).
- 2. 우상들을 따르기 시작하고 헛된 신들을 따르기 시작했다(5): 영적 간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3.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6).
4. 백성의 지도자들인 제사장, 율법박사, 목양자, 대언자, 치리자가 문제다(8, 26).

하나님의 여덟 가지 증거

1. 자기 신을 바꾸는 민족들(10-11): 동서로 다녀보라.
2. 생수의 샘을 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터진 물 저장고를 뚫(13): 물의 중요성
3.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의지하며 다시 종이 됨(14-19): 이교도 문물 수입
4. 창녀 짓을 행함(20): 남편을 버리고 외도함
5. 들 포도나무, 변질된 초목(21): 이웃의 우상숭배 국가들처럼
6. 지울 수 없는 때가 낀(22): 종교 의식, 선행으로 지울 수 없다.
7. 자기 길로 달리는 암낙타(23): 오아시스를 찾으려고 자기 길로 달림
8. 쾌락에 빠져 들판에서 마음대로 뛰노는 암나귀(24): 짝을 찾기 위해 애를 씀

이스라엘의 변명

1.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고 바알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23)
2. “나는 무죄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35).

하나님의 선언: “나와 변론하려 하지 말라. 너희가 다 내게 범법하였느니라.”(29)

회개 촉구

1.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여라(30절)
2. 회개하라(3:14), 내가 너희와 결혼하였으니 너희는 돌아오라.
3. 영존하는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라(31:3-4).

우리나라의 사정

5000년 역사: 굽주림, 외세 침략, 이방 신들(불교, 샤머니즘, 우상숭배, 유교), 일제 식민지 생활 해방 이후에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경제 부흥, 보릿고개 해결

6명의 좋은 지도자들: 1948년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경험한 이승만: 민주 국가, 토지개혁, 6.25극복 박정희: 산업 역군 양성, 경제 자주화 기초, 김영삼: OECD, WTO 가입,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김대중: 시장 경제, 정보 인프라 구축, 노무현: 칠레 FTA부터 FTA 기초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수출 10위, 전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함, 가나안의 풍요

영적인 세상: 100년 전 복음 도입, 한때 1000만 성도, 70년대 이후 순복음 은사주의의 기복신앙(바알과 아스다룻, 무당 신앙), 80년대 이후 온누리 교회의 경배와 찬양을 통한 공예배 파괴, 성경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지 않는다. 천주교회와의 연합(WCC), 각종 이단의 횡행(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베레아), 알박한 구원과(부부를 이혼시키면서까지 교회 충성 강요),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와 같다.

우리는 어떤가?

본질상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음. 처음에는 뜨거웠으나 이제는 첫 사랑을 버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지 않은가? 과거의 구원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은가? 구원의 지식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분과의 관계가 날로 진보하고 있는가? 형제 사랑, 성경 사랑, 교회 사랑, 전도와 봉사와 물질로 나타나는가? “일하지 말라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구원의 방편으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에서 사는 것은 반대

그러나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좋아서 식사, 청소, 교제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

결론

롬15:4

하나님의 참으심에 한계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와 간음, 결국 하나님의 이혼 소송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첫 사랑의 시절처럼 되돌려야 한다.

바른 성경, 바른 구원, 바른 교리, 바른 교회, 바른 섬김

내게로 돌아오라(렘 강해 설교 3)

성경말씀: 렘3:12-25; 4:1-4

지난 주: 이스라엘의 간음, 하나님의 이혼 소송, 1. 자기 신을 바꿈, 2. 생수의 샘을 버리고 터진 물 저장고를 뚫(13), 3. 창녀 짓을 행함, 4. 들 포도나무, 변질된 초목, 5. 지울 수 없는 때 이런 증거를 대면서도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하나님(벧후3:9)

3-4장의 핵심 단어: 타락하다(3:6, 8, 11, 12, 14, 22), 돌아오라(3:1, 7, 12, 22: 4:1)

하나님의 회개 촉구

1. 하나님의 심정(1-5): 1절 읽음, 남자가 여자를 버림,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됨. 그 이후에는 그 여자가 다시 첫 남편의 아내가 될 수 없음. 땅이 더럽게 됨(신24:1-4).

이스라엘은 남편을 버리고 여러 연인들과 바람을 피움. 그래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호소하신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 안내자로 부르며 돌아가야 한다(4절).

2. 북 왕국 이스라엘의 시청각 교육(6-11): 여로보암부터 호세아(20여 명) 100% 우상 숭배,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포로로 끌려감(BC 721년)

이혼 증서(8절 읽음), 유다는 보고도 깨닫지 못함

3. 대언자의 애끓는 심정(4:19), 눈물의 대언자, 하나님의 심정 대변, 회개 촉구

회개: 뜻을 돌이켜 행동을 바꾸는 것

회개: 현대 기독교에서 찾아보기 힘든 말, 오해되고 있는 말, 변영 신학, 기복 신앙에서는 찾기 힘들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죄 지은 것을 미워하며 되돌아서서 진심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참된 회개가 나타나며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죄들의 용서가 거저 주어진다.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회개와 믿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말씀하셨다(눅13:3, 5).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분의 제자들은 줄곧 회개와 믿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다(행2:38; 20:21; 26:20). 회개가 일어난 곳에서는 악을 버리고 죽은 행위로부터 떠나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발생한다(행20:21).

회개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 상태가 어떤가를 살피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회개는 하나님의 뜻이며(벧후3:9) 동시에 그분의 명령이다(행17:30). 따라서 회개 없이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하다. 한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180도 돌아서는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남. 구원 이후에도 회개가 필요함(요일1:9).

회개의 구체적인 요소(3:22-25)

하나님의 호소와 유다의 마땅한 반응(22): 돌아오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1. 하나님이 누구신줄 알아야 한다(22). 당신은 주 우리 하나님(여기서만 4회, 22, 23, 25 2회)

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출3:14), 은혜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하나님: 엘로힘, 창조자, 권능자, 공의, 거룩함, 사랑

우리: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분

2.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다(23). 구원의 유일한 원천(죄, 사망, 결혼 문제, 가정 문제..)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요14:6). 말씀, 성령님의 확증, 믿습시다.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영을 살림, 구원, 영원토록 봉인하심

3.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는다(24-25). 지금까지의 예배가 다 헛된 것을 인정함(13). 산당에서 행한 모든 일이 헛소리에 지나지 않음을 고백함. 지금까지 신뢰한 모든 것이 헛것임을 고백함

4. 죄의 값이 매우 큼을 인정한다(24). 양 떼와 소 떼와 아들딸을 삼킴. 이스라엘은 힌놈의 골짜기에서 아이들을 제물로 바침. 그 결과 수치 속에서 늙는다(25a).

5. 참된 회개는 행동을 동반한다(4:3).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 과거의 종교 생활의 모든 틀을 뒤집어엎어야 한다. 조그만 땅을 매년 경작하면 더 이상 식물이 자라지 않는다. 이제는 새롭게 큰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 킹제임스 성경, 바른 교회, 바른 교리, 새 틀

6.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뿌리지 말라(3). 마음을 정돈하지 않으면 잡초가 자란다. 세상의 것들 사이에 하늘의 것이 들어가면 힘이 없다. 참된 회개는 죄의 뿌리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므로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고후7:10-11). 그렇지 않으면 씨, 노동, 시간, 소망만 낭비하게 된다.

7. 회개의 결과

a.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에 드는 목양자들을 주신다(3:15). 목양자: 목사

회개가 없을 때는 목양자들이 양을 죽인다(렘23:1-2; 겔34:2)

5만 개 교회, 10만 명 목사, 어느 분의 고백: 주일마다 개뿔다귀를 준다. 목사가 없다.

좋은 목사는 어디서 오는가?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다.

b. 방황하는 생활이 끝난다(4:1). 회개하기 전에는 온갖 교리의 바람에 몰려다닌다(엡4:14-15).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이상 흔들리는 일이 없다.

c. 민족들이 주님을 신뢰하게 된다(4:2). 이스라엘과 민족들, 교회와 세상

세상이 복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한다.

세상의 사악함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다. 아동 성폭력, 토막살인

교회가 잘하면 세상은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게 된다(행2:47).

d. 남과 북의 통일(3:18)

자유 민주 통일은 회개가 있을 때 가능하다. 지금의 상태로는 불가능, 되도 걱정

회개하지 않을 때의 결과(4:4, 5-31)

마음의 할례(4): 유대인들의 종교 의식, 8일, 주님과 의 언약으로 들어감. 시간이 흐르면서 할례를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착각함. 세례, 침례, 주의 만찬, 주일성수, 십일조, 종교

행위,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심(신10:16; 골2:11), 귀의 할례(렘6:10).

참된 회개 없이 겉모습만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격노와 진노가 나간다(4).

구체적으로 바빌론의 침공(5-18)

엄청난 고통(19-31): 31절의 해산의 고통 받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징계가 오게 되어 있다(히12:5-8).

한국의 잘못된 회개

어려서부터 지은 죄를 낱알이 고백하는 것이 회개,

죄를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철야기도, 통성 기도

결론

더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오라고 하나님은 촉구하신다.

생명의 회개를 한 적이 있는가?

구원 받은 이후에도 회개하고 있는가?

묵은 땅을 갈아엎고 있는가?

가시나무들을 먼저 제거하고 있는가?

의인이 하나도 없다(렘 강해 설교 4)

성경말씀: 렘5:1-6; 26-31

지난 주: 하나님의 회개 촉구,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180도 돌이켜야 한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나무들을 제거해야 한다. 좋은 목양자를 주신다. 방황이 끝난다. 세상이 복을 받는다. 신구약 성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 심판을 하기 전에 경고하고 피할 길을 알려준다. 소돔의 운명(창18:16-33), 소돔은 정의와 판단의 공의가 집행되지 않는 사회, 섹스에 미친 사회, 동성애에 미친 사회,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50, 45, 40, 30, 20, 10명, 10명으로 인해 멸하지 아니하리라(18:32). 렘5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 준다. 결론: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무엇을 하려느냐?(31)

하나님의 제안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고 하신다(1절). 단 한 사람 예루살렘 전체에서 찾아봐라.

1.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는 자, 2. 진리를 구하는 자: 실행과 원칙이 있는 자
사람, 하나님의 형상(창1-2),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있고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답기를 원하신다.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다: 짐승과 같은 존재(시49:20),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는 존재
A. 판단의 공의, 의롭게 행하는 것(미6:6-8, 약2):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 부모 자식, 사회 구성원 덕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를 세우는 사람, 대통령
B.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다.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예수님이 진리이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 세상에서 얻는 지적인 진리 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다해 그분께 붙어야 한다.

예레미야의 행동 개시

1. 보통 사람들(2) 주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교회에 가고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
거짓 맹세(11-12),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 역사를 다스리지 않는다.” 예배드린다고 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나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4),
고통 받는 사람들(3), 고통을 통해 대개 순종을 배운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운다.
파라오처럼 오히려 마음이 강퍽하다.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으려고 했으나 한 사람이 없다.
2. 전략을 바꾸어서 고위층에게 나아감(5). 제사장, 정치인, 이들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 것이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의인이 하나도 없다(5:5). 이들은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멍에와 결박을 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며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다.
백성 가운데 사악한 자들이 있다(26-28): 텃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 속임수로 크게 되고 부유하게 된다. 기름지고 빛이 난다.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는다. 극심한 양극화
3. 예루살렘의 자녀들(7). 우상 숭배, 간음하고 창녀들의 집에 모이고 아웃의 아내를 겁탈함.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이들은 다 말과 같은 짐승이 되고 말았다(8).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제때에 배불리 먹었다(7, 8). 그런데 유다는 섹스에 미친 나라가 되고 말았다. 대언자들을 무시한다(13). “그들에게서는 뜨거운 바람만 나온다.” 목사와 성도들 모두에게 문제
4. 하나님의 결론(30-31): 지도자와 백성의 총체적인 부실
대언자: 진리 대신 거짓을 대언함
목사들의 죄악,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다. 기복/번영 신학
제사장: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가르치고 정결한 것과 부정할 것을 구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겔 44:23).

백성: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한다. 현대 교회 목사들의 타락 - 진리 추구 소홀히 함, 멸시함, 세습, 성적 타락, 사치, 낭비 - 은 성도들의 무지와 용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하나님의 도시라 불리는 예루살렘은 소돔보다 더하다. 한 명의 의인이 없다. 아브라함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나은가? 한국은 나은가? 강남 스타일, 성당 스타일, 교회 스타일, 세상 쫓기에 급급하다. (2012년 9월 20일, 조선일보), “신자 300만명, 소속 교회 1만개로 한국 개신교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장에서 교단 운영을 맡고 있는 집행부 측이 외부인을 통제한다며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고 회의 중에 집행부 일원인 총무가 가스총을 꺼내 드는 일이 벌어졌다. 이 교단은 차기 총회장 추대를 놓고 현 집행부와 반대 진영이 치열하게 싸워왔다. 현 집행부 쪽 총무 황모 목사는 반대파 대의원들이 자신의 발언에 제동을 걸자 “나는 지금 총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야기를 계속 들어달라”며 가스총을 꺼내 들었다.

예장 합동은 개신교 교단 중에서도 각별하게 경건한 신앙과 바른 삶을 강조하는 교단이다. 사랑의교회를 서울 강남의 작은 개척 교회에서 한국의 대표적 교회로 키우고 젊은 후계자를 찾아 맡긴 고(故) 옥한흠 목사를 비롯해 한국 개신교의 많은 지도자가 이 교단 소속이다.

이런 교단을 이끌어갈 집행부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일부 교단 책임자의 유흥업소 출입 문제가 시비가 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교단 지도자들이 마음속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세 기둥을 세우고 경건한 삶을 살아온 신도들을 욕보인 것이나 한가지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일부 목사들의 교회 세습과 교권 다툼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찾는 발걸음도 줄어들고 있다. 떨어진 개신교 이미지를 다시 붙잡아 세우려면 무엇보다 목사들부터 자기 주변을 가다듬어야 한다.”

그가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떨까?

그가 우리 집에 오면 어떨까?

예레미야가 3000년을 더 살았다고 하면 의인을 찾을 수 있을까?

전도서 기자의 결론(전7:20):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의 결론(롬3:9-12). 사람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심판을 선포하신다.

5:22 설명(창1:9-10, 셋째 날), 바다의 엄청난 힘(쇠나 바위가 막아주지 않는다), 바다의 모래가 막아준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5:6, 15

심판의 이유(19): 영적인 간음,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신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입어야 한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였다. 이것은 온 인류의 문제이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 죄, 모든 사람이 죄와 범법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

선을 행한 능력이 없다. 의를 찾아 헤매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입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

사도 바울과 이스라엘: 진리를 모른 채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를 썼다(롬10:1-4).

죄의 삯은 사망(롬6:23)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리와 의를 주실 수 있다(요14:6; 고후5:21).

결론

당신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지니고 있는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가?

선한 길로 걷자(렘 강해 설교 5)

성경말씀: 렘6:16-19, 26-30

지난 몇 주: 하나님의 이혼 청구, 하나님의 회개 촉구, 하나님의 제안,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1.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는 자, 2. 진리를 구하는 자: 실행과 원칙이 있는 자, 아무도 없다. 예수님만 우리를 의롭게 한다.

5:30-31절,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심(1-15)

이혼 청구와 회개 촉구 그리고 제안에 이어 하나님은 바빌론 군대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 하심. 시온의 딸은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이었으나 전쟁으로 폐허가 됨(2, 3).

예루살렘에는 온통 학대만 있어(6) 징벌을 피할 수가 없다. 결국 황폐한 땅이 되고 밍(8).

그 이유: 1. 그들이 바른 것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10).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마11:15; 계2,3장 7번), 2. 제사장, 대언자, 큰 자와 작은 자가 다 탐욕에 빠지고 거짓으로 행한다(13).

3.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고 백성을 속인다(14). 변영신학, 은사주의

4. 가증한 짓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15): 감리교 세습 폐지 결의(2012년 9월 25일),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길자연 목사(왕성 교회 세습 결정, 9월 27일), 유다와 우리의 현실

갈림길에 서 있다(16)

이제 유다는 선택을 해야 한다. 갈림길에 서 있다. <선한 길로 걷자>

인생을 살다보면 누구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우리 민족도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한국 교회도 갈림길에 서 있다.

사랑침례교회, 결혼 생활, 가정생활, 직장, 배우자, 학교

하나님의 충고(16)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 그러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는다. 현 시대: 자동차길, 새 길이 좋다. 옛날에는 길을 개척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므로 옛적부터 있던 길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닌 길이요, 안전한 길이요, 선한 길이다.

옛 행로: 이전의 것은 다 좋고 지금의 것은 다 바쁘다는 말이 아니다.

아브라함, 바울, 청교도가 살던 시대는 지금과 다르다. 우리는 친구약 성도들의 삶의 태도를 배운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난 6000년 동안 택한 길, 그 안에 선한 길이 들어 있다.

선한 길은 무엇인가?

1. 그것은 믿음의 길이다(히11:6).

가인과 아벨(창4:3-5),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에 무관심(히11:4). 가인의 길(유11): 악한 길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고급 제물을 바쳤다(20).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 그들의 종교 행위 자체가 그들을 넘어뜨린다(21).

롬10:2-3

우리 주 예수님마저도 그분을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고 만다(고전 1:22-23).

A. 믿음은 보지 않고 통찰력을 가지고 신뢰하는 것(고후5:7), 눈의 현상과 꿈의 계시를 추구 No!

a. 교회의 초창기: 성경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 같은 사역자들을 통해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시켜 주셨다.

b. 신약성경의 완성과 더불어 방언, 신유 같은 표적의 은사들, 사도, 대언자 같은 사역자들은 사라졌다.

c. 그래서 AD 90-1800년대 말까지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다(스펠전, 웨슬레, 무디, 에드워드). 이것이 선한 길이다. 믿음의 길이다.

d. 마귀는 1819년 이후로 사람들이 오순절 은사 표적 주의/변영신학을 추구하게 만들었다.

- 1) 영국에서 에드워드 어빙의 초능력, 황홀경, 방언, 감정주의 추구
- 2) 1906년에 미국 LA에서 아주사 거리 현상으로 발전하면서 오순절 운동으로 변함
- 3) 그 뒤 1960년대를 거치면서 오순절주의는 천주교회로 흡수되어 은사주의 운동으로 발전해 나갔다.
- 4) 제3의 물결: 플러 신학교(피터 와그너, 존 워버), 빈야드, 토론토 축복, 펜사콜라 웃음 부흥, 영국에서 시작된 알파코스, G12(피라미드식 제자 훈련), 두 날개, 신사도 운동, 국내 순복음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의 번영 신학, 큰 믿음 교회(신사도)
- 5) 이들의 주장(13-14), 특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추구한다(마12:39). 고후5:7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자. 성경 때문에 기뻐하자. 이 기쁨과 은사주의의 광란(록음악)은 다르다.

2. 그것은 의의 길이다: 발람의 길(벧후2:15-16; 민22-25)

예레미야 당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불의의 샅을 추구하였다. 말1:10

하나님의 사역자는 그의 사역으로 인해 교회에서 마땅히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전9:14).

그러나 교회나 목사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신약 교회의 특징: 구약 시대의 계급 체계가 없는 것, 니콜라 당의 등장(계2:6)

AD 300년까지 교회는 큰 핍박을 당함.

AD 313: 밀라노 칙령, 종교의 자유, 기독교의 국교화, 종교가 정치를 장악하기 시작함, 천주교 1000년 동안 중에 암흑시대, 카이사르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의 분리 원칙 무시(마22:21)

2013년도의 WCC는 불의의 길이다. 빌리 그래함, 로버트 솔러, 불의의 사역자, “불교에도 구원 있다”고 주장하는 목사

3.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다(시119:1).

시편 119편: 히브리 글자 자음 22개, 8절씩 176절

이합체(acrostic) 시, 첫 8절 알레프로 시작, 둘째 8절 빼트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 8개 단어 법, 증언, 훈계, 법규, 명멸, 의로운 판단, 말씀, 약속 등

119편의 길들: 9, 32, 35, 59, 104, 105, 176 등

말씀을 믿고 듣고 그것대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것이다(창15:6). 히11의 믿음의 사람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인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이다(요 14:1-6). 도마와의 대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내가 말씀이다(요1:1)

바른 지도자의 말을 듣는 것이다(6:17). 하나님이 파수꾼을 주신다.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을 읽고 판단해야 한다(행17:11-12). 바른 교리가 나온다(딤후3:16).

선한 길을 버리면 멸망이 기다린다(26-30)

16, 17절의 충고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 우리는 어떤가?

대언자는 그들의 길을 시험하기 위해 세워짐(27).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하는 자, 비방하며 다니는 자, 늦과, 쇠(28)

불을 때고 납을 녹여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려 하였으나 그 일이 헛되다(29).

결국 그들은 버림받은 은이 되고 말았다(30).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있는가? 말씀대로 믿음을 통해 선한 길로 걷는가?

결론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의 싸인은 명확하다: 믿음의 길, 의의 길, 말씀의 길로 가라고 하신다.

이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성전의 허상을 깨자(렘 강해 설교 6)

성경말씀: 렘7:1-12, 17-18, 32-34

지난주: 하나님의 권고: 옛길로 걸으라, 선한 길로 걸으라: 믿음의 길, 의의 길, 말씀의 길
유다 백성에게는 아직도 의지하는 구석이 있다. 그것은 성전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4-7절: 길과 행위를 고치고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성전을 의지하고 있다. 마음을 고쳐야 한다.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도 동일하다. 회개가 없이 성전 건축과 치장, 외적인 쇼에만 열을 올린다.

2012년 6월 2일 뉴스앤조이 <교회 대출, 이대로 가다가 '전부 파산'>

사랑의 교회 600억! 온누리교회 400억! 안산동산교회 338억, 제자교회 227억, 새문안교회 208억,
지구촌교회 188억, 주안장로교회 130억, 인천송의교회 107억. 지난해 <시사저널>의 근저당 규모
<빛나는 교회인가? 빛내는 교회인가!>

한국교회가 1, 2차 금융권에서 대출한 금액만 9조원이 넘는다. 대출금리 6%, 매달 450억 원 이자
교회 대출이 많은 이유는 교회당 신·증축 때문이다. 은행들은 교회가 원금 상환 능력이 좋기 때문에
대출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

종교개혁시민연대 사무국장: “제1금융권의 대출만 4조 원이 넘는 것은 한국교회의 비정상적인 증상이다.

목회자들이 교회당 재건축을 해야 장사가 잘된다고 생각한다. 중소형 교회들이 대형 교회를 흉내
내면서 오히려 문을 닫게 된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 건물들이 오늘날 술집과 상점 등에 팔린 현실과, 최근 로버트 솔러 목사가 만든
미국 수정교회가 파산한 사례에서 교회의 본질이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점을 배우게 된다.

미국 '메가처치'의 원조격인 수정교회는 으리으리한 교회건물과 자동차극장형 예배, TV 설교 방송인
'능력의 시간' 등으로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다. <불가능은 없다>, 수정교회라는 이름처럼 교회 외벽은
우리 1만664장으로 덮여 있고 내부에는 세계 최대 파이프오르간이 설치돼 있다. 2011년말 파산
<성전의 허상을 깨자>

성전 건축에 목매는 이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지어 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성전을 지어야 하지 않겠는가?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가?

목사와 성도들의 과시 욕구, 종교 행위, 이것을 지으면 복 받는다는 생각

그런데 문제는 신약에는 구약과 같은 성전이 없다는 것이다.

성전이 나오게 된 배경: 삼하7

원래 하나님은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다(5-7).

다윗의 청에 따라 하게 하심: 솔로몬이 지음, 왕상5-9장, 7년에 걸쳐서(왕상6:37-38)

성전: 당시 최고로 아름다운 집, 길이 60큐빗, 너비 20큐빗, 높이 30큐빗, 27m, 9m, 13.5m
주의 궤를 성전 안으로 가져올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차고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함(왕상8:10-11).

이로써 셋째 하늘에 거하시느 하나님께서 땅의 성전에서 자신의 임재를 보여 주심

솔로몬의 봉헌 기도 내용(왕상8:22-53)

1. 다윗에게 확증하신 것을 기억하소서(왕상8:22-26). 이스라엘 왕좌에 앉을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

2.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고백(8:27-30), 하나님이 땅에 거하시겠나? 그럼에도 기도를 들어 주소서.

a. 범법했을 때(31-32)

b. 죄를 지어 원수 앞에 패하였을 때(33-34)

c. 기근, 역병이 들었을 때((35-40)

d. 싸우러 갈 때(44-45)

e. 포로로 잡혀갔을 때(46-53), 이러니 신구약을 파악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잘못에 빠진다.

하나님의 약속(왕상9:2-9)

1. 다윗과 같이 바르게 행하면 약속을 지킨다(4-5)

2. 우상숭배를 하면 이스라엘을 끊어버린다(6-7).

3. 성전이 폐허가 된다(8-9).

성전의 폐해

성전을 지은 이후로 유대인들은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므로 무슨 일을 해도 될 것으로 착각함. 패망 직전에 므낫세는 주의 집에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들을 세우고 작은 숲을 세움(왕하21:3-9). 왕이 이 모양이니 백성은 말할 것도 없음.

렘7:17-19, 온 유다 사람들이 처처에서 하늘의 여왕에게 경배함, 아스다룻, 천주교회의 마리아 이러면서도 렘7:4에 있는 것처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하며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의 권고(렘7:5-9)

너희 길들과 행위들을 고치라.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라, 학대하지 말라,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것이 없으면 성전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악을 행하면서도 성전을 의지하는 자들의 말(9-10)

하나님의 말씀: 내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11)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강도의 소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실로에 행한 것 같이 이 집과 예루살렘에 행하겠다(12).

실로: 예브라임 지파에 속한 유명한 도시.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8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백성을 모아 가나안 땅을 일곱 지파에게 분배하였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여기에 주님의 성막을 세웠고(수18:1; 19:51) 언약궤와 성막은 주전 1116년경까지 즉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을 때까지 약 330년 동안 여기 머물렀다. 언약궤 거기에 있었으므로 해마다 실로에서 주님의 명절을 지켰지만 실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 멸절되었다.

이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부패함. 백성이 타락함.

500년 전에 폐허가 된 실로를 보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황폐하게 내버려두고 떠나려 하신다(14-15).

결국 렘10장에 가서 주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된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외적인 건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백성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마3:7-12). 행위의 변화

그 이후의 성전

바빌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스룹바벨이 돌아와 성전을 세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헤롯이 46년 동안 그 당시 최고의 건물로 성전을 세움(요2:19)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전 숭배에 여념이 없다. 성전에서 사고팔면서 악을 행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몇 차례 성전을 청소하심(요2:13-17).

핵심 요점: 성전에 정신이 팔려서 성전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함.

우리는 어떤가?

그리고는 여기서 더 나아가 돈독이 오른 종교인들이 성전보다 헌금 강조(마23:16-18)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마12:6).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열렸다(요4)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여전히 예배 장소에만 관심이 있다.

요4: 수가 성의 여인

20절: 우리는 이 산에서 경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21-24, 이제는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때가 왔다(24절).

집 교회냐, 건물 교회냐가 문제가 안 된다.

적용

신약 시대의 예배당은 성도들이 모이는 강당이다. 미국 사람들은 예배당을 강당이라고 한다, 성전이 아니다. 제사장이 있는 데가 아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육할 수 있는 장소면 된다.

파이프 오르간 없어도 된다. 가장 싸게 부담 갖지 말고 짓든지 빌려서 쓰면 된다.

예배당에 손발이 묶여 선교와 구제와 교육을 못하면 구약의 성전이 되고 만다.

또 혹시 착각하면 안 된다.

1.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예배당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봐 주신다. No!
2. 킹제임스 성경 주 번역자가 있는 사랑침례교회 예배당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봐 주신다. No!
3.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하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 시대의 성전

구원 받은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영원히 내주하신다.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이 성전이다(고전3:16-17; 6:19; 고후6:16).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가 성전이다.

외적인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자. 필패한다. 그 필패의 내용이 렘7:32-34에 기록되어 있다.

결론

예배당: 필요하면 지어야 한다. 그런데 짓는 동기가 중요하다.

구약시대의 성전으로 생각하면 허사이다. 가장 값싸게 가장 편리하게 예배 처소와 교육 시설을 지으면 된다. 안 되면 빌려서 하면 된다. 더 이상 장소에 의지하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속중심을 본다.

우리의 내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예수 믿는 기본 이유이다.

계21:22 우리가 거할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다. 하나님과 어린양이 성전이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외적인 허례허식, 걸치레를 다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자랑하라(렘 강해 설교 7)

성경말씀: 렘9:1-8, 23-24

지난주: 유다 백성들의 잘못: 외적인 성전 건물을 신뢰하려 함. 하나님은 사람의 내부를 보신다. 그러므로 외부가 아니라 속중심을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위선을 피해야 한다.

유대인의 문제: 교만과 자랑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땅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됨(창12, 창15, 창17).

영토와 자손, 할례의 언약, 특별한 백성, 제사장 민족, 선민(출19:4-6)

이들의 문제: 언약과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려고 함, 예레미야 당시에는 이것이 극에 달함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함(회개는 이방인들에게만 필요하다). 뜻을 돌이켜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 신약시대가 시작되려는 순간에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외침: 회개하라(마3:7-10; 4:17)

유대인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요8:21 이하)

유대인들의 주장

1.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39).
2. 그러므로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41).

예수님의 판단

1.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23).
2. 너희는 내가 누군지 모르므로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고 내가 가는 곳에 가지 못한다(22, 24).
3. 진리를 모르는 자는 죄의 종이요, 죄의 속박에 놓인 자다(34-35).
4.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36). 유대인이라도 아들을 알아야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는다.
5.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한다(39).
6. 하나님의 너희 아버지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42).
7.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44).
8.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다(47).

대언자의 심정

유다 백성의 불순종과 완악함과 강박함을 보고 울지 않을 수 없다(1).

예수님의 심정(눅19:41; 마16:14), 바울의 심정(롬9:1-5), 우리는 어떤가? ★★★

차라리 백성을 떠나 외딴 곳으로 가고 싶다(2).

그 이유: 유다 백성의 거짓말, 악에서 악으로 나아감(3), 이웃을 강탈하고 비방함(4), 이웃을 속이고 진리를 말하지 않음(5), 주님의 법을 버리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음(13), 헛된 것을 상상하며 바알을 따라 걸음(14).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9, 11, 15-16, 21-22)

그러므로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 오라(17-18)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23-24절 말씀을 주신다. 말씀의 배경에 유의하라.

핵심 내용: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나를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현대인의 자랑거리

어떤 직업이 가장 유망한가? U.S. News & World Report誌 선정

1. 회계/기업가치평가 전문가, 2. 연예·오락/만화영화작가, 3. 금융/투자상담사
4. 언론, 광고 전문가, 5. 교육/수학·과학교사 6. 공학/컴퓨터공학자, 7. 환경/공해방지전문가,
8. 보건/의사 보조사, 9. 인사관리/교육훈련전문가 10. 인터넷담당중역, 12. 경영/물류전문가

요약: 교육, 권력(권세), 재물 ☞ 유대인의 자랑거리, 현대인의 자랑거리

이것들은 다 사는 데 필요한 것이다. 좋은 교육, 좋은 권력, 좋은 돈 다 필요하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소유하면 좋겠다. 요셉, 다니엘, 다윗, 솔로몬의 차이점, 나 이야기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요일2:15-17).

이 세상 사람들과 똑 같지 않은가?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을 산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의무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라

1.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사도 바울의 경고: 지식은 우쭐하게 한다(고전8:1, 고전1:18-25, 행17의 아테네 이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지혜로워도 하나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자기의 지혜를 믿다가는 솔로몬처럼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진화론자들, 고등 교육자들

참된 지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생긴다(잠1:7).

“나는 창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고 겸손히 고백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2. 힘 있는 자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전1:25).

무하마드 알리, 1960년 로마 올림픽 금메달, 1964년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리스틴을

물리치고 헤비급 챔피언, 하지만 그도 파킨슨병에 걸려 힘을 못 쓴다.

권세, 솔로몬(전2:9-11)

3.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눅12:15-21)

하나님을 자랑하라(24절)

사람은 누구나 다 자랑하는 존재이다.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 내놓고 자랑하는 사람

1. 하나님을 자랑하라(고전1:27-31).

창조자(창), 구속자(출), 경배를 받는 분(레), 인류 역사의 주관자, 심판자

2.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 십자가에서 대속 사역,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
재림하실 분

3. 성령님을 자랑하라.

영적으로 죽어 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분,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분,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회개로
인도하시는 분, 영원히 우리의 구원을 봉인하신 분

하나님을 연구해야 한다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요17:3).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24절),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분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다. 한 하나님, 삼위일체, 스스로 존재하는 분, 자족하시는
분, 영원하신 분, 무한하신 분, 완전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지혜로우신 분, 변치 않는 분, 주권자,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분,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참되신 분, 신실하신 분, 빛이신 분, 선하신 분, 참고 기다리시는 분, 공물을 베푸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 사랑이신 분, 영화로우신 분, 특이하신 분, 진노하시는 분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책을 읽어야 한다(딤후2:15).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때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

성경 연구와 예배가 필수이다.

시대를 잘 구분해야 한다.

통합적으로 성경을 보아야 한다.

공예배의 중요성

결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혈통, 학식, 재물, 직업, 자식들, 집, 구원받은 것, 교회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가? 그분을 연구하는가?

하나님을 알고 자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전12:13-14).

거짓 신들과 참 하나님(렘 강해 설교 8)

성경말씀: 렘10:1-16

지난주: 유다 백성들의 잘못: 헛된 것을 자랑함(지혜, 힘, 재물),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책을 읽어야 한다(딤후2:15).

유대인의 고질적인 문제: 우상숭배

사람은 눈을 통해 죄를 짓는다. 뱀이 이브에게 선악과로 접근할 때에도 이 방법, 안목의 정욕(요일2:16). 창3:6,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고대 로마, 그리스, 이집트, 중국 유적들: 온갖 우상들(사람, 새, 짐승, 일월성신...알지 못하는 신), 롬1:21-23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와 함께 우상을 숭배하였다(수24:2-3). 라헬의 드라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의 우상들을 지켜올 만큼 보았다(이집트 박물관).

열 가지 재앙(개구리, 이, 파리, 종기, 메뚜기 등): 실제로 이집트의 신들을 쳐부순 것이다(출12:12). 이집트 탈출 뒤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음(출20:3-5, 22-23).

첫째 명령: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조각해서 만들지 말라.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이들은 신들: 금송아지를 만들(출32:1-4).

이후에도 이집트에서 보았던 '보이는 신들'에 대한 향수가 없어지지 않음: 가나안 땅의 우상들 다른 이교도들과 분리되기보다는 그들의 것을 탐내기 시작하고 결국 우상들을 만들어 연합함. 성경은 이것을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말함(9:25-26). <거짓 신들과 참 하나님>

우상숭배의 원인

1.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지 않는가?(1-3절)

이스라엘은 주변 동료들의 압력을 받고 있다. 신들의 수(11:13)

바빌론이 흥왕하는 것은 그들이 천체를 숭배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도...

제자 훈련, 경배와 찬양, 두 날개, 알파 코스, 임파테이션, 빈야드

우리의 언행, 중고등학생들 욕

이스라엘은 외국의 신들에 매료되어 있었다(9a). 미국 거면 다 하려고 한다. No!

2. 우상숭배는 보기에 좋았다(9b). 세상의 모든 종교는 아름다운 것으로, 색으로 장식하고 있다.

계시록의 음녀 역시 자주색 옷을 입고 있다(계17:1-4).

그런데 기독교는 단순한 것이다: 고후1:12, 고후11:2-3

예배당, 목사의 차림, 예배 의식, 교회 운영, 복음 자체가 단순함(경배와 찬양, 각종 프로그램 No).

광야 시절의 만나(민21:4)를 불평하던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함.

우상의 실체

1. 헛되다(3-5).

우상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화도 주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교의 석상들, 천주교의 마리아와 성인상들

2. 생명이 없다(14).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분이시다(창2:7).

3.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짐승 같고 어리석다(8).

우상은 무엇인가?

“우리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아요!”

그런 형상이 아니라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다.

골3:1-2, 5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원하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사42:8)

우상 숭배: 창조자 대신 창조물을 섬기는 것, 선물을 주시는 분 대신 선물을 섬기는 것

1. 내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무엇인가?

2. 내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

3.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드람, 흡쇼핑, 음악, 영화, 몸 관리, 자동차, 집, 자식, 결혼 상대, 직장, 돈, 교회 사역...
이것들을 살펴본 뒤 “이것들은 다 영원하지 못하다. 헛되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 허수아비다”라고
외치라. 요일5:21의 경계

참 하나님을 섬겨라

대언자는 먼저 우상들이 헛것임을 보여준 뒤 참 하나님을 제시한다.

1. 유일하신 하나님(6)

우상은 논외 허수아비처럼 많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시다(신6:4-5).
심지어 그분의 이름도 능력이 강하시다.

2. 민족들의 왕(7)

무소부재하신 분, 온 인류를 만드신 분, 민족들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계19:16)

3. 참되신 분(10)

그분께는 거짓이 없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4. 살아 계신 분(10)

출3장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산 자들의 하나님, 살아 계신 분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 부활하게 하실 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 우리의 병을 낫게 해 주시는 분,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시는 분

5. 창조하시는 분(11, 12),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시는 분, 6일 창조, 지구와 우주 공간, 일원성신, 바다, 땅, 어류, 조류, 포유류, 천사, 사탄, 사람...

창조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13)

욥12:7-10

욥의 교만을 창조를 통해 깨뜨리신다(욥38-41). 84개의 질문(38:4--)

“창조자가 아닌 신은 다 가라”: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이만희, 문선명, 안상홍, 마리아,
교황, 목사, 예배당, 자동차, 우리의 모든 우상들

6. 우리의 상속 몫(16)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자신의 백성도 만드셨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영적으로는 우리
이분을 소유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분은 우리의 몫이다. portion(상속 유업) 영원한 것이다.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는 대언했다는 이유로 갖은 고난을 겪었다(애3:1-20).

그럼에도 그는 주님이 나의 몫이라고 고백한다(애3:24-25).

허수아비 우상들은 우리의 몫이 될 수 없다.

당신의 영원한 상속 유업은 무엇인가?

결론

우리의 우상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 혈통, 학식, 재물, 직업, 자식들, 집, 구원받은 것, 교회
창조할 수 없는 신들은 다 헛것이다. “다 물러가라.”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다(골1:15-18).

말씀에 순종하라(렘 강해 설교 4)

성경말씀: 렘11:1-17

지난주: 우상숭배, 우상은 하나님보다 귀중히 여기는 것, 모두가 한다. 보기에 좋다. 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지 않은 신은 다 가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상속 몫이다.

유대인: 언약의 백성

11장: 유대인들이 언약을 깨뜨림

유대인: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는 언약들을 만들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들을 어겼다.

1. 아브라함과의 언약: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냄(창12:1-3). 창15, 17

내용: (1) 땅, (2) 민족, (3) 복의 근원, (4)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음
이삭과의 언약 갱신(창26:1-5), 야곱과의 갱신(창35:1-5)

2. 400년 이집트 종살이, 시내산 언약(출19:5-8), 순종하면 특별한 보물, 제사장 왕국, 거룩한 민족

3.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팔레스타인 언약(신27-30, 수8:30-35),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심판
이집트를 멀리하라. 이집트는 쇠 용광로, 속박의 집, 고난의 장소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세는 이 둘을 비교하며 누차 이야기했으나 백성의 마음은 이집트에 있다. 오늘의 미국과 한국의 현실도 그와 같다.

4. 이 언약들의 핵심 내용: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5. 이후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유다 백성은 율법 책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드디어 율법 책 자체를 잃어버림. 요시아 왕이 8세에 집권하고 26세에 주의 집을 청소하다가 거기서 율법 책을 발견함(왕하22:1-8). 대제사장 힐기야, 서기관 사반, 사반이 말씀을 읽을 때에 왕이 옷을 찢음

a. 왕의 말(22:13): 유다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b. 여대언자 홀다에게로 사람들을 보내어 말씀들을 여주매 그녀가 대언함(15-20).

유다에 대하여: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이 임한다.

요시아에 대하여(19, 20): 마음이 연하여 자신을 낮추고 옷을 찢고 울었다. 재앙 면제

c. 요시아의 언약 확증(23:1-3): 백성이 제대로 하겠다고 약속함(3절)

d. 요시아가 주의 성전을 청소하고 온 유다를 다니며 우상들을 척결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신접한 자들을 제거함(4-25)

e. 요시아에 대한 평(25), 그럼에도 역부족이었다(26절).

언약이 깨짐(2-8)

오늘 읽은 11장 말씀은 요시아 시대에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을 가리킨다(요시아가 21세일 때, 렘1:2).

요시아 왕은 진지하게 율법 책의 언약을 지키려 하였으나 백성은 겉으로는 시늬를 냈지만 속은 여전하였다.

이 개혁의 시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어 예루살렘과 유다의 거리들에서 언약을 말하게 함(6-8).

백성은 말로만 하겠다고 하고 제물은 가져오는데 여전히 우상들을 섬기고 작은 숲을 만들

언약의 핵심: 순종하면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심판이 임한다(3-5).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이란 무엇인가?

순종(3, 4, 7, 8): 성경에서 이 말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순종과 불순종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삼상15장)

주님의 명령: 아말렉을 진멸하라(3절).

사울의 실행: 아각을 살려두고 양과 소와 살진 것 중에서 남겨두었다(9절).

주님의 판단: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11절).

사울의 대답: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13).

사울의 변명과 사무엘의 대답(14-21), 17(교만의 문제), 19 설명(탐욕의 문제)

하나님의 결론: 순종이 희생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나으며 거역하는 것은 마술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다고 말씀하신다(22-23).

왜 불순종하게 되었는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하였다(24)

예레미야의 표현(8절):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대로 걸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창6:5),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노아의 때와 같다.

목을 곧게 세우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뉴질랜드 자매님의 간증

순종은 사람의 의무

하나님과과의 바른 관계 설정: 사람은 창조물이므로 창조자요 주인이신 분에게 순종해야 한다.

1.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다(벧후3:9).
2. 구원 이후에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옛 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양육하는 것도 순종(롬 6:13)
3. 신자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의 삶이며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히11:8-10).
4.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분의 말씀에 부응하여 순종하며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다(히11:6-7).
5. 따라서 순종은 믿음의 행위이다.
6.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한 마디로 불순종의 자녀들로서 그들의 역사는 사람이 얼마나 사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거부하는지 잘 보여 주고(롬10:2-3) 이로 인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무엇인지 보여 준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한다.

우리는 어떤가?

순종은 행위이다. 그런데 행위가 다 순종은 아니다. 말씀에 기반한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7. 성경을 통해 이와 같은 불순종의 사례들을 보고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전10:1-12).

순종의 표본

1.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의 본을 남겨 주셨다(히5:7-10).
2.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나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와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였고 주기까지 순종하사 이로써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되었다(빌2:5-11).

그리스도인의 순종

교회 안에서도 순종이 요구된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지만 위치와 권위에서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종은 주인에게, 젊은 성도는 장로에게 순종하여야 한다(엡 5:22-33; 6:1-9; 벧전5:5-6).

즉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국가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 선출

결론

왜 성경을 읽는가? 특히 구약을, 불순종의 역사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고전10:11).

하나님의 명령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가?

교만과 습관이 문제다(렘 강해 설교 10)

성경말씀: 렘13:1-14, 22-27

지난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 순종하면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심판이 임한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구원, 성화
오늘은 “왜 순종하지 않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교만과 습관이 문제다>

시청각 교육(1-11)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 성막의 제단, 제사장, 칼, 어린양, 죽음, 지옥 등

말을 듣지 않을 때 사용하시는 방법, 겔24:15-27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면서 그를 표적으로 세우심
사랑을 표현할 때: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취함

아마포 띠를 허리에 띠: 아름다운 띠, 고관들이 띠는 띠, 눈에 띠는 띠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서 바위굴을 파고 거기에 감추라. 얼마 뒤에 다시 가서 그 띠를 가져오라.
띠가 크게 훼손됨. 내가 유다의 교만을 이렇게 훼손시키실 것이다(9-10).

10절에 보면 이들은 (1)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2)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3) 우상을 숭배하였다.
띠는 유다 백성, 하나님의 띠,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명성을 얻고 찬양과 영광이 되어야 함(11).

하나님의 상속 백성(출19:5-6): 특별한 보물, 거룩한 민족, 제사장 왕국

유프라테스: 바빌론의 강, 백성이 유다를 떠나 바빌론에서 크게 훼손될 것을 보여 주심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13-14): (1)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와 온 백성이 잔뜩 술을 먹고 취하여 서로
심하게 부딪힘. (2) 주님이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임.

(3) 유다가 옷자락이 들추어지고 신을 신지 못한 채 수치 속에서 포로로 끌려감(19, 22).

(4) 바람 앞의 지푸라기처럼 흩어짐(24).

심판의 첫째 원인: 교만

교만(9, 15), pride 46, 47회, 창조물의 가장 큰 문제

정의: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잠언의 총 주제(잠1:7, 시111:10), 창조물의 위치를 망각하는 것
구약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최고의 덕이고 교만이 최대의 죄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가르친다(잠8:13; 11:2).

교만은 창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권리를 자기 것으로 취하려는 것이다.

1) 루시퍼의 타락(사14장 12-15), 내가 하늘로 올라가(1),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2).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3),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4),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5). 결과: 불 호수에 들어간다.

마귀의 정죄(15절; 딤펢전3:6)

2) 사람의 타락: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리라(창
3:5). 결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지옥 불속에
들어간다(마25:41).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사25:11; 단4:37).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마23:12)고 말씀하셨다.

그리스 사람들의 지식의 교만(고전1:19-31)과 유대인들의 종교의 교만(롬2:17-20)

교만한 자들의 특징: 인류 구원의 유일한 해결책인 십자가를 반대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쓰며,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아 결국 멸망에 이른다(롬10:3).

교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이나 소유를 의지하며 스스로 자기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으로 착각하다가 낭패를 당한다(약4:13-16).

그러므로 패망 앞에 교만이 있기 마련이다(잠16:18).

특히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한다(재산, 학식, 명예, 인물, 교회 생활, 지도자(선생이 되지 말라) 등).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한다.

교만의 해결책

자랑하는 자는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고전1:31).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기뻐하고 육체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며(빌3:3) 그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다(갈6:14).

약4:6-7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느니라. 7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심판의 둘째 원인: 악한 습관

유대인들의 질문(22):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내게 닥치느냐?

하나님의 대답(23):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끈질기게 악을 행하려 하는 습관이 문제이다.

죄성을 가진 채 죄 가운데 빠져 살다 보면 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함

☞ 죄 짓는 것이 사람의 피부처럼, 표범의 반점처럼 되었다.

먼지나 때는 지울 수 있으나 피부나 반점은 사람의 힘으로는 못 지운다.

처음부터 악을 행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죄가 죄를 낳고 악이 악을 낳으면서 양심이 기능을 잃으면 결국 이 지경에 이르게 된다.

“속지 말라. 악한 사귀는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고전15:33). 악한 친구(잠1:10-16)

술, 담배, 마약, 욕, 무례함, 거짓말, 도둑질, 허영, 스마트폰, TV, 영화

(1)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2)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를 괴롭게 하고 (3)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죄를 피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

(1) 불신자: 모세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

하나님의 백성을 순순히 보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테지만,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마음을 강압하게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다가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패망의 패망을 당함. 자신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백성이 어려움을 당함.

(2) 신자: 솔로몬, 가장 지혜로운 왕,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집트로 내려가 딸을 수입함. 아들 때에 왕국이 갈라짐.

(3) 교회 지도자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의 결단 촉구

“네가 깨끗하게 되려 하지 아니하느냐? 언제나 한번 그리 되겠느냐?”(27절)

생명이 있는 한 아직 소망이 남아 있다.

죄에서 깨끗하게 되지 않는 이유: 깨끗하게 되려는 마음이 없다.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확증시켜 주실 때에 의지를 열고 초청을 수락해야 한다.

파라오에게는 자그마치 10번의 기회가 있었으나 그는 다 놓치고 말았다.

언제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가? 구원, 악한 습관, 좋은 습관(성경 읽기, 경전 서적, 모이기, 교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그리하여야 한다(히3:15-16).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

인생에 기근이 올 때(렘 강해 설교 11)

성경말씀: 렘14:1-16

지난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 순종하면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심판이 임한다.
불순종의 원인: 교만과 악한 습관,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창조물의 위치를 망각하는 것
악한 습관: “속지 말라. 악한 사귀는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고전15:33). 피부와 반점
하나님께서서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는 ‘인생의 기근’을 보내 경책하신다. <인생에 기근이 올 때>

가뭄과 기근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지형이 다르다: 나일 강의 관개 수로, 오직 하늘에서 오는 비(신11:10-12)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생활할 수밖에 없다.

예레미야 당시의 기근(14:1), 연속적인 기근(3:3; 5:24; 12:4; 23:10)

사람들: 애4:4, 8-9

온 민족이 애곡하고 부르짖음(2)

귀족과 종 할 것 없이 모든 계급이 고통을 당함(3)

농부도 고통을 당함(4)

짐승도 고통을 당함(5-6)

그런데 유다는 기근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역병’이라는 삼중고를 겪게 됨(12)

하나님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때

이런 고난 중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레미야 대언자는 울고(18) 논쟁하고(7) 기도하였다(20-22).

눈물의 대언자(17)

기가 막힌 상황(18절)

“주여, 주께서 주의 이름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7)

인생을 살다보면 이런 악한 상황이 발생한다. 가뭄과 기근이 한파가 올 수 있다. 피폐하게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이들이 죽고, 사고를 당하고, 병으로 고통을 겪고, 사업이 실패하고, 입시에 실패하고,
이혼하고...

2011년 4월 19일, 장인, 딸, 어머니 만성 신부전(매주 3일 투석), 불면증, 김재욱 형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19)

예레미야는 너무 곤혹스러워 “왜 아무 대답이 없습니까?”(8)라고 묻는다.

하나님은 응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힘이 없는 존재처럼 보인다(9).

심지어 대언자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에 대한 의심이 든다.

이때 들려온 하나님의 응답

그들의 죄로 인해 이런 형벌이 온다(10).

그들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라(11).

경건한 종교 생활도 구원하지 못한다(12).

인생의 기근의 종류

모든 기근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다. 기근에는 두 종류가 있다.

(1) 긍정적인 기근

창38-50장: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는 기근, 물론 형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

용기: 하늘에서 마귀가 그를 대적하므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어났으나 결국 그의 회개로 끝남

고후12:7-10, 사도 바울의 병, 그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2) 부정적인 기근

여기의 기근은 누구도 알 수 있는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두가 안다.

교회에 안 나오는 한 형제: “죄들을 회개하고 나가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당하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국가에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와 백성이 회개해야 한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목사와 성도들이 회개해야 한다.

이런 일들을 통해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우리에게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목사들의 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했으나 그래도 다시 말한다(13).

“대언자들이 그들이 기근을 겪지 않고 확실한 평강을 얻으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혼동에 빠졌다. 자기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다른 모든 대언자들은 복을 말한다.

CBS, CTS, C3TV 등의 기독교 케이블 방송을 보라.

목사들이 하는 일과 정치관의 일이 동일하고 깨끗하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을 보기가 대단히 어렵다.

국가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지도자들과 목사들이 회개해야 한다. 지금의 우리나라

목사들이 해야 할 일:

목사는 대언자이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을 해야 한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롬10:17).

성경을 읽어야 한다.

연구해야 한다. 말씀만으로 승부하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말씀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설교를 잘하기 위해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연습해야 한다.

설교의 내용이 신학이 정확해야 한다: 코미디, 농담, 노래, 불필요한 신문, 잡담, 예화 No

그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 하나님이 계신다. 죄를 미워하신다. 심판하신다. 대신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 성화되어야 한다. 재림과 부활의 소망의 증대,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계획, 성경 바로 보기(종말론), 지금은 말씀 기근의 때(암8:11-13)

거짓 대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14-16)

목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엄중하다.

그래서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교회도 마찬가지로(벧전4:17). 교회가 할 일을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가 먼저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를 알았다: 먼저 개인이, 교회가 바르게 변해야 한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눅12:47-48).

기근을 대하는 태도: 기도(20-22)

예레미야는 눈물도 마르고 항변하는 태도 치쳤다. 남은 것은 기도뿐이 없다.

(1) 죄들의 인정(20): 사악함, 불법, 죄, 한두 종류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죄를 인정함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내 죄뿐만 아니라 내 교회와 내 민족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한다.

(2)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21): 자기나 백성을 위해서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야 한다. 그래야 헛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기도의 시금석: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닌가? 축구팀의 승리?

(3)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책임을 고백함(22)

다른 신은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직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 구원, 병의 회복, 성화, 직장, 가정, 공부, 격려, 우정, 지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주소서.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렘 강해 설교 12)

성경말씀: 렘15:1-21

지난주: 살다 보면 인생에 기근이 올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는 '인생의 기근'을 보내 정책하신다. 긍정적 기근, 부정적 기근, 둘 다 멈추고 돌이켜서 생각해야 한다.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만 기근을 풀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해야 한다. 최선의 기도를 드렸는데도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인생에서 낙심이 될 때>

예레미야의 낙심

사람은 살면서 다 낙심한다. 예레미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의 낙심을 투명하게 표현한다(12, 17, 18, 20장). 오늘 읽은 10절 말씀은 연극의 독백과 같다.

햄릿 3막 1장에 침통한 표정을 한 햄릿이 등장한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예레미야의 낙심은 아직 최저의 바닥에 이르지 않았다. 최저의 바닥은 20장에서 나온다. 거의 다다랐다. 그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대언자로 부름 받음(렘1:5). 그런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탄함.

낙심의 원인: (1) 기도의 응답이 없음(1-14), (2) 부당한 고난을 당함(10, 15), (3)순종에 대한 대가가 없음(16-18)

(1) 기도의 응답이 없음

14장 후반부의 기도: 완벽한 기도,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최고의 기도

그런데 기도의 결과는 무엇인가? 응답인가? 아니다 응답이 아니라 혹독한 심판이다(1, 2절).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해 들어 줄 수 없다.

또한 네 종류의 심판 도구를 알려주신다(3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주변 민족들 모두에게 버림을 받는다(4, 5절).

거짓 대언자들이 '평강, 평안, 화평'을 외쳤지만 그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7절).

가족들이 멸절되고 과부들이 늘어나며 젖먹이들의 어머니들이 죽고 나머지는 칼에 넘겨짐(8-9절).

이 모든 심판의 근본 원인(4절): 므낫세(히스기야의 아들, 요시야의 할아버지), 가장 사악한 왕, 55년 통치, 왕하21:1-17, 그의 시대에 굳어진 우상 숭배를 도저히 제거할 수가 없게 되었다.

몰락을 위해 아들을 불 가운데로, 하늘의 천체 숭배, 바알 제단, 숭배,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려 예루살렘을 채움(16절)

예레미야의 교훈: (1) 죄의 삶은 사망이다(롬6:23).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을 당한다.

(2)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중보)도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 중보자 혹은 기도 대상의 죄

(3)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

(4)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유대 백성처럼 죄인이다: 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예레미야의 기도, 목사의 기도, No!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하다.

모세의 기도: (1) 출32장, 시내 산에서 율법 수여, 백성이 우상 숭배, 하나님이 이들을 멸절시키겠다고 함(32:7-10). 모세의 중보와 기도(32:11-12), 하나님의 응답(32:14)

(2) 민13-14장, 가나안 탐지, 백성이 안 들어가겠다고 함, 하나님의 멸절(14:11-12), 모세의 중보(13-19, 19), 주님의 응답(20), 2번 응답

사무엘의 기도: 삼상7,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 위협, 미스바에서 중보 기도(5), 하나님의 응답(9)

백성이 왕을 구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 기도, 하나님의 응답(삼상12:19-25), 2번 응답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대언자들의 한계: 죄들로 인해 기도할 수는 있으나 속죄를 이루지는 못한다.

중보와 동시에 완전한 속죄 희생을 드려 죄들을 제거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함.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음: 십자가 희생

히7:25-27

모세도 사무엘도 예레미야도 소용이 없다. 목사도 교회도 소용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다.

(2) 부당하게 고난을 당함

예레미야는 10, 15절에서 자신이 부당하게 고난당하고 있음을 불평한다.

10절: 돈놀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미워하고 저주한다.

“이게 웬일입니까?” “내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지?”,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딤후3:10-13),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너무 지쳤다. 목사 기도 필요

(3) 순종의 대가가 없음

열심히 순종했는데 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까?(16-18)

(1) 그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랑하였다(16). 심지어 그것들을 먹었다: 양식으로 삼았다.

그 말씀들이 그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었다. 우리는 어떤가?

(2) 여가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17, 시1:1). 주말에도 홀로 앉아 세상과 자신을 분리하였다.

주님을 섬기려면 세상의 안락, 게으름, 더러운 대화, 술 취함, 조롱, 음행을 삼가야 한다.

(3) 그런데 왜 내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까?(18), 강인줄 알고 갔더니 물이 없다.

이렇게 낙심되는 일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 믿는 자도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의 응답(19-21)

결코 우리를 낙심시키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껴도 그렇지 않다.

기도 응답이 없고 부당하게 고난당하고 순종해도 보상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낙심시키는 분이 아니다.

전투함이 안개 속에서 향해 중 다른 배의 불빛을 보고 “부딪힌다. 동쪽으로 15도 틀어라.”고 외침.

반대쪽에서 응답 “부딪힌다. 서쪽으로 15도 틀어라.”고 외침.

사령관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다시 “부딪힌다. 동쪽으로 15도 틀어라.”고 외침.

반대쪽에서 다시 응답 “부딪힌다. 당신이 서쪽으로 15도 틀어라.”고 외침.

사령관이 화가 나서 다시 “이것은 전투함이다. 사령관이다. 동쪽으로 15도 틀어라.”고 외침.

반대쪽에서 다시 응답 “이것은 등대다. 당신이 서쪽으로 15도 틀어라.”

하나님은 이 등대와 같다. 그분이 계신 곳은, 그분이 하는 일은 다 옳다. 그분은 움직이지 않는다.

예레미야는 전투함과 같다. 그는 방향을 바꾸어야만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응답(19절): (1) 돌아서라. 방향을 바꾸라.

저 유다 백성들처럼 불평하지 말고 돌이켜라. “네 말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전체를 말한 것이 아니다. 너 역시 죄인이다. 네 행위로 내게 나오려고 하지 말라.”

“주일성수, 십일조, 새벽기도, 특새, 성전건축헌금, 킹제임스 성경, 침례, 목사, 집사, 30년…” 예레미야는 수년 동안 유다 백성보고 돌이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보고 돌이키라고 한다.

자기의 의를 버리고 철저히 돌이켜야 한다.

(2) 천한 것에 귀한 것을 취하여 내면 대언자 노릇을 바르게 하리라(19).

금광석, 찌꺼기를 없애야 금이 나온다. 천한 것: 인간의 육신, 욕망, 더러움, 자기 의, 귀한 것: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3) 그들처럼 하지 말라(19). 아무리 그들이 듣지 않아도 목사가 쏘(show)하지 말라.

(4) 하나님의 약속(19-20): 견고한 놋 성벽, 구원, 구속

결론

낙심이 오게 되어 있다(무응답, 고난, 무보상): 새로운 계시, 경험, 진리를 구하지 말라.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다. 내게 있다. 내의를, 공로를, 순종을, 선행을 자랑하지 않는가?

목사도 돌이켜야 한다. 예레미야의 인간적인 모습, 하나님은 꾸지하지 않는다. 가장 인간적인 목사를 하나님

과 성도들은 사랑한다(모세, 엘리야, 요나). 완벽주의 목사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융통성과 타협을 구분해야 한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다. 울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성도들과

동고동락할 때 하나님이 다시 충전시킨다. 놋 성벽, 구원, 구속, 재충전해서 주님의 일을 하자.

마음이 문제다(렘 강해 설교 13)

성경말씀: 렘17:1-14

지난주: 예레미야의 낙심: (1) 기도의 응답이 없음, (2) 부당한 고난을 당함, (3) 순종에 대한 대가가 없음, 하나님의 응답(19절): (1) 돌아서라. 방향을 바꾸라. (2)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여 내라. (3) 그들처럼 하지 말라. (4) 약속: 견고한 놋 성벽, 구원, 구속

하나님의 심판과 그 원인

예레미야의 시청각 교육(16장)

1. 아내를 취하지 말고 아들딸들을 두지 말라(2). 4절
2. 애곡하는 집에 들어가지 말라(5). 6절
3. 잔칫집에 가지 말라(8). 9절

백성의 질문(10절):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답변: 우상 숭배(11), 자기 마음대로 행함(12)

유다의 죄는 다 기록되었다(17:1).

명백해서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공간에 밀봉되어 차곡차곡 쌓여 있다(신32:34).

1.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철필과 금강석 축으로 새겨졌다. 지우려야 지울 수 없다(17:1). 용서받기 전에는 안 지워진다. 히10:16-18

2. 또 그들의 마음 판과 제단의 뿔들에 새겨졌다(1절). 원래 제단 뿔에는 희생물의 피를 뿌렸으나(출 30:10 등) 유다 백성은 이방 신의 이름을 거기에 새김. 사람들이 다 알고 심지어 희생 짐승도 다 안다.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일 수 있다(물질의 복, 병 나으려고 다니는 것, 맘몬을 섬기는 것, 마6:24).

3. 아이들도 다 안다(2절). 아이들 앞에서 부모의 죄, 해서는 안 될 일, 아이들이 배운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면 아이들도 그러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도...

지난주 가족 음악회: 좋은 유산, 정신세계, 부모가 좋은 것,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면 아이들도 그렇게 한다. 우상숭배, TV, 인터넷 중독, 악한 습관, 심판을 받는다(3.4절). 느13:23-25,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것이 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

두 종류의 사람

저주 받는 자와 복 받는 자

1. 저주 받는 자(5,6):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자
지혜, 능력, 재산, 학식, 친절, 신실함, 창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다.
사람은 육체라 불린다: 썩는다. 흙에서 왔다. 영이 떠나면 먼지다. 석가, 마호메드, 공자, 각종 이단 교주, 창6:3, 사2:22

사막의 소금 땅의 히스나무: 바싹 마르고 홀로 거하며 뿌리가 깊지 않다. 가장 좋은 비 소식: 잠시 재물을 바르게 모으지 않는 자(11절): 대기업, 부의 공정한 분배(약5:1-6)

생수의 샘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자(13절), 렘2:13, 요7:37-39

2. 복 받는 자(7,8):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자, 갈릴리 호수 옆의 나무(가뭄 걱정 없음, 레바논 산)

시1:1-3, 잠3:5-7

문제의 핵심: 마음(9)

9절은 예레미야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14-18절)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

라이켄의 예화, 에드가 알렌 포: '고자질하는 마음'(Tell Tale heart), 자기 마음이 자기를 배신하는 내용

주인공이 악한 노인을 죽이고 그를 마루 밑에 숨겼을 때 경찰이 온다. 이웃 사람이 비명 소리를 듣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함. 들어오라고 친절히 말했는데 그 이후부터 옷 속에 감추어 둔 시계에서 나는 소리 같은 저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함. 경찰들은 못 듣는데 그에게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함. 그는 일어나서 큰소리로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소리는 점점 더 커진다. 그는 마루 위를 왔다 갔다 한다. 안자 있던 의자를 뒤집어엎는다. 마룻바닥을 의자로 긁는다. 소리는 점점 더 커진다. “빌어먹을. 내가 죽였소. 마루 밑에 있소, 그 심장에서 나오는 박동 소리를 듣지 못했소.”

살인자는 그 죽은 자의 심장이 아니라 자기의 심장 즉 마음에 의해 배신을 당했다.

예레미야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 싶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그를 배신하였다.

사도 바울의 고백(롬7:22-24).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다(속임수로 가득하다, 히브리말로 야곱), 악을 선이라, 선을 악이라 사람을 죄 속으로 밀어 넣는다.

마음은 양심과 비슷하다. 자동차의 계기판 역할, 이것이 망가지면 신호가 안 온다. 사람이 망가진다.

양심에 화인을 맞는다(딤후4:1-2). 조용기, 이만희, 안상홍 등

마음을 믿지 말라: 극도로 사악하다. 아합과 같은 존재

아무도 마음을 알 수 없다. 심지어 본인도 본인 마음을 모른다.

자동차 관리하듯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눅6:43-45),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만 마음과 속중심을 아신다(10절)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해도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하소연한다. 성경 사역 속에 방해가 많다.

히4:12-13

신자들: 그리스도의 심판석(롬14:11-12), 불로 시험을 받는다(고전3:13-17)

불신자들: 크고 흰 왕좌 심판(계20:11-15)

모든 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다. 당신은 이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마음을 고칠 수 있다(14절)

‘일러바치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예레미야는 백성이 회개할 것을 선포하였는데 여기서는 자기 스스로 회개함

목사도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필 뿐만 아니라 고칠 수도 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나를 고치소서: 회개해야 한다.

나를 구원하소서: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롬10:10).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의 루디아(행16:14).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다.

마음과 양심의 문제: 말씀이 해답이다.

영혼의 어두운 밤(렘 강해 설교 14)

성경말씀: 렘20:7-13

지난주: 예레미야의 시청각 교육(16장), 유다의 죄: 철필과 금강석 축, 두 종류의 사람: 사람을 신뢰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마음이 문제다(17:9-10),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만 마음을 고칠 수 있다. 라이켄의 예레미야 강해, '영혼의 어두운 밤'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18, 19장)

18장: 토기장이가 진흙을 물레 위에 놓고 물건을 만드는데 자기 마음대로 만듦(18:6-10).

선민이라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 구원받아도 징계가 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함(18-23). 22절

19장: 토기장이의 질그릇 병을 가지고 흰놈의 골짜기로 가서 그 병을 깨뜨림(10-12절).

이 도시를 향해 선언한 모든 재앙이 그대로 임하게 되리라(15).

하나님의 사람의 고난

예레미야는 “타어나기도 전에 대언자로 세웠다.”, “나는 아이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1:6), “내가 네

입에 주는 말과 명령을 그대로 전하라”(1:7).

내가 너를 '방벽을 세운 도시', '쇠기둥', '늦 성벽'이 되게 하여 아무도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1:18-19).

그 이후에 그는 신실하게 고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 왕, 종교인(서기관, 대언자, 율법 박사), 백성,

친척, 아내도 못 두고 아이들도 없다. 모두가 그를 기피한다.

렘18, 19장의 예레미야의 대언을 들은 임멜의 아들 바스홀(주의 집의 우두머리 감독 1절)은 그를 체포하여

차꼬에 밤새도록 가둠. 단순한 차꼬가 아니라 발과 손을 비틀어 고문하는 형틀이다(주리).

예레미야의 일생에서 이처럼 비참한 날은 없었다.

가장 처참하게 모든 것(지존심, 명예, 육체)이 찢어지는 날 그 '영혼의 어두운 밤'에 20장을 기록함 백성이 핍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우두머리가 말씀을 대언했다고 주리를 틀.

미안했던지 바스홀은 다음 날 아침에 그를 놓아 줌.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3-6)

이 대언에서 처음으로 바빌론과 바빌론 왕이 언급됨. 이후로 바빌론은 200여 차례나 더 나옴.

예레미야의 등과 손과 발이 피가 나고 아프지만 바스홀과 그의 동료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됨.

바스홀의 뜻: 사방에서 열매를 맺는다. 새 이름 마골밋사빕(3절):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

그 처참했던 어두운 밤에 예레미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오게 마련이다(딤후3:11-12). 이 예를 통해 배워야 한다.

교훈1: 고난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감

예레미야의 낙담의 원인

1.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10절).

증상모략: 예레미야의 품위를 깎아내림, 서로 예레미야에 대한 나쁜 말을 전하려 함.

심지어 친구들도 그가 대언하는 것을 그만두기를 바라며 원수를 갚으려 함.

2. 날마다 조롱거리가 됨(7), 코미디 프로의 단골 메뉴(질그릇 병을 깼다, 원수가 온다 다 거짓말이다).

바스홀이 마골밋사빕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마골밋사빕이다(10절).

3. 친구들 중에 가장 중요한 친구인 주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다(7). 나를 속인 것 같다.

'방벽을 세운 도시', '쇠기둥', '늦 성벽'은 커녕 지금 옥에 갇혀 주리가 틀리는 형벌을 받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대언한 말이 맞는가? 나는 진짜 대언자인가? 가짜인가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을 받고 있는가? 가족과 친구들이 등을 지는가?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하게 손발이 찢어지고 등이 부은 상태에서 그는 여전히 주님께 기도한다.

“오 주여…”(7절),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특권: “오 주여” 시27:7-8

욥(재 가운데 앉아서 욥3), 엘리야(로렘나무 밑에서 왕상19:4-5), 다윗(사울을 피해 동굴에 들어가 시57), 요나(고래 배 속에서, 2장),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마27:46)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랑침례교회, 032-664-1611, www.cbck.org - 2 -

을 한해에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올 것이다. 솔직하게 주님께 가지고 가야 한다. “오 주여”

교훈 2: 뼈 속에 사무친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가 있다. 100%는 아니고 그럴 때가 있다.

백성이 자기를 미워하는 이유를 그는 알고 있었다(8절).

그의 선포는 하나님의 선포이다. 그의 말이 아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으로 인해.

그래서 그는 해결책을 강구한다: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

리라(9절). 대언자를 포기한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조용히 살다가 죽어야지.”

그런데 그는 불가능한 것을 선포하였다. 그래서 곧바로 번복한다.

9절 후반부: 그분의 말씀이 뼈 속에 타오르는 불같이 간혀서 도무지 뜨거워서 그만둘 수 없다.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문맥에 상관없이 목사에게 영감을 주는 말씀으로 취함.

실제로 주님의 말씀은 끝 수 없는 불로서 설교자의 뼈 속에 들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의 사정은 다르다. 그는 지금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 이것을 기뻐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불 같은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다. (*) 목사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거짓 대언자들: 평강(6:14; 8:11), 기쁨, 복, 성전 건축, 주일 성수, 십일조

우리가 해야 할 말: 예수 불신 지옥, 킹제임스 성경의 완전성, 성경적인 신약 교회,

우들에게 이것이 타오르는 불 같이 마음속에 뜨겁게 들어 있는가

핍박과 학대와 조롱과 멸시를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마5:10-11)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핍박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요16:1-2, 33)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성경 번역의 어려움: 친구들이 등을 지고 배반함

한 목사의 조언: 이것도 성경 번역자가 져야 할 짐, 아멘!

교훈 3: 고난 속에서도 주께 경배함

육신의 고통 속에서, 낙담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였다(11-13).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한다.

그는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모른다. 그래도 주님을 찬양한다(11절).

도움을 구한다(12절)

찬송을 부른다(13절): 바울과 실라처럼(행16:25)

고난당할 때에도 찬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교훈 4: 성도의 삶은 이중적이다(14-18)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14-18절은 찬양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한다.

어떤 이들은 너무나 황당해서 14-18절은 원래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니다. 14-18절은 여기에 속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롤러코스터와 같다(스끼조프레니아).

우리는 의인이며 죄인임을 기억해야 한다.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나 여전히 죄를 짓는다. 그래서 찬양하다가도 불평한다.

이 구절은 가장 좋은 성도라도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래서 위로가 된다. “엘리아의 죽여 주소서.”와 함께 우리에게 격려가 된다.
그는 핍박의 원인을 알고 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알고 있다. 자기가 당하는 모욕을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그에게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을 주고 있다. “왜 나는 살고 있는가”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질문을 갖기 원한다. “왜 나는 21세기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다(15).
예레미야는 모태까지 올라갔으나 하나님은 모태 전에 창세 전에까지 올라가신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롬8:28).
창세 전에 구원과 사역을 주신다. ‘진실되게 하소서’ 시 낭독

내 영혼의 어두운 밤(렘 강해 설교 15)

성경말씀: 렘20:9

지난주: 예레미야의 고난(바스홀이 때리고 차꼬에 채움), ‘영혼의 어두운 밤’, 교훈1: 고난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감, 교훈 2: 뼈 속에 사무친 말씀(공의와 심판과 사랑의 말씀), 교훈 3: 고난 속에서도
주께 경배함, 교훈 4: 성도의 삶은 이중적이다(왜 사는가?), ‘내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

요즘 세계명작 문학작품을 읽고 있다. ‘인간의 심연’: 올리버 트위스트, 허클베리 핀, 동물 농장
저자의 말: “인문학을 통해 인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인문학이 필요하다.”
그런데 친구약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람에게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요2:23-25).

특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한 정보를 너무나 자세히 주고 있다.

여기 앉아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장성한 분량

오늘 여기 왜 나와 있는가? 단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당신을 향한 뜻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성화되기 위해 교훈을 받으러 왔는가?

성경을 통해 교훈을 받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롬15:4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의 장,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 기드온
피상적으로 이들의 삶을 보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여기에 올리셨는지 생각해야 한다.

이들의 특징: 주님으로 인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빠져리게 겪은 사람들

휴스턴으로 간 형제: 목사 권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쳤는가?

사랑침례교회에 오시는 많은 성도님들: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친 분들, 사업 실패, 인생 실패
그 밤이 하루인 사람도 있고 몇 십 년이나 된 사람도 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조롱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이 선포하였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감옥살이, 종살이 10년 이상 하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지내는 것을 포기하고 도망하여 40년 동안 양떼와 함께 미디안 광야를 헤맸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피해 광야 동굴로 떠돌며 눈물을 흘림(시55:1-7; 56:8-9; 57:1-2, 7)
예레미야: 오늘 하루만이 아니다. 그 날 20장을 기록했을 뿐이다.

렘20:9절 다시 설명

침례자 요한: 눅1:80, 광야의 사람(고독과 침묵 속에서 자신의 때를 기다림). 눅3:2

예수님의 증언(눅7:24-28)

사도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한 밤(눅22:62)

사도 바울: 다마스쿠스에서 주님을 만난 뒤 아라비아로 들어감(갈1:15-17).

사도 요한의 계시록: 그가 밧모 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말씀

공통점: (1)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영혼의 어두운 밤을 깊이 체험하였다.

(2)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어 소명을 감당하였다.

사도 바울의 표현(고후1:8-11, 고후11:23-29)

내 영혼의 어두운 밤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감, 중학교 시절에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음

22세에 유학, 32세에 귀국

성경 번역: 주로 홀로 하는 일, 육체적으로 힘들었으나 연구하듯이 하면 되었다.

2000년 8월 초판 발행

한국에 온 이후로 가장 어려웠던 일: 교회를 찾는 것(원래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형제 교회, 지방
교회 영향을 받은 집 교회, 미국의 독립 교회 등)

성경이 완성될 무렵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미국의 신학교를 다니며 석사 학위를 따(2001년 5월)

근처에 교회가 없어서 멀리 의정부로 2년 정도를 다님

2001년 8월 목사 안수를 받고 9월부터 교회 시작

약 1년 반 뒤에 교회 파산: 문제: (1) 목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시작함

(2) 목사와 사모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고, (3) 교회의 유기체와 조직체를 구분하지 못함

2003년 8월부터 대단히 어려운 시절: 가정 파탄, 율화병, 교회 생활을 못함

이때부터 약 5년 동안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기 시작함

아내에 대한 불만, 남편에 대한 불만, 너무 어려움이 많음. “더 이상 목사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함.”

렘20:9는 나와 상관이 없다.

목사를 하다가 그만 두니 갈 교회도 없고 참으로 암담함.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짐.

“나는 왜 이럴까?” “죽어야겠다.” 처음에는 비판과 비난으로 시간을 보냄. 성경 교정

서울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1년 반 정도 일하면서 성도의 입장에서 보는 목사를 깨닫게 됨.

2006년에는 캐나다의 에드몬턴에서 한겨울에 울면서 산을 헤멤.

시간이 지나도 교회에 대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음(왜 교회들이 이럴까?), 목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연구하는 자세로 목사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시작함.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설교와 설교자’, 김남준 목사님의 ‘자네 정말로 그 길을 가려나’,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등 목사와 설교에 관한 책들을 읽고 읽고 또 읽었다.

그래서 얻은 결론: “나는 목사를 할 수 없다.”

아내와의 갈등: 인하대 교수님, “예수님처럼 답답한 분이 있었겠는가? 그분의 마음을 가져라!”

이러는 가운데 갈등이 치유되고 두려운 가운데 성경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디모데 스쿨).

2008년 4월 송내역의 조그만 빌딩에서 시작, 이제 300명이 출석하며 “오는 성도들을 어떻게 다 수용할까?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교회로 성장함. 할렐루야!,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들에게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꼭 필요하다.

구원 받기 전, 구원 받은 뒤(수유리), 목회 사역

예수님의 영혼의 어두운 밤

마4: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광야로 들어가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

낮을 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당함. 모두 말씀으로 승리하심.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거의 매일이 영혼의 어두운 밤

하나님이 왔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하며 박해함

마26: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고 종교인들과 이방인들의 총독 앞에서 수치를 당함

죽기 전 날 밤 세 제자를 데리고 겻세마네로 가서서 기도함. 제자들은 잠에 떨어졌으나 주님은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보시며 마26:38-39 말씀을 하심. 눅22:44 땀이 핏방울 같이 됨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손바닥으로 내려침(마26:67).

베드로의 부인, 가시관을 쓰셔서 독으로 인해 얼굴이 부어올라 형체를 알 수 없게 됨

사53:3, 10-11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마27:46).

영혼의 어둠을 통과하시면서 “다 이루었다”(요19:30)고 선언하실 때에 우리의 죄들이 모두 용서됨.

예수님도 이와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셨다.

성경의 위인들이 모두 광야에서 고독한 가운데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셨다.

예레미야가 렘20:9에서 다시는 언급하지 아니하리라고 외쳤지만 그의 뼈 속에 갇힌 말씀이 그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 이 말씀의 불이 타오를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발생한다.

이 불은 어떻게 우리 속에 갇히는가? 눅24:13-35,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32절, 성경 기록들을
열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거움이 있어야 한다. 기도원이 아니라
말씀으로 뜨겁게 되는 일, 100독 1도, 이 교회의 부흥은 오직 말씀에서 온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선포에 의해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엎는 우리가 되자(테살로니가, 행17:6).

말씀의 사람(렘 강해 설교 16)

성경말씀: 렘20:9

지난주: 성경의 위인들은 모두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쳤다(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예레미야, 베드로, 바울, 요한 등). 어떤 이들은 의로 인해, 어떤 이들은 성화로 인해 거쳤다. 이 밤의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빛을 발하고 인간의 위대함이 드러난다. 오늘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어떻게 견디고 이길 것인가? 9절 설명: **뼈 속에 갇힌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말씀의 사람'**

계시 종교의 특징: 말씀

종교: 고등 종교와 저등 종교

저등 종교: 계시 없이 경험과 술수로 사람의 육적 필요를 채우려 함(바알, 아스다룻, 그리스, 로마, 바빌론, 이집트, 샤머니즘, 은사주의).

고등 종교: 계시가 있다(불교,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등). 즉 말씀이 있다.

기독교의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도덕적 성품)이며 동시에 말을 해서 상호 의사를 표현할 줄 아는 능력, **"하나님은 말을 하신다. 인간도 말을 한다."** 가장 큰 특징
하나님의 호칭이 말씀이다(요1:1).

계시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창1:3; 계22:20).

말씀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다(마4:4).

그러므로 명백하게 말씀들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심(시12:6-7).

말씀 변개에 대해 가장 강력한 경고를 주심(계22:18-19).

마귀는 창세기 에덴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기 시작함: 말의 전쟁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열려 선과 악을 알게 되리라."

"보존해 주실 수 있다.", "보존해 주실 수 없다."의 싸움

구약시대 4000년 동안에는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다(히1:1-2).

변화산 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난 아들의 말을 확증해 주심(마17:5).

기독교는 '말의 종교'이다. 말로 사람을 설득하여야 한다. 말로 구원, 말로 성화, 말로 위로, 말로 심판
예레미야 1장 1-10절, 첫 강해, '우리는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계시 종교에서는 '대언'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임받은 사람이 '대언자'이다.

대언자에 의해 한 인간과 가정과 국가의 생상회복과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렘1:9-10).

왕상22: 아합의 멸망, 미가야와 거짓 대언자들(왕이 잘된다고 대언함), 19-23절

거짓과 미혹의 영에 붙들리면 개인과 국가가 패망한다.

구약시대의 역사: 대언자들의 역사, 참 대언과 거짓 대언의 갈등

예레미야 당시 나라가 풍전등화 상태임: 바로 이런 때에 거짓 대언자들이 등장한다.

백성이 무지하면 이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나라를 잃는다.

마지막 때의 징조: 마24:4-5, 11, 살후2:8-12, 딤펢전4:1, 딤펢후4:3-4

지금 한국의 상황이 거의 마지막 때와 비슷하다: 도처에 거짓 대언자가 횡행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이 중요하다.

대언자

구약시대 대언자가 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한다(렘1:2-4).

아무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

1. 국가와 민족을 염려하는 자에게 임한다: 기드온(삿6:11-14), 바울(롬9:1-4)

2. 하나님의 것이 훼파되고 조롱당함을 보고 분을 내는 자에게 임한다: 예수님(요2:13-17)

3. 앞날의 심판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임한다: 노아

4. 회개하지 않으면 국가와 민족이 멸망당할 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자에게 임한다: 침례자 요한
한 마디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임한다.

이들의 특징: 확신에 차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사도 베드로와 열두 사도: 부활 이전에는 말을 못하고 권력 다툼을 하며 세상으로 가려던 사람이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사람이 바뀌었다. 행4:10-12, 18-20, 29절

사도 바울: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증언함, 행26:24-29

핵심: 미쳤다는 소리를 들음, 예수쟁이야

한결 같이 그들에게는 말씀이 타오르는 불같이 그들의 뼈 속에 사무쳤다.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고전9:16-17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나와야 교회가 바로 선다.

죽은 교회, 썩은 교회에서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뛰쳐나와서 성경대로 새로 시작해야 한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요, 개척자들이다.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들이 이런 분들이다. 할렐루야!

신약 시대의 대언자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의 직통계시가 임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

신약시대 대언자는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다.

말씀이 타오르는 불 같이 뼈 속에 사무치게 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한다. 말씀이 약하면 약한 자가 된다: 사도 바울, 마르틴 루터
2.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보아야 한다(딤후2:15): 말씀이 열려야 한다. 통합적인 강해
3. 온전한 신학이 서야 한다: 하나님, 사람, 천사, 마귀, 죄, 구원, 성화, 천국, 지옥
4. 인간의 전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단 신학, 가정 배경, 오직 성경 신학으로 돌아서야 한다.
5. 부지런히 일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진보이다. 진보주의자 중에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벧전5:5-6)
6. 온전한 가정생활, 정상적인 교육, 정상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7. 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책을 좋아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구비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의 통로로 쓰신다.

1. 이러면 그의 뼈 속에 간혀 있는 말씀이 통합적으로 그에게서 은혜롭게 흘러나온다(눅4:22).
2. 자기 것이 아닌 말씀들로 먹이는 자들(종교인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 있다(마7:29).
3.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한다(행28:30-31).
4. 이런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일곱 번 쓰러져도 여덟 번 일어난다. 위로를 받는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나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극복할 수 있다.

거짓 목사들을 피하라(렘 강해 설교 17)

성경말씀: 렘23:1-4, 9-12, 25-32

지난주: 예레미야의 고통, 그는 뼈 속에 갇힌 말씀으로 이겨냈다. 고등 종교의 특징(말씀), 기독교는 '말의 종교'이다. 말로 구원, 말로 성화, 말로 위로, 말로 심판, 말씀에 대한 확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목양자와 대언자들의 타락', 바른 말씀이 없을 때 양들이 죽음
예레미야 강해의 어려움: 목사를 향해 외쳐야 함. 고민이 됨. 뛰어넘고 싶음. '거짓 목사들을 피하라'
목자, 목양자, 목사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표현한다(시23:10). 양들의 특징: 목자가 없이는 결코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정치적 지도자를 주신다. 예수님 자신의 표현: 요10:11-15, 마9:35-38
특히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신약성경의 목자, 목사로 번역된 말은 동일한 말(포이멘)이다.

구약성경 렘23:1의 목양자들과 4의 목자들도 동일한 말(라아)이다. 목자, 목양자, 목사 동일한 역할 목양자(pastor) 즉 목사가 바로 서면 양들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들이 불행하다.

렘23:1-2 설명, 지상에서 양들의 행복은 목사에게 달려 있다.

그런데 양들을 멸하고 흠어버리고 죽이고 먹는 목자들이 있다(23:1-2).

겔34:1-10, 11, 31 설명

양떼는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이는 목자(2), 양들을 죽여 먹고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는 목자(3) 양들의 사정을 돌보지 않는 목자(4), 그 결과 양들이 짐승의 먹이가 됨(5), 양들이 이리저리 방황함(6), 아무도 양들을 찾지 않음(6), 목자들에게 대한 심판(10), 결국 하나님이 스스로 하심(11),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 양 떼는 사람이다(31).

예레미야의 심정

의로운 분노가 속에서 일어났다(9). 시119:53, 주님과 그분의 거룩한 말씀들로 인하여

돌보는 목자들이 타락한 결과(10), 백성의 심판(12)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언자들(13), 남왕국 유다의 대언자들(14)

하나님의 경고

그런 대언자들 즉 목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16).

그들이 하는 일(17),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한다."

그들이 바르게 말하였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22), 백성의 회개

하나님의 전지하심(23): 면데 있는 것들도 다 본다.

온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24).

거짓 대언자들이 하는 일

직통 계시로 꿈을 꾸었다(25-26).

'천국 다녀왔다', '지옥 다녀왔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마12:38-39). 믿음과 배치됨 이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자들이다, 바알의 대언자들이다(26-27)

진짜 대언자와 가짜 대언자의 구별(28)

가짜는 꿈 이야기, 천국 지옥 이야기 등을 말한다: 다 주관적인 것이다.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한다: 객관적이다. 모두가 보고 판단할 수 있다.

그 말씀은 불 같고 쇠망치 같다(29).

지저분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린다. 껍데기 겨를 태우고 알곡만 남긴다(28절, 마3:11-12)

딱딱한 마음을 부수어버린다. 그래서 그 마음을 모래같이 부드럽게 만든다(하나님의 원대로 쓰게).

가짜 대언자와 목사들의 심판

거짓 목사들은 성경에서 '개'라고 불린다.

그[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짓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다.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사56:10-11)

팔레스타인의 개들은 늑대처럼 포악한 존재들이다. 피를 먹고(아합, 이세벨) 사람도 죽여서 먹는다. 그래서 개라고 불리는 것은 대단히 큰 수치이다.

그 블레셋 사람[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막대기들을 가지고 내게 나오니 내가 개냐? 하고 자기 신들을 통해 다윗을 저주하고는(삼상17:43)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찢었나이다(시22:14-16).

여기의 개들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가리킨다(서기관, 바리새인, 율법박사 등).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 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빌3:2-3).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 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행20:28-29)

여기의 개들은 거짓 목사들을 가리킨다. 이들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1. 믿음 + 행위를 가르침

2. WCC: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주장함(요14:6; 행4:12)

앞으로 이 땅에는 천주교를 중심으로 세계단일종교가 세워진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2013년 10월 WCC 부산, 천주교, 정교회, 안식교, “추기경 옆에 앉는 자들을 유심히 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 무슨 인위적인 일치가 필요한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3. 이단 교리를 가르친다(벧후2:1-2)

성경의 맨 마지막에는 ‘개들’에 대한 심판 구절이 있다.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계22:15).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최종 지옥인 불 호수에는 ‘개들’이 있다. 누구인가? 진짜 개는 아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본다.

따라서 성경대로 믿으면 계헨나 지옥에는 거짓 목사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내 교회 목사가 개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교회 목사가 개로 판명이 나면 빨리 떠나야 산다.

계17: 마지막 때의 단일세계종교 음녀 체제,

계18:4-5: 내 백성이 그 음녀 체제에서 나오라.

그래야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고 주님께 갈 수 있다.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양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눅 12:31-32)

두 종류의 무화과(렘 강해 설교 18)

성경말씀: 렘24:1-10

지난주: 이스라엘과 유다의 근본 문제: 목양자들의 타락, 이 나라의 문제: 목사들의 타락, 옳은 것을 가르치는 목사가 많지 않다. 양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이 확실한 목사 필요, 바른 성도들

바빌론 포로 생활

목자들이 타락하고 백성이 무지해서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 유다는 바빌론의 포가 됨
1차(BC 606, 여호야긴 왕하24:1, 단1), 2차(BC 597, 왕하 24:10-16, 여호야긴과 만 명의 포로, 에스겔의 대언), 3차(BC586, 시드기야, 왕하 24:17부터 25장), 귀환(BC 536), 70년
오늘의 이야기는 두 번째 끌려가는 것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약속도 지키시고 심판의 약속도 지키신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되어가는 것으로 낙담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1절)

주의 성전 앞에 두 개의 무화과 바구니(2-3): 첫 열매 현물로 드린 무화과들, 좋은 무화과는 심히 좋고 나쁜 것들은 너무 나쁘다.

좋은 무화과는 포로로 끌려가는 자(5-7), 나쁜 무화과는 남아 있는 자들(8-10)

한 나라, 한 민족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한 어머니 배 속에서 나온 형제/자매들도 하나님 앞에서 두 종류가 있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라고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좋은 사람들이 있고 썩은 사람들이 있다.

'두 종류의 무화과'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이 불쌍한 것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 내림.

사57:1 의로운 자가 멸망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긍휼이 풍성한 자들이 끌려갈지라도 의로운 자가 다가올 재앙을 피하여 끌려간 줄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도다.

동일한 고난이 한 부류에게는 복이 되고 다른 부류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저주가 됨.

여러 종류의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해야 한다.

나쁜 무화과

예레미야의 자기 삶 속에서 본 가장 부패한 무화과들: 시드기야와 남아 있는 자들(8-10)

렘21:8,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너희가 선택하라. 바빌론의 시대

생명의 길: 항복하고 포로가 되는 것, 사망의 길: 버티다가 죽는 것

예루살렘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없다.

남은 자들: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 축복이다.

포로 생활은 고통이다. 남는 게 좋다. 그러나 10년 뒤의 3차 침공에 의한 고통은 포로 생활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애1:14-5, 2:20-21; 4:1-4).

이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과일은 한번 썩으면 고칠 수 없다(냉장고 소용없음). 가장 좋은 것이 부패하면 가장 나쁜 것이 된다.

어디를 가도 썩은 것은 그대로 있다. 이집트로 내려가 거진 거하는 자들(8절)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 데가 없어 길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마5:13).

렘25:1-3의 경고의 말씀이 이미 24장 전에 주어졌다.

예레미야의 대언, 다른 대언자들의 대언(3-4)

핵심 내용(5-7); 우상 숭배 No,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라, 음행 No, 가난한 자 배려, 거짓

대언자 배격, 네 지혜, 재물, 지식 자랑 No, 물질 사랑 No, 사람 사랑 Yes, 그리스도만 왕이다.

동일한 경고의 반복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다. 돌이키라고 할 때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이 온다.

구체적 심판 내용(25:9-11): 느부갓네살이 온다, 기쁨의 소리가 그친다. 70년 동안 포로가 된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이다(9절).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모든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25:7).

죄를 택하면 죄의 결과도 택하는 것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롬6:23).

왜 지옥에 가는가? 스스로 원해서 간다.

모두가 자기의 꾀에 빠져 지낸다. “구원을 잃는다고 주장하는 사람,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사야서 14장의 루시퍼“, 모두 자기가 믿고자 하는 대로 믿는다. 그 결과를 받는다.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
살기를 원하면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한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이시다.
죄악을 고백하라. 회개하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라.

좋은 무화과(5-7)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음: 무화과는 세 번 열매를 맺는데 처음 익은 것이 가장 좋다.
대언자 예레미야의 임무(렘1:10), 뿌리째 뽑고 무너뜨리며 파멸시키고 파괴하며 세우고 심는 것
저주/심판 4개, 복구/회복 2개, 지금까지 저주/심판이 대부분이었다. 이제 복구/회복이 나올
포로 생활의 저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익은 무화가 같이 복이 됨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신다(7).
이것이 성경의 복이다.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
어떤 목사님이 쓴 글: “사람은 왜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요17:3).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생겼다: 백성들, 제사장, 대언자, 왕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가? 날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 공의, 징계
벧후3:18,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이런 지식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나타나는가?
모임을 즐거워하는 일로 나타나는가?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일로 나타나는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군사로서 할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가?
딤후4:15 말씀에서 얻은 유익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특히 신학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식이다. 이런 지식은 어디서 오는가?
좋은 무화과는 연단을 통해 나온다. 죄를 지었다. 바빌론에 포로가 되어 가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시137:1-4처럼 마음대로 주님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신세가 되면서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다.
좋은 무화과는 고통과 고난을 피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순종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연단 받을 때에
나온다. 그래서 불신자나 신자에게 고난과 고통이 필요하다.
에스더 이야기: 화요일 아침, 차 전복,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생긴다. 생길 수 있다.
이 일을 통해 나와 아내와 세 아이들 그리고 사위가 우리의 앞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아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좋은 무화과의 복(렘 강해 설교 14)

성경말씀: 렘24:4-7

지난주: 두 종류의 무화과, 심히 나쁜 무화과: 남아 있는 자(죄악 속에서 뒹구는 자), 심히 좋은 무화과: 포로로 끌려가는 자,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되어 다시 돌아온다.
고통의 근원: 하나님에 대한 무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남은 자 사상

성경을 살펴보면 모든 시대에서 의인들은 대부분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이후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이들을 박해하는 세상이 되었다. 요한복음 17장

하나님의 말씀, 공의, 진리, 의리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이 많지 않다.

호4:1, 진리, 긍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님이 논쟁하신다.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전체 대중을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

언제나 소수의 정예 부대를 통해 이루신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Remnant)라고 한다. 총 92회, 그 개념이 여러 곳에서 드러난다.

남은 자(Remnant): 무서운 재앙 이후에 살아남아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무리(사10:20-23).

남은 자 개념은 신명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신4:27-31; 28:62-68; 30:1-10) 대언자들은 아시리아와 바빌론 포로 생활과 관련해서 이 개념을 밝히 보였고 또 최종적으로 메시아 왕국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의로운 남은 자들이 모일 것도 대언했다. 아모스와 이사야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이야기했다(사1:9; 암5:14-15).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고통을 당하였고 또 반역하는 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 역시 이 개념을 도입하였다(롬11:2-5). 하나님은 시대마다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을 남겨 두신다.

예수님의 공생애, 그분이 사랑하신 자들은 다 남은 자였다.

마태복음 5장의 8복 내용: 모두 의인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다. '좋은 무화과(남은 자)의 복'

바빌론 포로들

여호야긴 왕과 만 명의 포로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본인들에게는 대단히 큰 고통이고 저주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들을 남은 자로 여기고 다시 이 땅에 데려오신다.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죄인들이었다.

그 땅에 그대로 머물면 다른 사람들처럼 우상숭배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유다의 배도 중에도 늘 남은 자를 두신다.

아브라함 언약: 가나안 땅, 자손들, 다윗 언약: 메시아가 온다.

이 언약들을 이루려면 이들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 땅에서는 그 일이 안 되므로 70년 동안 강제 이주시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상과의 분리(고후5:14-18)

이스라엘과 유다의 패망의 원인: 분리 실패

하나님의 법칙: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가 온다(히12:5-11).

성도의 삶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오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지 늘 점검해야 한다.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고통과 고난은 징계이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를 데려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고통의 용광로로 들어감
예레미야가 낙심하자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네 가지 은혜

1. 좋은 무화과로 인정해 주시는 은혜(5): 나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사역을 맡기셨다(딤후1:12-16).

2. 보호해 주시는 은혜(6): 하나님 자신의 눈을 우리에게 고정하신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신32:10).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간 아이들: 15세 정도
단 1장의 다니엘(8, 20), 단 3장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용광로), 두라 평야, 30미터 형상, 단 6장의 다니엘(사자 굴), 30일 동안 완에게만 기도, 하루 세 번 기도
이런 아이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한다.
3. 극복하게 해 주시는 은혜(6): 다시 데려온다. 세우고 심는다.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 70년 포로 생활 이후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우상숭배 제거, 메시아, 사도 베드로, 바울 우리 민족, 일제 식민지 경험, 이제 바른 성경을 주셨다.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구원, 바른 교회의 모델, 북한 핵 문제도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줄 믿는다. 우리의 할 일을 하자.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는다.
4.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유다 백성의 문제는 마음,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렘17:9). 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마음은 곧 심장이다. 생명의 중추 기관이다. 심장 수술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1차 수술이 이루어지고 성령님에게 순종할 때 막힌 부분들이 뚫려서 늘 피가 잘 순환된다. 이 모든 일은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데서 생긴다.

우리는 어떤 무화과인가?

남은 자로 산다. 그럼에도 언제나 죄 가운데 산다.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과 고난이 올 수 있다. 고난을 담담히 받아들여라. 거기서 연단을 통해 사람이 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1. 좋은 무화과로 인정받는다.
2. 보호해 주신다.
3. 극복하게 해 주신다.
4. 새 마음을 주신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섬기자.

바른 가정생활, 사회생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렘 강해 설교 20)

성경말씀: 렘27:1-11

지난주: 남은 자 사상, 유다 백성 중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이 결국 남은 자로 돌아온다.

남은 자: 세상과의 분리, 연단을 통한 이들의 네 가지 복: 1. 좋은 무화과로 인정받는다. 2. 보호해 주신다. 3. 극복하게 해 주신다. 4. 새 마음을 주신다.

25장 정리

유다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므로(3)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다가 침략하게 함(9). 특히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하심(9).

70년 동안 포로 생활(11): 사울부터 바빌론 포로생활(490년), 레25:1-5, 26:34-35, 대하36:21
70년이 끝난 뒤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바빌론을 심판하심(12-14).

바빌론의 통치를 받지 않는 민족은 없다(15-33):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국가들 언급

26장 정리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잡혀서 죽게 되었으나 아히감의 도움으로 살아남

27장

예레미야의 시청각 교육: 줄과 멩에를 만들고 멩에를 직접 목에 맨

멩에: 두 마리 소의 목에 얹어서 두 마리가 서로 연합하여 일하게 하는 도구

1차 BC 606, 2차 BC 597(꼭두각시 시드기야 등극), 유다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바빌론으로 인해 고난을 겪으면서 서로 모의해서 바빌론의 멩에에서 벗어나고자 함.

시드기야를 보려고 오는 사자들을 통해 예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왕에게 그것들을 보냄(3-4). 시청각 핵심 내용: 느부갓네살에게 온 땅과 들의 짐승까지 내주었다. 그와 그의 아들들을 섬겨야 한다.

그렇지 않는 민족들은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멸할 것이다(6-7).

그와 그의 통치에 굴복하는 왕국만 살아남게 할 것이다(8,11). 28장 하나님 사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가? 역사의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가? 그러면 내 삶의 모든 일은 어떤가? 한국의 미래는 어떤가? 우리의 미래는 어떤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

예레미야의 데모를 보고 다른 나라의 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이 조그만 나라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온 세상을 통치한다 말인가?”

예레미야의 답변: “참 되시고 살아 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신다.”

그 이유: 그분이 창조자이시다(5). 창조자이므로 마음대로 처리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나 보기에 합당한 자에게 온 땅을 주었노라.”(5)

꿈을 나누어주듯이 마음대로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이다.

땅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루시퍼가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과 형상으로 이 땅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심. 왕국 프로그램의 시작

그들이 변성해서 모든 것을 치리하게 하심.

사탄 마귀의 꾀계로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됨: 왕국 프로그램은 여전하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모든 왕국을 아담에게서 마귀에게 넘겨주심(눅4:5-6).

그래서 마귀가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 온 세상을 치리하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

욥의 경우처럼 사탄이 허락을 받아 욥을 시험하고 어려움을 주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심.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노아 시대에는 직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교접, 유전자 조작 노아의 홍수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고 또 다시 그 8명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그의 씨를 통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실행하심(창3:15).

야곱의 12아들, 기근에서 살아남게 하시려고 먼저 요셉을 이집트로 내려가게 함.

파라오(사탄)의 압제로 이스라엘이 아들들을 죽여야 할 때가 되자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심.

이 세상 어는 민족들도 알지 못하던 십계명을 주시면서 선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타락과 회개의 역사를 반복하다가 사무엘 시대에 왕정을 선택함.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120년), 왕국의 분할, 북왕국 이스라엘의 타락, 아시리아의 침략 남왕국 유다의 흥망성쇠: 사탄의 사주를 받은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라가 왕족의 씨를 모두 멸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요아스를 남겨두어 그를 통해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심(왕하11:1-12).

유다는 결국 바빌론 왕국에 의해 멸망당하게 됨.

왕국이 끊어지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묵묵히 자신의 왕국 프로그램을 이어가심.

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우쭐해 있었으나 신상의 꿈을 통해 교훈을 받음

그의 제2년, 머리: 정금, 가슴과 두 팔: 은, 배와 두 넓적다리: 놋, 두 다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32-33).

사람의 손으로 깎지 않은 돌이 그 형상을 쳐서 없애고 온 땅을 가득 채움

머리: 바빌론, 가슴: 페대/페르시아, 배와 두 넓적다리: 그리스. 두 다리: 로마, 발: 세상 끝 로마

이렇게 세상의 왕국들이 변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왕국을 세우신다(44-45). 메시아 왕국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도 느부갓네살은 단3장에서 두라 평야에 자기를 위해 높이 30미터의 금 형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이 꿇어 엎드려 경배하게 함.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느고가 불복하고 용광로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함.

느부갓네살의 선포(28-29): 그들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지 못하게 함.

그러나 여전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함

느부갓네살의 둘째 꿈(단4): 느부갓네살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7년 동안 들의 짐승들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지내다가 다시 왕좌를 차지함.

이때에 비로소 그는 확실히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됨(4:25).

느부갓네살이 교만히 굴다가 결국 그 일이 그에게 이루어짐(4:29-30).

7년을 마친 뒤에 그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고백하는 내용(4:34-37).

이스라엘의 포로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해서 인류 역사의 흐름을 보여 주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단7:9-14).

그러다가 다니엘은 9:1-2절을 통해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70년임을 알게 되었고 자기 백성의 미래를 알고자 애를 쓸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와서 유다 백성에게는 70년이 아니라 70이레가 정하여졌음을 가르쳐줌(20-24).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있으면 70째 이레의 7년 환난기가 이스라엘을 위해 마련되어 있고 이때에 마귀가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계12장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온갖 고난을 퍼붓지만 - 창세 이후로 없는 대환난-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으로 민족이 구원을 받고 12장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부활하며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 살 것을 보여 주심. 이때에 세상 왕국들을 멸망시킨 돌이 세상을 채우며 하늘의 하나님이 한 왕국을 세우심. 이것이 마태복음의 메시아가 가져오는 '하늘의 왕국'이다. 이 왕국이 유대인들의 거부로 연기되었으나 결국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하고 그분을 맞아들일 때 그들의 왕국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다.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찌 알 수 있는가? 유대인들을 보라. 2500년간의 떠돌이 생활, 1948년, 1967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카톨릭), 영국과 미국(기독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진화론과 창조론, 성경 변개와 성경 보존

한국의 위치: 성경에는 없지만 친 기독교 성향임은 확실하다. 우리 주변에 기독교를 아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북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 개인의 앞날은 어떤가? 극도의 인본주의, 반기독교, 교회들의 타락, 국가의 안위

먼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요3:3, 5). 부조리, 부정, 압제 No Problem! 마6:33, 롬8:28, 잠3:3-4, 내 앞날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주님의 도우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렘 강해 설교 21)

성경말씀: 렘29:1-14

예레미야서의 구조, 1-29장은 예레미야의 회개 촉구, 그러나 결국 포로로 끌려감.

30-33장은 유다의 회복(바빌론 포로생활에서의 회복과 천년왕국 이전의 회복), 34-39장은 예루살렘의 멸망, 40-45장은 멸망 이후의 일들, 46-51 주변 민족들에 대한 예언, 52장: 멸망 반복
1-28장에서 30년 이상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죄와 하나님의 마음과 심판에 대해 대언함.

그러나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백성이 포로로 끌고 가는 일이 생김.
29장에는 네 개의 편지가 나옴: 1.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보낸 것(1-14절), 2. 바빌론의 거짓 대언자들에게 대하여 예레미야가 보낸 것(15-23절), 3. 바빌론에서 스마야가 예루살렘의 성전 제사장들에게 보낸 것(예레미야가 읽음, 24-29절), 4. 예레미야가 스마야에 대하여 포로들에게 보낸 것(30-32)
바빌론 포로 생활은 3단계로 이루어짐: BC 606년(단1:1), BC 597년(여고니아), BC 586년(함락)
1-14절의 편지는 2차 포로 생활이 시작된 BC 597년 이후의 어느 시점에서 기록됨.

유대인들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며 사는 민족으로 이교도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예레미야는 이들이 그 우상들의 땅에서 좋은 증인이 되기를 원했다. 또 선한 시민으로 살기를 원했다.
대언자는 죄악으로 인해 포로가 된 자들을 위해서 여전히 목자의 심정으로 관심을 보이며 권면함.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

샤머니즘: '지성이면 감천이다.'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이다.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알아야 한다(호4:6; 요17:3).

예레미야 강해를, 성경을 읽음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알게 되었다.

1. 공의로우시다: “나는 죄를 미워한다.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으로서 정의롭게 살아라.” 대언자를 통해 계시하고 말씀하고 기록해 주신다.
2. 오래 참으신다: 400년 동안의 왕정 시대, 참고 참고 참으신다(벧후3:9). 사랑에서 나온다. 파라오(모세), 사울(다윗), 아합(엘리아), 니느웨(요나), 온 인류(예수님)
3. 참으심의 끝에는 심판과 징계가 있다: 불신자와 신자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다(히12:5-11),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특히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10).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자들과만 사시려 하신다. 그분의 가장 큰 특징: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징계는 슬픈 것이다(11). 그러나 단련되면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4. 징계(포로 생활) 중에도 사랑하신다. 예레미야를 통해 이것을 보여 주신다. 자기 자식이므로
5. 회개하고 돌이키면 누구라도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다 용서하신다.
모세와 같은 살인자, 다윗과 같은 간음/살인자, 사울과 같은 신성모독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포로 생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다(눅5:32).

죄란 무엇인가? 과녁에서 벗어난 것

1.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이 죄다.
2. 창조물이 창조주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다.
3. 내 주인의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죄다.
4. 그 하나님이 죽을 죄인들을 구원하실 방법을 다 마련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죄다.
5. 내 힘으로 착하게 살면 되겠지 하고는 맹목적으로 밀고나가는 것이 죄다.
6. 집안이 좋으니까, 공부 많이 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봐주시겠지 하고 달려가는 것이 죄다.
7. 뜻을 돌이키지 않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이 죄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먼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히9:27).

이렇게 구원 받은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 포로 생활
옳은 경우처럼 특별히 잘못된 것이 없는데 마귀의 사주로 인해 삶에 재난이 닥치기도 한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계10:7,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이것이 인생이요,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의 운명이다. 심지어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닥친다.

1. 신실하게 살아도 이혼의 위기가 온다. 아이들 문제

2. 선하게 행해도 오히려 손해가 온다. 부지런히 일해도 오히려 해고가 된다. 비방을 받는다.

3. 남과 북의 대치 상황: 아무리 퍼 줘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소용이 없다. 이게 인생이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며 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육신의 포로, 죄의 포로, 악법의 포로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에게 속해 있다. 동성애 차별 방지법 같은 악법이 들어선다.

목사와 성도가 할 말을 못하게 하는 세상, WCC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징계를 당하는 성도로서)

1. 현실을 인정해라.

바빌론의 포로들은 목숨만 남고 다 잃었다. 자유도 없고 노예가 되었으며 집도 없고 먹고살 방법이 없었다. 또 어떤 이들은 가다가 죽었다. 주변 환경이 전혀 소망이 없어 보였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한다. 징계로서, 연단을 위해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긴다. 악한 일이 생기는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4절)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시137:1-4의 유대인들처럼 잠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방법은 아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해야 할 일은 용기 있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정을 아시니 해결해 주실 거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자기의 방법대로 풀려고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스마엘을 낳는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모습

2. 지금의 현실에서 감사하고 열심히 일하라.

거짓 대언자들은 바빌론 포로 생활이 짧을 테니 거기에 정착할 생각을 하지 말고 대충 살라고 함.

예레미야는 그 생활이 70년이나 되므로(10절) 거기서 정착하라고 함. 하나님은 지금 이 포로들의 씨를 통해 다시 유다를 건설하려고 하심. 그러므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 가서는 안 된다.

해야 할 일:

a.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해야 한다(7). 지금 우리는 한국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는가? 이 땅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이 땅과 백성의 평안을 구하는가? 나라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을 미워해야 한다. 민족이 먼저가 아니고 자유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가 먼저이다. 먹고 자고 입고 자유롭게 말하고 움직이며 믿는 권리 통치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딤후2:1-3; 딤후3:1-2).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다니엘).

b. 열심히 일해야 한다(5).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아야 한다(살후3:10-12).

c. 아들딸을 많이 낳아야 한다(6). 결혼해야 한다. 하나님의 경건한 씨를 많이 남기기 위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첫째 뜻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

d. 바빌론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한다(7).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마5:43-48).

하나님의 약속

1.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10). 그 뒤에 분명히 이루어졌다.

징계의 시간이 있다. 그 뒤에 하나님의 복구가 있다. 확신을 가져라.

2.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다(11).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생각하신다(시8:3-4). 부모, 남편과 아내, 자식은 생각 못해도 주님은 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 되셨다. 그래서 심지어 징계도 복이다(롬8:28).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3. 기대하던 결말을 주려는 것이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으라(렘 강해 설교 22)

성경말씀: 렘29:10-14

30년 이상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하였으나 유다는 듣지 않고 결국 바빌론 포로가 됨.

순종하지 않는 백성을 징계하시면서도 여전히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사 관심과 긍휼을 베푸신다.

1. 포로 생활이 70년이다. 2. 다시 데려온다. 3. 내 생각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다. 4. 지금 처한 곳에서 회개하고 부지런히 좋은 시민으로 살아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에게 징계가 오면 속히 잘못을 살펴보고 돌이킬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잠시 낙심할 수 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다(히12:5-11),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특히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10).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자들과만 사시려 하신다. 그분의 가장 큰 특징: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징계는 슬픈 것이다(11). 그러나 단련되면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사실 이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무익함을 느끼며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릴 때이다.

하나님이 이때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다. 1. 기도하라. 들으리라(12). 2. 나를 찾으라. 만나리라(13).

3. 회복시키리라(14).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으라’

기도하라. 들으리라(12)

‘기도’(pray)라는 말은 구하는 것을 뜻한다. 아이가 부모에게 구하는 것이 기도이다.

삶이 풍요롭고 문제가 없을 때는 대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의 예, 다윗의 일생: 사울에게 아들에게 쫓기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늘 기도가 나옴. 특히 이런 기도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

시편 3:1-5, 아들로 인해, 괴롭히는 자들로 인해

시편 22편 1-2, 11-16, 까닭 없이 고통을 당할 때에, 메시아

시편 25:1-2, 6-8, 과거의 죄들을 깨닫고 고통 중에서 하는 기도

시편 31:10-11, 17, 19-20, 비난을 당하고 비방을 당할 때

시편 55:1-7, 갈 곳이 없어서 처량한 상태에서 비둘기를 그리며 기도함

시편 56:1-2, 8-9, 주의 병에 내 눈물들을 담으소서.

시편 40:1-4, 끈질기게 참고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

목사로서 기도할 대상: 나 자신, 아이들, 부부 관계가 깨진 가정들,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위선을 행하는 성도들,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 나라와 민족, 교회의 지도자들, 진리를 구하지 못해 애쓰는 사람들
야고보서의 기도(약5:13-14)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리라.

구하라. 성령님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눅11:9-13), 롬8:26, 31-32의 약속.

찾으라. 만나리라(13)

왜 교회에 왔는가? 찬송과 기도와 말씀 선포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가?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가? 마음을 다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가?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믿는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가?

지금의 불화한 가정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가?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원하는가?

그러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마음을 다해 구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설령설령하면 안 된다. 우리가 가진 문제 푸는 것을 대충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라고 권고하는 모세의 글을 보자.

신4:25-31, 유대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이미 1000년 전에 예고된 것이다. 어려움을 겪을 때에 마음을 다해 구하여야 한다(29).

신6:4-5,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신10:12-13, 행복하려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성경을 사랑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신11:13-15,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물질의 복도 주신다.

신13:1-3,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 일꾼들이 나타난다.

언제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고후6:1-2

오늘 전심으로 찾아야 한다.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진리 안에서 찾아야 한다(요5:39).

왕상18:23-29의 엘리야와 바알의 대언자들: 1명 : 450명, 아침부터 정오까지, 오 바알이여, 소리를 지르며 꺽충 꺽충 땀. 정오부터 저녁까지 자기들의 관례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몸을 찢음.

아무 음성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주목하는 자가 없음(29).

엘리야: 36-38, 간단한 기도, 우리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특 치고 장구 치고 No!).

개역성경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안 된다(요4:22-24).

강제입스 성경처럼 영과 진리로 해야 한다.

자기 열심으로 찾으면 소용이 없다(롬10:2-3).

말씀을 무시하는 열심은 소용이 없다.

지식에 기반을 둔 열심이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딤후2:15

회복시키리라(14)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

구원의 기쁨을 되찾는 것: 죄를 지으면 숨어 다니게 된다. 용서를 받아야 바르게 설 수 있다.

부부 사이의 화목을 되찾는 것: 우리 부부 이야기, 노력해야 한다. “남편이 먼저다, 아내가 먼저다” 하고 다투면 아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한 것,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

결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다(11). 그러므로 어려움과 징계를 당할 때에 이를 인생역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자. 마음을 다해 그분을 구하자. 그러면 회복시켜 주신다.

시대의 표적: 이스라엘(렘 강해 설교 23)

성경말씀: 렘30:1-10

예레미야는 바빌론 포로가 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것을 촉구함.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요,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다(렘29:11).

마음을 다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

렘30-33장은 '위로의 말씀'이라 불린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에서 회복되는 것과 천년왕국의 회복 30-31장은 꿈을 통해 주어진 말씀이다(렘31:26). 주님은 이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라고 하신다(2).

핵심 내용: 북 왕국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와 그 땅에 심을 것이다(유다만이 아님).

이 약속은 1차적으로 바빌론 포로들에게 적용되고 2차적으로는 천년왕국 이전의 이스라엘에게 적용됨.

9절: 천년왕국에는 다윗이 부활하여 그들을 다스린다(9). 모든 민족들에게서 그들이 돌아온다(11).

특별히 4-7절은 천년왕국 이전에 이스라엘이 겪게 될 7년 환난기를 이야기한다.

성경의 역사: 6000년, 마지막으로 1000년 왕국(계20)

이스라엘 대체 신학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 심지어 성도들도 -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는다.

렘30-33과 마24-25, 롬11,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와 계시록을 모으면 천년왕국 이전의 이스라엘의 대환난과 회복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다. 렘31:35-37

암3:7 말씀대로 하신다. 시대의 표적: 이스라엘

시대의 표적: 이스라엘

사람의 타락, 메시아 약속(창3:15), 가인을 비롯해서 마귀의 자식들이 출현함.

창6장의 노아의 때: 상상해서 하는 모든 일이 사악함(6:5). 창7-8장의 노아의 대홍수

창11장의 바벨탑 사건: 여기까지는 이스라엘과 타민족과의 구분이 없음

창12장부터 하나님의 경륜이 바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심, 이스라엘의 조상, 이삭과 야곱(이
스라엘),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들을 택하신 이유: 참 하나님 경배를 통해 주변 민족들에게 빛이
되게 하려 하심.

하나님의 선민(신32:7-9), 하나님 보시기에 12개로 나누어 있음. 12지파, 12달, 12궁도, 12제자,
12문……

신33:26-29의 축복

이스라엘 선택의 주목적: 메시아를 내시기 위해(요4:22), 충만한 때에 메시아가 왔으나(갈4:4) 이들은
눈이 멀어서 그분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 마23:37-39,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됨(롬11:1, 11).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까지 눈이 멀게 됨(롬11:25).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

그러나 그들은 스테반 사건(행6-7)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훼파되면서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게 됨. 디아스포라의 삶

가는 곳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중세 천주교회의 암흑시대에는 전 유럽에서 유대인 박멸 계획이
시행되었다. 이것을 반셈족주의라고 한다.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로 인해 공식적으로 600만
명이나 죽게 되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독가스 사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신28:62-67). 암3:7

레26:18, 21, 24, 28 일곱 배나 재앙을 더하신다.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는가?

아니다(롬11:1, 12, 25, 26)!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롬11:29-31).

이들은 저 팔레스타인 땅을 영원히 차지한다. 영원히 하나님의 선택 백성으로 존재한다.

야곱의 고난의 때

그러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들에게 ‘야곱의 고난의 때’가 있다.

렘30:5-7, 무서운 때, 평안이 없는 때

그것과 비길 날이 없다. 여자가 해산하는 것처럼 남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한다(렘30:6).

마24:21, 단12:1, 슥13:8-9

그러나 교회에게는 계3:10의 환난 전 휴거 약속이 있다.

교회의 환난 전 휴거 이후에 이 땅에 7년간의 고난이 있다(휴거받지 못한 유대인, 이방인).

계7:9-14에는 대환난에서 구원을 받는 무수한 수의 성도들이 있다. 순교해야 한다.

이 일로 그들이 연단을 받고 온 민족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비로소 야곱이 고난에서 구원을

받는다(7). 바로 그때에 야곱이 모든 민족들의 명에서 벗어난다(8): 계13장의 10 뿔 달린 짐승(적

그리스도)의 이방인 세력에서 벗어난다. 다윗을 섬긴다(9). 눅1:32-33의 성취

이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슥8:4-5).

10절, 11절 설명

예언의 성취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땅에 돌아와야 한다.

에스겔서 37장의 골짜기의 뼈들의 환상

이 뼈들이 살겠느냐? 10절, 11-12, 21, 24-28

1948년 5월, 1967년 시나이 반도, 가자 지구, 서안 지구 접수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살후2:1-4).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면 그 날이 거의 눈앞에 온 것이다.

마24:15, 32-35

결론

1.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
2.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
3.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회복
4. 마지막 때가 눈앞에 다가왔다.
5. 말세지말을 만났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6. 벵후3:7-13

시대의 표적 이슬람(렘 강해 설교 24)

성경말씀: 렘30:1-10

렘30-33장은 이스라엘의 바빌론에서의 회복과 천년왕국에서의 회복, '위로의 말씀'이라 불린다.

메시아를 배척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 있을 무서운 고난의 때, '야곱의 고난의 때'(7) 남자가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됨(6절), 그것과 비길 날이 없다(7절).

마24장의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난, 슥13장의 말씀: 그 땅의 삼분의 이가 죽고 나머지는 정화됨 1948년 5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주님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르렀음을 인식해야 한다.

지난 주 미진한 부분: 7년 환난기 전에 교회는 모두 휴거되어 올라간다. '환난 전 휴거'

땅에 남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7년 동안 적그리스도의 통치 하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믿음으로 순교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나온다(계7:9-14의 환난 성도).

땅에서 끝까지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 7년을 견딘 사람들: 믿음이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을 가르치는 심판이 있다. 유대인들은 믿음을 가진 삼분의 일만 남는다.

이방인들: 마25:31-46의 양과 염소의 심판: 유대인을 향한 도움

천년왕국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믿음을 가져 구원받은 자들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육신을 입고 들어감. 교회 성도들은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산다. 천년왕국에서는 지표면의 변화가 생기고 기후 변화 등이 생겨 수명이 연장된다(사65:20-25). 에덴동산과 같이 됨.

렘30-33장은 이스라엘 중심의 말씀, 이스라엘의 환난기 및 회복에 대해서는 '날들이 이른다'(3절). '날들이 이른다'(days come)는 성경에 총 22회, 렘에만 15번, 렘의 이 구절은 거의 다 천년왕국 이전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한다(렘30:3; 31:27, 31, 38 등).

오늘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환난기 및 회복 이전에 생길 일들을 살펴보려 한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한 구약의 말씀들,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가? '시대의 표적: 이슬람'

주님의 재림과 세대의 분별

모든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한다(살전1:9-10, 딤후2:11-13).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

휴거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마24:44).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온다."

'그 날이 다가옴을 볼 수록'(히10:23-25)은 우리가 추세를 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주님의 계시

암3:7,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꿈을 통해 알려 준다는 것이 아니다.

이미 끝난 성경의 계시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다. 때는 모르지만 추세는 알 수 있다.

시대의 표적: 이슬람

지난 주: 이스라엘의 귀환과 성전 건축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가 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괴롭히는 이슬람 세력에 대해 전하러 한다.

1. 말세의 이슬람 세력, 성경은 이미 예언해 주고 있다(시83; 슥12:1-3).

이슬람은 7세기 초 무함메드에 의해, 기독교와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고 있다.

예루살렘 성전 터 차지(반석 돔), 20세기 석유 발견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창조주 하나님과 창세기 계시를 믿고 있다.

유대인: 모세와 다윗의 기록대로 이삭을 통한 아브라함의 자손, 유일신 여호와

이슬람: 무함메드의 주장대로 이스마엘을 통한 아브라함의 자손: 유일신 알라(아들이 없다), No!, 롯(암몬과 모압), 에서(에돔), 이집트(함의 아들 미스라임), 블레셋(팔레스타인, 가솔루힘 창 10:14, 크레테 해양 민족), 엘람(이란), 앗수르(이라크)...

인구가 18억: 중동,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터키, 인도, 구소련의 남쪽 지역, 영국, 미국 등

이슬람 인구가 2%를 넘으면 문제가 시작된다. 엄청난 출산율(현재 프랑스, 영국, 독일 신생아의 25%), 현재 런던 시민의 10%, 2,000개 교회가 모스크로 바뀔. 이제야 깨닫고 바꾸려 하지만 늦었다.

이슬람이 성공하는 이유: 기독교 문화(서구 사회)의 몰락, 이혼율 증가, 노인 양로원 증가, 알코올, 마약 중독, 윤락 행위, 미혼남녀 동거, 동성애의 증가

이슬람의 문제: 실업, 남녀평등, 경제 기반 결핍, 교육, 직업, 주택 독재

천주교/정교회 15억, 종교 통합으로 천주교, 정교회, 이슬람, 힌두교, 불교가 하나 되면 거의 90% 시83편은 다윗 당시의 음악가였던 아삽의 시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연합(83:4)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팔레스타인), 두로, 앓수르(시83:6-8)

내용은 다윗의 상황이 아니다. 17-18절을 보면 분명하다. 천년 왕국 이전의 상황

팔레스타인(사11:1, 10-12, 13-14), 블레셋

요르단(모압, 암몬, 에돔), 사11:13-14, 읍1:17-21, 사63:1-6, 율3:19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사19:16-25; 미5:5-6)

레바논(슌10:10)

사우디 아라비아(미디안, 아라비아), 램25:15, 18, 24, 26-27; 사60:6)

예멘(사60:6)

2. 곡과 마곡의 침입(겔38-39): 아삽의 예언 이후 400년 지나서 주어진 말씀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인물, 37-39장 이스라엘의 귀환, 환난기, 40-48장 천년왕국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 대언, 뼈들이 살고 힘줄, 살갗, 뼈들의 연합, 숨을 불어 넣으며 큰 군대, 이들은 이스라엘의 집(11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감(12절), 1948년 5월 여기의 이스라엘의 귀환은 천년 왕국 이전의 영원한 귀환이다(겔37:26-28 읽음): 하나님의 영광 영국의 발포어 선언, 시온주의 운동, 1948년의 이스라엘 독립, 1967년의 6일 전쟁 계속되는 이스라엘 박멸 시도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신 상태에 있다.

이들을 대적할 국가들의 연합 공격이 최종적으로 있다(겔38-39장). 2-6절 읽음

곡과 마곡 땅과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2), 페르시아(이란), 에티오피아(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고멜, 도갈마(5-6), 창10:1-5 야벳의 아들들: 고멜, 마곡, 두발, 메섹...

곡과 마곡(계20:7-10) 설명

이들이 귀환해서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모인다(겔38:8-9, 14-16)

곡이 누구인가?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겔38:3; 39:1, 그루지아로 보는 견해가 있다)

성경학자들은 마곡, 메섹, 두발이 러시아(주변의 야벳의 후손들)라는 데 동의한다(헤로도토스와 요세 푸스).

이들의 육분의 일만 남고 다 죽는다(겔38:2). 이 구절이 개역성경에는 없다.

불이 마곡에게 임한다. 그 결과 7절이 이루어지고 이들의 무기를 치우는 데만 7년이 걸린다(39:9). 시신을 묻는 데 7개월 이상(39:12), 스가라서 14장 주님의 재림, 이스라엘을 치려고 온 자들의 재앙(12), 살후2:8

7년 환난기 끝의 아마겟돈 전쟁(계19-17-18)

가장 중요한 점: 6-7 읽음, 이교도들이 주님을 알고 이스라엘이 안다.

눈여겨보아야 할 국가; 이란(페르시아), 러시아와 친교를 맺고 러시아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원수, 1970년부터 시작된 핵무기 제조,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인한 곡과 마곡의 전쟁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과거에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시키려 함.

우리의 반응

앞으로 이 땅에 임할 환난기는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시험하는 기간이다(계3:10). 예외가 없다.

‘프레퍼족’: 세상을 멸망시킬 재앙이 곧 닥칠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종말의 날이 왔을 때 살아남기 위한 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을 지키고자 함. 식량과 물, 자체 연료, 철저한 대피 연습과 무질서 상태에서 약탈자로부터 가족과 식량을 지키는 방법 연구, 지하벙커

우리는 휴거를 받는다.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전성기이다.

1. 우리의 구원에 기뻐해야 한다(벧전4:13).
2.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위로를 받아야 한다(살전4:1-18).
3. 그럼에도 하나님이 관장하고 있음으로 인해 위로를 받아야 한다(살후2:7; 단2:20-21).
4. 지금의 악은 잠시 지속됨을 직시하고 확신을 가져야 한다(시37:7-11).
5. 다른 이들에게 알려야 한다(벧후3:8-9; 눅10:2).

회개와 영광의 날(렘 강해 설교 25)

성경말씀: 렘31:18-34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 예언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완전 회복을 예언하셨다.

렘30-33장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회복, '위로의 말씀'

야곱의 고난의 때,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극심한 환난의 때, 그것과 비길 날이 없다(7절)

시편82편의 이슬람 국가들과 에스겔 37-39장의 곡과 마곡의 침입, 이란의 핵무장

천주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무신론자들의 이스라엘과 기독교 협공, 말세지말

그럼에도 하나님은 꿈쩍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묵묵히 이루신다(사55:8-13).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롬11:1-2).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다(롬11:25-27).

오늘은 '회개와 영광의 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

1.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다시 세우신다(27-28). 2,600년 만에 하신다. 놀라운 일

2.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는다(31-32). 2,600년 역사

과거에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다(신7:6-9).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신4:33-35; 39-40; 6:4-5). 너희의 남편이다.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듯이 이스라엘은 남편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좇으며 음행을 벌였다.

오래오래 참으셨으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함.

이들을 붙잡히 여기시고 다시 데려왔으나 여전히 종교 놀이에 빠져 제사장과 백성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함. 말라기서의 기록: 주님의 것을 멸시함, 단지 소수의 남은 자들만 주님을 경외함.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더 이상 대언의 말씀을 주지 않음.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으로 인해 일반 백성의 고통이 극에 달함. 메시아 대망

일단의 지식인들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가서 유대교와 헬레니즘 융합

때가 충분히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 여자에게서 사람을 몸을 입고 출생(갈4:4).

헤롯 왕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

오히려 동방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30세 이후로 3년 반의 공생애,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예수님 배척, 십자가 처형, 부활

50일 이후의 오순절에 성령님의 강림,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의 유대인 설득

듣지 않다가 스테반의 순교가 일어나고 행 10장 이후로 서서히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변함

AD70년 로마의 예루살렘 정복, 서쪽의 통곡의 벽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훼파됨.

유대인 디아스포라, AD 700년경에 이스라엘의 성전 터에 이슬람 세력이 황금 사원 건축

전 세계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민족으로 전락함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라헬의 슬피 우는 소리(15), 이스라엘의 부인,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 베냐민은 남 유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16)

3. 새 언약의 내용(33-34).

예레미야의 대언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야곱의 고난의 때를 통과하게 한 뒤에 새 언약을 맺는다.

과거의 시내 산 언약: 두 개의 돌 판에 기록하였다.

이번에는 그들의 속 중심부에 마음속에 기록할 것이다.

새 마음, 새 영(겔36:25-28). 살 같은 심장

4. 이스라엘이 누릴 복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세움(암9:11): 삼하7:16, "네 집과 네 왕국과 네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의 성취, 다윗의 부활(겔37:24)

천년왕국의 성전(겔40-48장), 주 하나님이 그들의 한가운데 계심(겔48:35; 습3:14-17)

이스라엘 땅 자체가 복을 받음(렘31:23-25). 전 세계의 중심지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붙잡고 간구함(슌8:22-23).

그들을 치러 온 이방 민족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옴(슌14:16-19).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한다(18-21).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는 불변하심이다.

1. 사람이 선하게 행하면 항상 복을 주신다.
2. 사람이 악하게 행하면 항상 심판하신다.
3. 사람이 회개하면 - 뜻을 바꾸어 행동으로 나타내면 - 항상 용서하신다.

이스라엘이 누릴 이 모든 복은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만 신뢰할 때 생긴다(18-19).

18절의 에브라임은 북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뜻함(요셉의 둘째 아들).

“꼴뿔이 머리를 들고 교만하게 행하였나이다. 주께서 징계하셨나이다. 내가 돌이키겠나이다.” “확실히

회개합니다. 교훈을 받고 넓적다리를 쳤나이다. 내 젊은 시절의 수치를 생각하니 부끄럽습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20): 내가 너로 인해 애를 태운다.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

이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한다(스가랴서 12장 10-14).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주님께서 부어 주신다. 남왕국 유다의 온 가족이 회개하고 애통함

이 일 뒤에 14:4에 있듯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의 올리브 산에 설 때에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이로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마무리 된다. 천년왕국의 시작

아담부터 시작해서 약 6,000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약 4,000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신다.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다.

사람의 책임: 회개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회개하였기에

아브라함의 실수와 허물에도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다.

사도 바울의 교회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일하였다. 철저한 회개

침례자 요한의 사역 시작의 일성: 회개하라, 예수님의 사역 시작의 일성: 회개하라

계시록의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회개하고 돌이키라.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와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 회개

들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벧후3:9)

매일 성화에 이르기 위한 회개: 구원받은 분들

결론

1. 하나님은 지난 6,000년 동안 묵묵히 자신의 계획을 집행하신다.
2. 이스라엘이 7년 환난기를 통과한 뒤 그들에게는 새로운 언약이 주어지고 그들에게는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시간이 임하게 된다.
3.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한다.
4.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평안의 계획이다. 환난 전 휴거의 계획이다.
5. 여기에 참여하려면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6. 이 세상 사는 가운데 평안을 얻으려면 역시 회개해야 한다(온전한 부부 관계, 가정생활).

새 언약의 행복(렘 강해 설교 26)

성경말씀: 렘31:31-40

지난 몇 번의 예레미야 강해, 롬9-11 강해: 하나님의 이스라엘 계획과 회복(롬11:1, 11, 25-27)
예레미야 대언자는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난 이후의 이스라엘의 회복과 말세의 회복(31장)
마23:37-38,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눅21:24, 2600년 정도를 떠돌아다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급작스러운 부활: 겔37:1-14, 사66:6-12

지난 번 강해: '회개와 영광의 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이 일이 가능하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인간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한다.

죄 문제의 핵심은 마음이다.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사66:1-2).

렘31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 문제 해결을 위해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주신다(31절).

옛 언약(구약) 개요

옛 언약(구약): BC 1500년경에 시내 산에 주신 것, 이스라엘의 행동 지침, 마음이 아니라 행동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 역사: (1) 처음의 시내 산 옛 언약. (2)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신명기
언약 갱신, (3) 여호수아의 언약 갱신(수23-24), (4) 사무엘의 언약 갱신(삼상12), (5) 히스기야(대
하29-31), (6) 요아스(대하34-35), 부흥과 개혁이 영구히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필요함.
그런데 렘31장의 새 언약은 옛 언약을 갱신하는 차원의 언약이 아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

<새 언약의 행복>

왜 새 언약(신약)인가?

성경은 구속 사역과 축복과 저주 등에 관한 한 항상 둘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울과 다윗, 첫 아담과 둘째 아담, 구약과 신약(새 언약)
그래서 히브리서는 둘째 언약인 새 언약이 '더 좋다'고 말한다(히8:6).

구약과 신약 비교

1. 옛 언약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깨졌다(32). 하나님이 용서하는 남편일지라도 그들이 불순종하
면서 언약을 깨려 하면 깨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겔20:10-13, 마19:16-17, 언약의 내용에
순종하면 복을 얻고 심지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
2. 구약은 인간 제사장을 통해 잠시 죄를 가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죄, 범법, 화평 헌물, 규례,
예식, 제사장, 레위 체계, 전체가 다 불완전하다(히10:1-4).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하다.
3. 새 언약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메시아 탄생, 거절, 왕국 연기(마23), 환난기(마24-25), 예수님 처형, 부활, 승천(마
26-28), 오순절 성령 강림(행2), 교회 시대, 재림 때에 이스라엘의 회심, 새 언약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일이 생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신약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새 언약의 근거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대신 속죄 사역이다(마
26:27-28).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근거는 주지 않고 단순히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거의 무관한, 이방인들의 교회 시대를 여신다. 그런데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신다(히9:22).

새 언약은 더 나은 중재자이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에 근거한다(히8:6).

4. 새 언약의 효과

새 언약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도 적용이 되고 신약의 교회에도 적용이 된다(히8:7-13 동일 말씀).
예수님은 구약의 범법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죽으셨다(히9:15).

구약은 그들의 사악함과 무기력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구원을 가져다주는 데는 힘이 있으므로
사라지고 만다(히8:7, 13). 그러나 새 언약은 조건과 성취라는 면에서 완벽하여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영원토록 확보해 준다(롬8:3-4; 히10:11-18).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언약을 통해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고후5:17).

5. 위에서 말한 대로 구약은 인간 제사장을 통해 죄를 잠시 가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죄, 범법, 화평 헌물, 규례, 예식, 제사장, 레위 체계, 전체가 다 불완전하다(히9:10).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토록 완전한 희생 예물이 되심으로써 그분 자신이 성막, 헌물, 제사장, 레위 사람 섬기는 자, 제단이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공로나 행위와 상관없이 저저 주시는 은혜를 넘죽 받기만 하면 된다.
6. 새 언약은 내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돌 판이 아니라 마음 판에 기록된다(33절, 겔 36:26-27).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내부에서 작용하여 의지를 조절하여 순종하게 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일을 하게 한다. 구약의 유대인들의 문제: 위선, 현 시대 성도들의 문제: 여전히 자기가 만든 율법을 지키려 한다(주일 성수, 십일조, 새벽기도, 교회의 각종 행사, 기도, 성경 읽기...). 다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걸어야 한다(롬6:3-4). 내적인 충만함에서 외적인 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 무언가 안 하면 두려워서 하게 되면 여전히 구약에 속해 있다.
7.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서 완전히 성장하게 된다(34절). 이스라엘 신정 국가, 과거의 유대인들은 인간 스승들 - 대언자, 제사장, 서기관, 율법 박사 - 에게서 하나님의 진리 체계를 배웠다. 그런데 이때에는 더 이상 대언이 필요 없다. 심지어 대언을 하면 죽는다(슌13:2-3).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는 시대가 열렸다(요14:16-17, 26; 요일2:27).
8.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진다(34절). 새 언약의 모든 복은 사실 죄들의 용서로 인한 것이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되었다(롬3:20). 이게 끝이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아예 죄 자체를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 우리의 불법에 대해 긍휼을 베푸신다(히8:12).

신약의 좋은 점

원래의 새 언약은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에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주전 600년경에 알려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교회가 먼저 새 언약에 참여하고 있다(롬11:11-12). 지금의 교회는 이스라엘의 기름짐에 참여하고 있다(롬11:17). 즉 롬11장의 올리브나무 비유처럼 뿌리는 이스라엘이요, 교회는 거기에 접붙여진 이방인들이다. 주님께서서는 히브리서 11장을 마치면서 신약 교회의 복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히11:39-40). 그래서 죽어서도 곧바로 주님과 함께 있고, 부활에도 먼저 참여하고 새 언약에도 먼저 참여한다.

새 언약의 확증(렘31:35-37)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해와 달과 별들의 예를 사용하신다. 앞으로 영원히 이 땅과 우주 공간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또 다른 새 언약이 필요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근거를 둔 이 새 언약은 신구약시대 모든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영원토록 완전히 해결한다. 우주의 천체들을 보면서 새 언약을 기억하기 바란다. 계21:1, 5-6

결론

1. 당신은 새 언약의 상속자인가?
2. 예수님으로 인해 죄들의 완전히 제거되었는가?
3. 하나님의 아들딸인가?
4. 하늘을 쳐다보고 확신을 가져라.

믿음의 투자와 기도(렘 강해 설교 27)

성경말씀: 렘32:1-27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복 약속: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또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재림 시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언약을 주신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에 의해 세워진 언약, 단 한 번 영원히 완전하게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더 이상 죄들로 인한 제물이 필요 없다. 신구약의 모든 죄 문제 해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언약을 통해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고후5:17).

1. 내적인 것이다: 돌 판이 아니라 마음 판에 새긴다. 2.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서 완전히 성장하게 된다. 진리의 영, 3.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진다(34절).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되었다(롬 3:20), 이게 끝이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아예 죄 자체를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 새 언약의 확증: 해와 달과 별들의 규례, 이것들이 영원히 존재하므로 또 다른 새 언약이 필요 없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신구약시대 모든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영원토록 완전히 해결한다.

증명

대언자가 새 언약의 말씀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떻게 듣는 이들에게 이것을 증명할 것인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약2:26).

하나님의 또 다른 시정각 교육: 유다의 운명이 가장 위태로운 시점에서 땅을 사게 한다. 그리함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들에게 확증해 줄 수 있었다. <믿음의 투자와 기도>

믿음의 투자

부동산 투자 언제 하는가? 경기가 좋고 미래 전망이 있을 때 투자한다. 빚을 내서라도 한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부동산 투자는 투자 전문가가 보기에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통치 제10년: 예루살렘의 함락 1년 전(렘39:2)

지금 옥에 갇혀 있다. 그의 사촌 하나멜이 사라고 한 아나돗의 땅은 지금 바빌론 군사들의 점령지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도시와 자기에 대해 말한 것들을 믿지 않고 미워하였고(3-4) 그를 옥에 넣었다.

전쟁의 악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옥에 넣고 그의 입을 닫으려고 애를 썼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딤후2:9).

1. 부동산 거래: 하나님의 말씀(6-8), “하나멜이 와서 땅을 사라고 할 테니 사라.”

거래는 감옥 뜰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 예레미야는 싸인을 하고 돈을 치르고 자기를 섬기던 자 바룩에게 문서를 주었다. 증인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그가 미친 줄로 알고는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였다. “예레미야는 미쳤고 이 와중에 하나멜은 부동산 투자를 잘 한 투자의 귀재”, 어쩌면 은 십칠 세겔을 받고 하나멜은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갑자기 하나멜이 나타났으면 안 샀을 것이다. 감금 상태, 바빌론 점령, 민족의 암울한 미래, 누가 사겠는가?

바빌론 포로 생활은 70년인데 그때가 되면 예레미야는 죽고 그 땅은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바로 여기에 믿음의 순종이 있다.

2.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배운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눅5:1-11의 베드로

히11:1, 히11:6

히11:7 노아

히11:8 아브라함

히11:24-26 모세

히11:38 세상과 충돌함

히11:39 약속하신 것을 당대에 받지 못했다

3. 우리는 어떠한가?

예배 참석, 말씀 읽기, 헌금, 아이들 키우기, 결혼, 세상과 분리, 선교/전도, 성경 번역/보급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정신 나간 사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기도

이렇게 믿음의 투자를 하고 승리하였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도 낙담의 시간이 온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믿음으로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과연 이 땅을 내게 주실까?, 이스라엘이 회복될까?” 의심이 생긴다.

구원받은 뒤에도 의심이 생긴다. 의심과 낙담을 해결하는 방법: 기도(16절), 기도의 형식

1. 아(Ah), 어려움이 생길 때 마다 기도할 때에 나오는 말, 영혼의 외침

렘1:6,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대언자, 아, 나는 아이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렘4:10, 예루살렘의 침공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시자, 아, 주님 왜 우리를 속이셨습니까?

렘14:13, 거짓 대언자들의 횡포를 보고, 아, 주님, 저들이 거짓말로 백성을 속입니다. 어찌할까요?

렘32:17, 40년 동안 예루살렘 파멸 예고, 그런데 갑자기 땅을 사라고 하니 순종하고서는 아, 주님, 말이 되나요? 믿기지 않습니다. 의심이 갑니다.

어렵고 미래가 확실하지 않을 때마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고 롬8:26-27의 진리를 경험하였다.

2.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적과 성품을 찬양하였다(18-19).

(a) 먼저 창조의 위대함을 찬양하였다(17). 제가 믿음의 투자를 한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저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 부활, 휴거, 새 몸,

(b) 그 뒤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였다(20). 죄와 타락, 죄의 노예, 하나님이 저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주셨습니다(22).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21). 그러므로 믿음의 투자에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c) 하나님의 행적뿐만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였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17b). (d)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18).

인자하심을 보이시고 심판을 보이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e)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19), 하나님들의 등장도 다 아신다(살전1:3).

한 마디로 제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이, 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이십니다(18).

3. 내 사정을 아뢴다.

그런데 지금 바빌론 사람들이 도시를 공격하려고 산을 쌓았습니다(24).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였습니다(25). 사람들이 나를 다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의심이 갑니다. 끝 ★★★

4. 그의 기도: 아무것도 간구하지 않았다.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사실들을 알렸을 뿐이다. 바빌론의 침략, 위기, 미래가 없음

“믿음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임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좀 의심이 갑니다.”

이런 인간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위선적인 기도를 미워하신다.

5. 결코 의심하거나 당황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답변(26-27),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네 하나님이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했으니 내가 한다.

새 언약과 새 마음을 주겠다고 했으니 내가 준다.

믿음으로 땅을 사라고 했으니 내가 책임진다. 사랑침례교회 소래 예배당

결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를 한다.

낙심과 의심이 오는 때가 있다. 당연하다. 이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믿고 기도하자.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

믿음의 투자를 하고는 낙담했던 예레미야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 곧 내 하나님이다. 27절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렘 강해 설교 28)

성경말씀: 렘32:26-44

예레미야의 부동산 투자, 유다 왕 시드기야의 통치 제10년: 예루살렘의 함락 1년 전(렘39:2)

지금 옥에 갇혀 있다. 그의 사촌 하나멜이 사라고 한 아나돗의 땅은 지금 바빌론 군사들의 점령지 믿음으로 17세겔을 주고 그 땅을 샀으나 의심이 닥친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보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낙담이 돼서 기도를 드린다. “창조주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믿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응답: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27절)? 하나님 앞에서 위선의 탈을 벗어버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기도를 하자. 주님이 아신다.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근본적인 질문

인생을 살면서 어떤 때는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어려움을 만난다. 학업, 진학, 직업, 결혼, 가정생활, 교회,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시체의 <하나님 앞에서 울다> 원주민 사역, 어머니, 아내, 딸, 그런데 그 사람이 무죄 선고를 받는다. 홀아비로 세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 모든 일을 아시는가? 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가?”

다윗: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러 갔다가 골리앗을 죽임, 그런데 영예와 더불어 극심한 핍박이 그에게 닥침, 겨우 살아남아 왕이 되었으나 후반부에 맞세바를 보고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지름.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울증에 빠졌을까? 그 뒤 맏아들 암논이 탐욕을 부리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하고는 그에게 죽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그의 생명을 위협함. 얼마나 답답할까?

예레미야: 30년 이상을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그의 말은 들은 사람은 바룩을 비롯해 열손가락 안에 들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데 나라가 망할 시점에 땅을 사라고 하니 믿기지 않는다. 돈을 지불했지만 “하나님 과연 그 말이 맞습니까?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음을 잘 압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믿기가 힘드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응답

“내게는 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다.”(27절). 나는 모든 육체를 창조한 자다. 전 우주를 무에서 유로 조성한 자다. 그러므로 “너무나 어려워 내가 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

아브라함: 창12장, 갈대아 우르에서 취하심.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뒤 가나안으로 데려오심.

창15장 1-6절, 환상, 네 방패,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 아이가 없습니다. 엘리에셀이나 복을 주소서.

이 종이 내 상속자입니다. 네 속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다. 하늘의 별들,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심(6절)

아들이 생기지 않자 16장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음

17장에서 99세 때에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그에게 씨를 주겠다고 함. 믿기지 않아 웃음(17:17)

18장에서 문제가 발생함. 주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옴. 사라가 만든 음식을 먹은 뒤에 놀라운 일을 말함. 9-15절, 사라를 데려오게 한 뒤에 내년엔 사라에게 아들이 생긴다고 하심. 멘스가 그친 상태,

사라는 89세의 노인, 사라 속으로 웃음, “농담하시는구나”, 사라의 웃음을 지적하시고는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14) 그리고는 21장에 보니 정확히 1년 후에 사라가 아이들 낳음.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미 죽은 사라의 태에서 생명을 창조하신다. 사라도 그것을 믿고는 죽을힘을 다해 아기를 낳음으로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다(히11:11).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성경 보존, 부활, 휴거, 하늘로 끌어올리신다. 이래서 우리는 불가능을 모르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불신자들에게 영원토록 죄를 심판하신다.

1.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오래 참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
 - a. 갈대아 사람들에게 내주겠다(28). 그들이 예루살렘에 불을 놓고 모든 것을 훼파할 것이다(29). 그들이 섬기던 바알의 제단들과 함께 성전도 다 훼파가 된다.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
 - b. 왕과 통치자와 제사장과 대언자와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멸망한다(32). 등은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돌리지 않았다(33). 계속해 반대 길로만 나아갔다.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음

- c. 자녀들을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몰렉에게 바쳤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아이들의 영적인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이 세상의 신에게 가져다 바쳤다. 학업, 직장, 결혼 다 좋은데 아이들의 혼을 챙겨야 한다. 마17:26
 - d. 그러므로 기근과 역병을 통해 바빌론 왕에게 넘겨줄 것이다(36).
2.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영구히 지속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아테네 전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창조주 하나님 선포(행17:23-29), 30-31
 - a.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처녀 탄생을 통해 수태가 되셨다. 그리고는 사람으로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 일을 하시고는 여전히 참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고후6:2
 - b.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불가능을 모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에는 불가능한 일을 하신다. 마귀의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마련하신 지옥 불속에 그를 던져 넣으신다. 거기서 그들은 마귀와 그의 악한 천사들과 다른 모든 불신자들과 함께 밤낮으로 영원히 고통 받는다. 그들의 고통의 영원무궁토록 올라간다(계13:11). “어떻게 가능한가요?”,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긍휼을 베푸신다.

1.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갔다가 회개하는 자들을 다시 데려 온다(37). 70년이 지나도 다시 데려오신다. 1945년부터 2013년까지 68년째 이 나라가 분단이 되었다.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붙이신다. “불가능 이 없다.” 회개, 회개
2. 나라의 영적 상태가 말이 아니다. 목사들로 인한 성도들의 고통이 하늘을 찌른다. 교회들이 상식과 이성을 마비시킨다. 신천지, 박무수 목사의 4단계 구원(벧전1:18, 조상 죄, 예수님의 옷 4조각), 안상홍의 하나님 어머니, 이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가르쳐서 재림의 소망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신학교와 교회들, 잘못된 성경으로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는 목사들,
 - a. 사람의 힘으로 이들을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 b.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다.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그는 창조물이요, 이미 멸망이 선고된 자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시다.
3.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38). 회개하면 가능하다. “내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다.”
4. 한 마음과 한 길을 준다. 회개하면 가능하다. “내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다.”
 - a.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회개해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 가능하다.
5.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내 마음을 다하여 내 혼을 다하여 그들을 확고히 이 땅에 심는다(41).
 - a.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천국 백성으로 삼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준다.
6. 과거에 당한 고난을 극복하는 복을 준다(42).
 - a.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과거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 당한 사람들이 많다. 그 이상의 복을 주신다.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43-44)

1. 예레미야의 마음속 의심.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했는지 의심할 때 확증의 말씀을 주신다.
 - a. 백성이 돌아와서 밭들을 살 것이다(43).
 - b. 그리고 이들이 내가 17세겔을 지불하고 내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산 땅 즉 베냐민 땅 아나돗에 도시들을 지을 것이다. 예루살렘에도 짓는다. 모든 옷에다 짓는다.
 - c. 너는 죽어서 그것을 못 본다 해도 괜찮다. 내가 내 때에 이룬다.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 d.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때로부터 2,500년이 지난 뒤 다시 이스라엘을 데려다놓으셨다.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2. 우리가 하는 믿음의 일들, 미디어 사역, 아이들 교육, 바른 가정생활,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분이 하신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면 된다. 낙심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겨야 한다. “보라,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하나도 없다. 아멘.

333 기도 약속(렘 강해 설교 29)

성경말씀: 렘33:1-8, 19-22

예레미야의 부동산 투자, 의심이 생김, 하나님께서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 지옥 불로 영원히 정죄하신다. 영원히 공허를 베푸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한 마음과 한 길을 준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내 마음을 다하여 내 혼을 다하여 그들을 확고히 이 땅에 심는다’, ‘과거에 당한 고난을 극복하는 복을 준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때로부터 2,500년이 지난 뒤 다시 이스라엘을 데려다놓으셨다.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33장 개요

바빌론 군대들의 침략, ‘공성되’라는 기계,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고 백성과 왕의 집을 헐어서 성벽에 가져다 부음(4절). 이제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때에 감옥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함.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게 네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3) 한국교회 특히 기도원에서 애용하는 구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주여 3장, 밤샘 기도, 크고 신비한 일을 찾으려고 애를 씀, No!!!

여기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나를 부르라.” ‘cry가 아니라 call이다.’ any call 전화해라.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일들, 강력한 일들을 뜻한다.

“어려운 일 있으면 아빠한테 전화하렴. 내가 들어주고 도와주마.” <333 기도 약속>

어떤 하나님

그것을 만든 자, 그것을 조성하고 굳게 세운 자 주, 이름이 여호와인 자가 말한다(2절).

여기의 ‘그것’은 앞뒤 문맥상 예루살렘 도시를 뜻한다. 지금 바빌론 군대가 공성되로 무너뜨리려 하는 이 도시 예루살렘은 내가 만들었다. 비록 너희가 갖은 수를 동원해도 이 도시는 망한다(5). 그런데 내가 다시 복원한다(6, 10-11, 16).

나는 여호와다. 출3:14 “I AM THAT I AM.” 나는 존재하므로 존재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 1초 전 나와 1초 후 나는 변한다. 그러나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희 계획은 변해도 나는 불변한다. 내가 예루살렘을 나의 거처로 삼고 거기에 나의 전을 두었으므로 그것이 잠시 멸망해서 폐허가 된다 해도 내가 거기에 내 눈을 두고 있으므로 반드시 다시 복원한다. 확실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신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그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 비록 죄악으로 인해 내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는 있어도 그분이 우리를 봉인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이게 “나는 주니라.”의 뜻이다. 죄악으로 인해, 잘못된 이단 정보로 인해 영과 혼과 몸이 피폐한 분들이 있는가?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한번 주님의 자녀이면 영원히 자녀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

나를 부르라

누가 부를 수 있는가?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 자만 부를 수 있다. 아이가 전화하듯 불러라.

갈4:3-6,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다.

벧전1:14-17,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부르며 간구하게 되어 있다.

이 아버지는 거룩한 분이시다. 그래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부르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다급하게 소리 내어 부르는 것(다윗의 도피 상황), 영혼이 지쳐서 끙끙대며 신음하는 것(다니엘의 21일 기도), 옥에 갇힌 채 울면서(예레미야), 서서, 누워서, 설거지하며, 운전하며, 책을 읽으며, 성경을 읽으며 부를 수 있다. 우리의 간절함이 표현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롬8:26).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아들이 부를 때에 아버지가 문제를 듣고 풀어주듯이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

응답의 비결: 말을 많이 한다고 들어주지 않는다(7).

마6장의 모범기도(9-14),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뜻, 그분의 이름, 일용할 빵, 죄 고백, 시험 면제
간구, 왕국과 권능과 영광,

염려하지 말라(25-27, 31-33), 곧바로 6장 7-11, 구하라 주실 것이다.

1. 우리의 확신(요일5:14)
2. 감사와 더불어 알리라(빌4:6-7)
3. 은혜의 왕좌(히4:15-16)

누가 기도하는가?

1. 구원받지 못한 분: 행16:30-31
2. 진리를 알지 못해 방황하던 분: 이단 교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의 영
3. 병으로 앓는 분: 요일5:14
4. 재정 문제로 고생하는 분: 주여,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빌4:12-13
5. 결혼 문제로 고생하는 분: 내 잘못을 보고 용의 인내를 볼 수 있도록
6. 열정이 식어서 고생하는 분: 주여, 왜 사는지 삶의 이유를 보여 주십시오.
7. 목사로서는 곳곳에서 교회를 바라는 심령들이 있다. 주님께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보이리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알려주겠다. 1차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신다.

환상과 계시를 찾는 것은 불신의 행위이다. 이미 우리에게는 다 알려주셨다.

‘나만 아는 계시’는 이단 계시이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이미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다.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바빌론 군사들의 공성되 소리,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울부짖는 소리

과연 여기에 소망이 있는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소망이 있는가? 사람의 눈으로는 없다.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보여 주심.

1. 날들이 이르리니(14),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한다. 이 백성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가도 그들을 내가 다시 데려오겠다(7). 그리고 특히 재림의 때에는 그들의 모든 불법을 용서하리라(8), 그들의 모든 죄를 100% 용서하겠다(물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2. 황폐한 이 도시에(10절)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예배가 있다(11). 이런 일들이 바로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이다.
3. 스가랴 8장 1-8절, 22-23, 예루살렘의 복
4. 다윗의 왕좌가 영원무궁하겠다(15). 다윗의 부활, 판단의 공의와 의 집행, 그의 씨가 끊어지지 않는다(17). 삼하7:12-16의 완성
5.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시, 이름은 주 우리의 의(義), 義 설명, 사람들이 찾아 헤매던 것, 의(롬 1:16-17).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 에스겔의 환상: 성전 동편에서 물이 흘러나옴(겔 47:8-12), 소금 계곡과 소금 바다가 살아나면서 모든 것이 치유가 됨. 만복의 근원이 됨
6.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한 민족이 된다(24).

하늘과 땅의 규례들, 낮과 밤의 규례들을 두고 맹세한다(20-26).

낮을 보라(태양). 밤을 보라(달), 변하지 않고 무궁히 계속된다. 이 일들이 멈춘다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대한 언약이 깨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럴 일이 없으므로 너희에 대한 언약은 불변이다.

아브라함의 복(창15), 하늘의 별들 같이 된다(22).

지난 4000년간 유대인들이 헤매고 다녔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다. 1948년에 돌아왔다.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시122:6).

이스라엘은 땅의 백성, 이 땅이 정화된 뒤 이스라엘은 영원히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산다.

그런데 우리 신약성도들은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예비되어 있다(계21-22). 새 예루살렘, 믿음의 선진들이 고대하던 곳, 눈물, 사망, 슬픔, 울부짖음, 아픔 No!!(계21:3-4, 22-23; 22:3-5)

약속 이행자(렘 강해 설교 30)

성경말씀: 렘35:1-19

바빌론 군대들의 침략, ‘공성퇴’ 소리,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함.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게 네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3)
“나를 부르라.” ‘cry가 아니라 call이다.’ any call 전화해라. 간절하게 구하라.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일들, 강력한 일들을 뜻한다.
“어려운 일 있으면 아빠한테 전화하렴. 내가 들어주고 도와주마.” 기도 응답의 약속,
능력 있는 일들: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들 용서, 가나안 땅의 회복, 예루살렘 성전 건축, 메시아 재림
해와 달과 별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하심.
우리 신약성도들은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예비되어 있다(계21-22). 새 예루살렘, 믿음의 선진들이 고대하
던 곳, 눈물, 사망, 슬픔, 울부짖음, 아픔 No!!(계21:3-4, 22-23; 22:3-5)

35장 개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함(1절).

목적: 레갑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하여 교훈을 얻게 하는 것

대언자는 레갑 사람들을 주의 집의 여러 방들 가운데 하나로 데리고 들어가 포도주를 마시게 함
구체적으로 포도주가 담긴 단지들과 잔들을 내놓고 마시라고 함(5).

그들이 안 마심, 이유,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마시지 말고 또 텐트에 살라고 명령했다(6).

그래서 우리 레갑 사람들은 남녀노소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텐트에 산다(8-10).

바빌론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 머물고 있다(11).

주님의 말씀: 레갑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의 명령을 지키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느냐?

내가 대언자들을 보내고 보내고 하지 아니 하였느냐?(13-16).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내리겠다고 한 재앙을 내리겠다(17).

예레미야의 축복: 너희가 조상의 명령을 지켰으니 자손이 무궁하겠다(18). <약속 이행자>

레갑 사람들

레갑 사람들은 유목민처럼 텐트를 치고(6절) 나사르 사람들처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

레갑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님. 모세의 장인 이드로처럼 겐 족속이었음. 유다 지파에 속함(대

상2:55),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용맹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를 기억함
약 300년 전에 이스라엘에는 아합이 치리하면서 바알 숭배가 극에 달하였음.

아합의 아들 요람이 치리할 때 엘리사는 시리아와 싸우기 위해 라못길르앗에 있던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왕이 되게 함. 이에 예후는 예스르엘에서 요람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인 뒤 수도인 사마리아로 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요나답)을 만나 그를 수레에 태움(왕하
10:15-16).

예후는 백성에게 존경받는 그를 자기편으로 삼고 바알의 집에 모인 바알의 대언자들을 다 죽임. 이 일을
집행하며 도와준 사람이 요나답(왕하10:23), 이스라엘에서 그의 용기와 지혜는 잘 알려져 있었다.

그의 아버지 레갑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요나답의 뜻: ‘여호와께서 풍성하게 주셨다’

레갑 사람들의 조상인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유목민으로 텐트에 살 것을 명령함.
그 이후로 300년 동안 이들은 조상의 명령을 지키다가 지금 바빌론 군대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피신함.

1. 이들은 극한 상황에서 시험을 받았다. 주의 집으로 불려가서 대언자에게서 시험을 받았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포로가 될 시점, 이미 텐트에서는 살지 못함,
하나님의 집, 더욱이 대언자의 요청,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다.

2.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확신을 버리지 않았다(6). “로마에서는 로마 사람처럼 행하라.”는 속담이
있다. 특히 남자들: 군대, 회사 술, 음담패설, 아이들: 학교 cheating, 욕, 여자들: 동창회

a. 우리는 무슨 확신을 가지고 사는가? 성경의 사람들은 확신의 사람들이었다.

b. 히11:24-26의 모세 이야기

- c. 바른 말씀(진리, 믿음, 소망, 위로)
 - d. 바른 교회(성화)
 - e. 바른 가정(하나님의 뜻)
 - f.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에 입각한 통일(이 나라): 딤편2:1-3
3. 이들은 자기 조상의 말에 확신을 갖고 순종하고 헌신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불신을 책망하는 본보기가 되었다(14).
- a.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어린 나이에 바빌론 포로 생활, 바빌론 궁에서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자람. 다니엘은 바빌론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작정함(단1:8).
 - b. 느부갓네살의 금 형상,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였으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지 않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안 하셔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단 3:17-18)
 - c.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가지고 바르게 깨끗하게 살면 그것이 본보기가 된다.
4. 이들은 하나의 명령을 받고 그것을 끝까지 지켰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 대인자들을 통해 수십 차례 같은 말들을 들었으나 거부하였다(15).
- a. 그 결과 그들은 나라를 잃고 성전이 훼파되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

우리는 어떤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10가지 명령을 주셨다. 4, 6개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신약시대에 이것을 두 개로 요약해 주셨다(마22:34-40).

1.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 a. 너희 앞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 명예, 재물, 학식, 배우자, 자식, 교회, 목사
 - b. 창조주로 인정해야 한다. 주인으로 인정해야 한다. 구원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 c.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나 그분의 모든 것을 성경 말씀 안에 주셨다. 이 책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계획, 사랑, 공효, 공의, 심판, 진리를 사랑해야 한다. 또한 보존된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후대에 보존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2.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 a. 배우자와 자식들, 부모를 사랑해야 한다. 말세는 본성의 애정이 실종되는 시기, 가정을 이루고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이다.
 - b. 예수님은 구약에 없던 교회를 세우셨다. 이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을 두셨다. 강한 자, 약한 자, 남녀노소, 갓난아기, 먼저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명령이다.
 - (1) 가장 큰 명령(요13:34-35)
 - (2) 제럴드 스티치의 사랑의 짐: 교회가 해야 할 일
 - c. 우리 주변의 신자들을 사랑하는 것: 신자들 가운데 종교에 얽매어서 교회와 목사의 종으로 사는 많은 성도들을 살려내야 한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였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
 - d.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미디어 사역, 선한 행위
 - e. 나라 사랑: 민족의 분열, 사상의 분열, 지도자들의 분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명령 준수에 따른 축복

조상의 명령에 순종한 레갑 사람들은 땅에서 보상을 받았다(18-19).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영존하는 생명을 가져온다(요3:34-36).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 의롭게 심판하신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대로 갚으신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사랑하라.

가족, 교회, 이웃(불신, 신), 나라를 사랑하라.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살롬!

말씀을 보존하시는 하나님(렘 강해 설교 31)

성경말씀: 렘36:1-32

지난 주 레갑 사람들 이야기: 대언자는 레갑 사람들을 주의 집의 여러 방들 가운데 하나로 데리고 들어가 포도주를 마시게 함, 그들이 안 마심, 이유,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다 (6). **확신의 사람들**, 주님의 말씀: 레갑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의 명령을 지키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느냐? 내가 대언자들을 보내고 보내고 하지 아니 하였느냐?(13-16).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내리겠다고 한 재앙을 내리겠다(17). 예레미야의 축복: 너희가 조상의 명령을 지켰으니 자손이 무궁하겠다(18). <말씀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36장 개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 모든 단어들의 보존, 이런 책은 전무후무하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담은 예레미야의 두루마리가 없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제사장, 대언자, 통치자, 백성의 합작품), 새 언약, 이스라엘의 회복 등에 대해 알 수가 없다. 히브리서 불가능, 지금 이 시간 우리 손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모든 단어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다.

렘36은 성경을 기록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거부하는 것, 보존하는 것을 잘 보여 준다.

1. 성경의 계시와 영감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다. 계시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 계시를 단어들로 적는 과정을 영감이라고 한다. 딤후3:16

렘36:1-2, 두루마리 책에 모든 말(단어)을 기록하라. 정결한 양피지, 끝에 나무를 대고 둘둘 말게 함. 지금까지는 주로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46-51장은 이집트, 바빌론 등 예언 이것은 BC 606년경에 바빌론이 이집트를 누르고 승리한 때에 주어짐, 그 전에 예레미야에게 20여 년 동안 주신 대언들을 모두 기록하라고 하심. 1-25장과 46-51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임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들(단어들)은 그의 단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어들이다. 벴후1:20-21 그 두루마리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단어들이라 생명을 소유한다. 히4:12-13

성경 기록의 목적(3): 자기 백성을 죄와 불법에서 구하시려는 것

예레미야의 경고는 단순히 무서움을 자아내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다(7).

성경에 하나님의 경고는 항상 그분의 은혜에 기반을 둔다. 겔33:11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었다(4). 말씀이 계시된다. 기억된다. 그리고 기록된다. 바룩은 단순히 서기관 노릇만 하지 않고 2번이나 말씀을 선포한다(5-6).

예레미야는 간헐고 바빌론 사람들로 인해 금식이 선포되었다.

2.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바룩은 대언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100% 하였다(8). 청지기의 신실함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극명히 달랐다. 대부분의 백성은 금식을 수행하느라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다만 미가야만 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지금의 킹제임스 성경 이슈와 비슷함 미가야는 그 책에서 나온 주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다(11).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성경 이슈도 마찬가지, 13구절 삭제 등 전체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는 왕의 통치자들에게 그 말씀들을 알려주었다(13). 이들은 미가야의 보고에 만족하지 않고 바룩을 데려다가 직접 듣겠다고 함(15). 이들 역시 미가야처럼 말씀을 신중하게 들었다.

우리는 조직적으로 성경을 다 읽어야 한다. 앞으로는 주일 오전 예배에서 성경을 조직적으로 읽으려고 함. 교회 학교 교육에서도 성경을 조직적으로 읽으려고 함. 금요 모임도 마찬가지.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16).

단순히 읽는 것과 두려움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나의 무기력함, 죄성, 하나님의 광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등이 드러나면서 감격과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이에 이들은 왕에게 이것을 알려야겠다고 말함(16). 이들은 바룩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그대로 왕에게

고하려고 함(36:13 36:16). 그런데 보고할 말씀의 내용은 심판에 대한 것이다.
현시대 복음 선포의 가장 큰 문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선하심만 강조, 죄, 지옥, 심판은 거의 다루지 않음. 이들과처럼 모든 것을 전달해야 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자세히 알려야 한다.

가정교육의 중요성: 미가야는 사반의 손자(11). 그는 요시아 왕 당시 국무 장관,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 책이 발견되매 사반이 왕 앞에서 반복해서 읽음(왕하22). 왕을 비롯해서 옷을 찢음, 유다의 개혁이 일어남,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유월절을 지키고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함.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유다의 통치자들의 손에서 예레미야를 구출해 줌(렘26:24).

미가야의 사촌이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말리야가 예루살렘 함락 시 예레미야를 구해 줌(39:14). 총독 성경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 줄 아는 부모를 둔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품성 교육

3.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여호야김 왕은 이들과 정반대의 일을 하였다. 그는 듣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여호야김은 예측 불허의 인간, 그래서 이들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김(36:19-20).

여호야김이 그 책을 찢어서 겨울 화로에 집어넣는 것은 성경 보존을 막으려는 마귀의 극적인 시도(23) 중세 로마 시대, 천주교회는 성경을 금서 목록에 올리고 아마도 읽지 못하게 하였다. 화형시킴 위클리프(1384년, 1415년, 29년), 에라스무스, 틴테일, 루터 등을 통해 일반인의 언어로 보존됨.

여호야김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듣기를 원치 않았다(36:29). “괜찮아질 거야” 태도 태워버리면 그런 심판이 임하지 않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엔진 오일, 냉각수 경고

싸인이 들어오면 고쳐야지 대쉬 보드의 그 경고 싸인을 없앤다고 차가 수리되는 것은 아니다. 왕과 또 왕과 함께 한 그의 신하들은 두려워하지도 않았다(36:24).

세 명의 신하가 그에게 달려가 막아도 막무가내였다(25-26). 오히려 예레미야와 바룩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함

그의 아버지 요시아는 율법을 발견하고는 회개의 표시로 책이 아니라 옷을 찢었다(왕하22:11).

성경에 대한 태도: 수용하거나 거부하거나, 듣거나 무시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성경을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죄는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한다.”

지금도 여호야김의 후예들이 많다. 신학교 교수들, 성서공회, 문서 비평, 목사들, 성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평생의 과업으로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여김

확실하게 정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알게 되면 그와 동일하게 거기에 순종하려고 해야 한다.

4.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것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은 에덴동산에서부터 말씀에 가감을 하고 추측을 해서 변개시키려고 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들은 보존하실 능력이 있다(마4:4).

그래서 원본의 폐기 이후에 또 다시 두루마리에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거기에 더 더하게 하신다 (36:27-28, 32). 하나님은 원본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 원본이 가치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의 단어들을 보존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손 안에 2600년 전에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주신 단어들이 그대로 있다. 믿음이다. 시12:6-7

예레미야가 둘째 판에 더한 말들에는 여호야김에 대한 저주가 들어 있다(30-31).

불쏘시개로 만든 것에 대한 대가로 열기를 맞게 하신다(30).

왕과 그의 신하들과 온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심판의 파국을 맞게 되었다.

결론

성경이 이 시간까지 보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파워에 대한 증명이다. 어떤 문서도 이런 적이 없다.

이제 그 성경은 전 세계의 6,000개 언어로 번역되어 읽히고 있다. 예레미야의 모든 말씀을,

웨스트민스터, 런던 신앙고백, 히브리어로 된 구약과 그리스어로 된 신약은 하나님에 의해 즉시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독특하신 섭리와 돌보심으로 시대를 통해 순수하게 보존되었다.

벤전1:24-25

존 위클리프와 윌리엄 틴데일(W. Tyndale) 등이 금서였던 성경을 번역하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 죽어갔지만, 성경은 마침내 백성들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 최고 석학인 에라스무스를 사용해서 올바른 그리스어 신약성경 본문을 편집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천주교의 성경 금지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바른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주고자 평생토록 수고하였습니다.

나는 매우 연약한 여인이라도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스스로 읽고 깨닫기를 바라며 ... 그런 말씀들이 모든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사람뿐만 아니라 터키 사람이나 이슬람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나는 또한 쟁기질하는 소년이 쟁기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옷을 짜는 사람이 옷 짜는 기계소리에 맞추어 이 말씀들을 흥얼거리며, 여행하는 사람이 이 말씀들을 통해 여행의 무료함을 달랠 수 있기를 바란다 ... 우리는 다른 공부를 한 것으로 인해 후회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죽음이 다가올 때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으셨다 다시 일어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 주며, 그분이 바로 우리 옆에 있음을 깨닫게 해 준다(『Famine in the Lord』, Norman Ward, p.38).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을 마련한 틴데일은 천주교 신학자가 “성경이란 필요 없소. 보통 사람들이 읽도록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교황뿐이오. 교황의 법 없이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낫소.”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천주교의 우민정책에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교황과 그의 모든 법에 도전하며, 만일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앞으로 몇 년 내에 쟁기를 끄는 소년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할 것이오.

영어 성경 번역을 위해 평생을 바친 틴데일은 화형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로마 교회의 절대 권력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왕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주님,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는 이루어져 하나님께서는 영국 왕 제임스 1세로 하여금 최고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학자들을 수십 명 동원하게 하여 카톨릭 세력에 맞설 영어성경을 출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신적 권위를 인정받아 ‘권위역’(Authorized version) 이라고도 불립니다. 400년 동안 개정 없이 이어온 이 성경은 많은 공격을 받아왔지만 오늘날까지 미국 등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아버지의 아들들(렘 강해 설교 32)

성경말씀: 렘36:1-32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 모든 단어들의 보존, 이런 책은 전무후무하다. 렘36은 성경을 기록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거부하는 것, 보존하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에덴동산에서부터 마귀는 사람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개해 왔다.

렘36의 여호야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루마리를 찢어서 화롯불에 집어넣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두루마리에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고 추가하신다. 시12:6-7

우리의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우리말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자녀 교육

부모의 가장 큰 바람: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서 성실한 인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바르게 자란다는 것은 무엇인가? 중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는 것인가?

사람다운 사람: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인사할 줄 아는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권위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십계명, 4대 6, 다섯째 명령: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 날들이 길리라.

성경의 지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면 권위에 순종할 줄 안다. 그러면 구원받게 된다.

마8의 백부장, 이교도, 가버나움, 마비 병 걸린 중, 고쳐 주십시오. 가서 고쳐 주겠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지붕 아래로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권위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큰 믿음은 보지 못하였다.

우리 교회의 성장, 아이들의 유입, 같이 예배드림, 부모들의 바람: 인성 교육,

남을 배려하는 인간, 도와주는 인간, 섬기는 인간(막10:45), <두 아버지의 아들들>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상하의 훈계

여러 왕들의 이야기, 불순종하는 왕들, 순종하는 왕들, 모든 인간의 대표적 사례들이 들어 있다.

사마천의 사기, 공자의 논어, 맹자, 소크라테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등을 능가하는 인간상
오늘 읽은 렘36에서 우리는 두 아버지의 두 후손들을 보게 된다.

서기관 바룩이 주의 집 뜰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반의 손자요, 그마라의 아들인 미가야가

자세히 듣고 통치자들에게 알려 이들도 바룩을 데려다가 모든 말씀을 듣고 두려워한다.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일의 기폭제가 된 인물: 미가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조상들의 이름을 기록하신다.

반면에 여호야김은 말씀들을 들을 때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 두루마리를 찢어서 태운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에게 저주를 선포하시고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을 집행하신다(30-31).

미가야는 누구이고 여호야김은 누구인가?

BC 628년 예레미야가 대언을 시작함, 그 뒤 5년이 지나서 주님의 성전을 보수하다가 주의 집에서 율법 책을 발견함(왕하22).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는 율법 책에서 필사하여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함(신17:18-19).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책을 떨시하였는지 대제사장이 주의 집에서 보수 공사를 하다가 책을 발견함.

서기관 사반이 이 책을 가져다가 왕 앞에서 낭독하매 왕이 옷을 찢고 두려워함(10-11).

이 선한 왕이 바로 유다의 요시야 왕이다. 그에 대해 성경은 22:1이라고 말함.

하나님은 요시야를 통해 다시 한 번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심.

바로 그 날로 요시야는 개혁을 착수하여 성전을 정화하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유월절을 지킴

(21-22). 이집트 탈출은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뜻한다. 이것을 잊고 살았다.

그런데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시간이 이미 늦었다고 하신다(26).

바로 그때에 이집트의 파라오스고가 바빌론과 전쟁을 하러 오다가 요시야를 죽이므로 그가 죽음.

적당한 때에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116:15)

요시야의 문제: 아들들을 개관으로 키웠다. 자식들이 크면 아버지가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들들을 바르게 키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

그의 뒤를 이러 여호아하스가 왕이 됨(32). 악하게 행함(세 달 동안). 파라오느고가 폐위 조치
그의 어머니는 립나의 예레미야의 따라 하무달, 성경은 굳이 어머니의 이름을 밝힌다. 자녀 교육의
중요성 강조, 솔로몬 사후 아들 르호보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암몬 여인 나아마(왕상14:21)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을 바꾸고 통치하게 함(34). 11년 동안 악하게 행함(37).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루마의 브다야의 따라 스부다, 느부갓네살의 침략, 다니엘 등 포로(BC 606)
그가 죽으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요시야의 손자)이 석 달 동안 통치하다가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감.
그 역시 악하게 행함(24:9).

느부갓네살이 그의 삼촌인 맛다니야를 취해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꿈(24:17). 요시야의 아들, 그의
어머니는 립나의 예레미야의 따라 하무달, 악한 것을 행함(24:19).

요시야의 아들 3명과 손자 1명이 모두 악하게 행함, 유다의 심판과 멸망

미가야는 누구인가?

울법 책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 앞에서 직접 낭독한 사람, 사반, 그는 요시야 왕 당시 국무 장관
요시야와 사반은 같은 날 떨어져 두렵게 하나님을 대함
사반은 왕은 아니었지만 아들들을 바르게 키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유다의 통치자들의 손에서 예레미야를 구출해 줌(렘26:24).

미가야의 사촌이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말리야가 예루살렘 함락 시 예레미야를 구해 줌(39:14). 총독
그마라의 아들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떨어져 다른 이들에게 전달함.

성경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 줄 아는 부모를 둔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품성 교육

자녀 교육의 핵심

인성을 갖춘 다음에야 비로소 공부할 수 있다. 공자의 논어 학이편

젊은이들은 집에 들어가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가선 어른을 공경하며, 말을 삼가되 미덥게 하고,
널리 사람을 사랑하며,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런 일을 실천하고 남는 힘이 있으면 비로소 문헌을 배워야 한다.

솔로몬의 잠언도 이 점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한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22:6).

아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망치는 것이다. 훈련시켜야 한다.

순종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말뿐만이 아니라 경책이 들어 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없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잠22:15).

어른들이 해야 할 일: (1) 교사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빛이 나지 않는 자리, 찾아보고 격려해야 한다.

(2) '어른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없다. 하지만 어른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 아이도 없다.'

사회심리학자 제임스 볼드윈 교수의 주장, 자녀, 직원, 후학을 위한 인성교육은 솔선수범이 해답이다.

우리 교회 어른들의 상황

나이는 들었어도 영적으로 아이들이 많다. 이들도 훈련을 받아야 한다. 경책을 받아야 한다.

배우지 않은 것, 보지 못한 것은 할 수 없다.

언제까지 아이들로 남아 있으려 하는가? 히6:1-3

그래서 9월부터는 교육실이 마련되는 대로 심화 과정을 연다. 구원과 교회 예배, 킹제임스 성경, 재림과
은사, 이스라엘의 역사 등

결론

울법을 발견하고 같은 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던 두 아버지

한 아버지는 짐승 같은 자식들을 낳고 괴로움 속에 죽었다. 유다의 심판과 저주의 원인

다른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떨 줄 아는 자손들을 낳았다. 이 사람들이 유다의 희망이 되었다.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영적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들,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와 교회를 바꾼다. 리더가 된다.

주여, 대언자와 조력자를 주소서(렘 강해 설교 33)

성경말씀: 렘38:1-13

부모의 가장 큰 바람: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서 성실한 인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사람다운 사람: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권위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막10:45), 유다 백성의 타락, 율법 책을 잃어버림, 요시야 왕 시대에 율법 책 발견,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은 같은 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던 두 아버지, 한 아버지는 짐승 같은 자식들을 낳고 괴로움 속에 죽었다(여호야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주 앞에 악한 자들). 다른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떨 줄 아는 자손들을 남겼다. 이 사람들이 유다의 희망이 되었다(아히감, 미가야, 그달리야, 선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들, 성도들,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들을, 성도들을 훈련하는 교회

대언자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왕, 대언자, 사도, 대언자, 목사 겸 교사, 복음 전도자, 집사 등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하나님의 대사, 대변인,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미워한 사람: 대언자,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좋아한 사람: 거짓 대언자
대언자: 가장 힘든 사역자, 제사장과 왕(임무, 존경), 이스라엘에서는 대언자의 삶이 대단히 힘들었다.
예수님의 말씀: 이스라엘이 대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흘림, 결국 가장 큰 대언자이신 예수님도 죽인다. 그래서 대언자들의 피를 그 세대에게,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시겠다고 하심(마23:29-36).
스테반의 질책 행7:51-52

예수님의 3중 직무: 제사장, 왕, 대언자, 초림 대언자, 지금 제사장으로, 1000년 왕국 왕
마16:13-14,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침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대언자 중 하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는 대언자로 여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고백: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서 능력 있는 대언자, 그들이 그분을 죽임(눅24:19-20).
여러 대언자 중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와 같다고 함: 눈물로 진실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음.
오히려 오늘 읽은 본문처럼 대언자를 잡아 진창이 가득한 지하 감옥에 집어넣음. 십자가 처형
들 다 고통과 슬픔의 사람,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배척함. 거절, 고독, 버림받음
오늘 읽은 렘38:1-13의 예레미야의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을 상기시켜 준다.

이것은 정확하게 부활의 구절은 아니다. 그런데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구출받은 것은 예수님이 죽은 뒤 지옥에 가셨다가 부활하신 것과 비슷하다. <주여, 대언자와 조력자를 주소서>

대언자를 거부함

37장을 보면 바빌론 군대가 파라오의 군대로 인해 잠시 예루살렘을 떠남, 예레미야는 백성과 떨어져 지내려고 베냐민 땅으로 들어감. 이리야라는 파수대 대장이 그를 붙잡고 그가 바빌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려 한다고 하며 통치자들에게로 데려옴. 그들이 화를 내고 그를 때리고 지하 감옥에 가둠.
시드기야 왕이 그를 불러냄, “네게 무슨 말이 있느냐?”, “왕이 바빌론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나를 여기 두지 마소서,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시드기야가 그를 감옥 뜰에 두고 함락될 때까지 매일 빵 한 조각을 그에게 줌(21절). 어려운 삶이다.

예레미야의 메시지(38:2-3), 예레미야는 한 번도 이 메시지를 바꾼 적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절박한 상태에 있었다. 포위가 됨, 공급 물자가 없음, 빵 배급제, 물 부족, 공성되, 보루, 이런 시점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항복해서 목숨을 건지라”는 것이었다.

실로 이것은 듣기에 아주 좋지 않은 말이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다.

“유다의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께서 바빌론 사람들을 들어 심판의 도구로 쓰시니 항복하라.”
그런데 시드기야의 신하 4명(스바다, 그달리야, 유갈, 바스홀)은 이런 소리가 아니라 승리한다는 소리를 듣기 원하였다(1).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 사람을 죽이라고 간청함(4). 이유: 백성의 변영이 아니라 해를 구함, 도시에 남아 있는 군사들의 손을 약하게 함, 이 말은 많이 도망하였음을 뜻함(2절)
비록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어도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널리 퍼짐: 온 백성의 손이 약하게 됨

과연 이 4인방의 주장이 옳은가? “이 사람이 백성의 번영이 아니라 해를 구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실제로 예레미야만큼 유다 백성을 사랑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목숨을 내걸고 진리를 외침. 그때나 지금이나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은 나쁜 소식으로 들린다.

“하나님이 다 눈감아 주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다 잘될 것이다.” 라는 말이 훨씬 듣기 좋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 대언자들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오순절 은사주의의 기복 신앙). 기록하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자가 참 대언자이다.

그 하나님이 회개하면 죄들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선포하는 자가 참 대언자

“동성애, 간음, 은행, 살인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입니다.”라고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자 거짓 대언자들은 거짓 평안을 선포한다(렘8:11). 그러면 렘5:30-31이 이루어진다.

이 시대 교회와 목사가 해야 할 일: 너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심판이 임한다.

사실 이것이 가장 좋은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이다. 목사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

섬겨라. 희생해라, 성경을 읽어라, 자녀 교육, 가정생활에 신경을 써라. 복장, 언행, 예배 태도

대언자를 감옥에 넣음

이 4인방은 결국 시드기야의 허락을 받고 그를 말기야의 지하 감옥에 가둠. 이 지하 감옥은 아마 빗물을 저장해 두는 큰 물 저장고였을 것이다.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다.

이들은 무죄한 자를 스스로 죽여 피를 손에 묻히려 하지 않고 감옥에 던져서 굶어죽게 하려 하였다.

이런 물 저장고/지하 감옥은 병처럼 5미터 정도의 깊이로 병처럼 만들어져서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다.

메시아 시편 69편 2, 14-15절과 상황이 비슷함

대언자가 구출됨

지하 감옥에 빠져 음식도 물도 먹지 못하는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결과가 지하 감옥의 진흙 속에 빠져 꼼짝 못하는 신세라면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런 핍박과 낙심 속에서 자신의 의무를 감당하였기에 복음과 성령이 전달되었다. 틴데일, 백성에게 그들의 말로 성경을 전달해 준 죄 밖에 없다. 화형

대언자는 핍박을 받았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를 구출해 내셨다(시40:1-2). 우리 예수님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영을 받아주소서.”(눅23:46)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구덩이에서 부활해 올리셨다.

도구: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 아무 힘도 없는 이방인, 내시요, 종이였다. 이름의 뜻: ‘왕의 종’, 김머슴, 김개똥, 이름 자체가 그는 아무 지위도 없는 자요, 힘이 없는 자임을 보여 준다.

예레미야가 유다에서 외칠 때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은 듣지 않았지만 이 이방인은 들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용기를 뱌다.

1. 그는 왕의 집에 나갔다(8). 주인의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은 하는 것은 목숨을 내걸기 전에는 힘들다.
2. 그는 시드기야 왕을 만났다(8). 왕은 지금 베냐민 문에서 직무를 수행 중, 갑자기 종이 나타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3. 그는 진실을 말하였다(9). 대언자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여겼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므로
4. 시드기야의 마음을 움직였다(10). 30명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습격할까 봐 30명을 허락함
5. 그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다(11). 예레미야의 상태가 안 좋음, 굶은 로프로 그를 들어 올리면 상처가 날까 봐 먼저 오래되어 부드러운 형질을 찾아서 그것을 겨드랑이에 대게 함.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에 그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를 세심하게 배려함(마10:41)
6.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 39장에 보면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된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다(렘39:15-18). 에벳멜렉의 생명을 구출해 주신다.

이 시대의 요청: 신실한 목사와 목사를 돕는 자

곳곳에서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들려온다. 진리를 외치는 목사가 필요하다. 그를 돕는 자가 필요하다.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주여, 주님의 수확 밭에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목사와 조력자들을 보내 주소서.

심판의 날이 확실히 임한다(렘 강해 설교 34)

성경말씀: 렘39:1-18

예레미야 대언자는 BC 628년부터 41년 동안 말씀을 대언함, 대언의 내용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하여 포로로 사로잡아간다.” 1-2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통치 제 9년 10월에 마지막 포위가 시작되어 18개월 동안 전쟁이 일어나고 11년 4월 9일, 드디어 BC 586년에 예루살렘에 빵이 떨어져서 도시가 함락되자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휘파하고 성전을 부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감, 성전의 모든 보석과 금속을 다 가지고 감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시, BC 1048년에 예루살렘 탈취, 462년 만에 이방인들의 손으로 넘어감, 그때부터 1968년까지 2,500년 동안 예루살렘은 이교도들의 지배

애4:1-22, 성전의 멸망(1), 시온의 아이들이 부서짐(2), 젓먹이와 아이들을 붙잡히여기지 않음(3-4), 맛있게 먹고 화려하게 입던 자들이 거름더미를 껴안음(5), 나사르 사람들의 얼굴이 숫갈이 검게 변함(7-8), 칼에 죽은 자가 주려 죽은 자보다 낫다(9), 아이들을 삶아 먹음(10), 시온이 불에 타버림(11-12), 대언자와 제사장들의 죄로 인해 백성이 눈먼 자 같이 도시에서 헤매고 다님(13-14), 곳곳에서 원수들이 독수리같이 백성을 추격함(19), 이스라엘이 이교도들의 지배를 받음(20).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이런 일이 임하지 않도록 회개하라고 40년간 외쳤지만 결국 그의 눈앞에서 이런 악학 상황이 발생하자 애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애3:48-51, <심판의 날이 확실히 임한다> 렘39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 전체에 대한 심판과 개개인의 심판을 살펴보려 한다.

유다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속박의 집, 쇠 용광로에 있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 내셨다. 하나님의 증언: 출19:3-4, 이집트에서의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 유월절 어린양, 죽음의 천사, 유월절, 홍해를 건넌, 만나를 먹음, 특별한 보물이 된다, 제사장 왕국이 된다. 거룩한 민족이 된다. 신7:6-7, 수가 많거나 재능이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조상들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구속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드러낼 자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므로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것, 주변 국가들처럼 우상숭배하면 안 되었다. 십계명의 율법이 요구하는 첫째 명령: 오직 주 하나님만 섬겨라.

신6:4-5의 쉘마, 그러나 바빌론 포로 생활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의 1000년 역사는 우상 숭배 역사, 재판관(사사)들의 시대, 왕들의 시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린 때가 거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율법 책을 잃어버렸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세우면서 주신 안식일은 지켰으나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 안식년의 목적: 땅이 쉬어야 열매를 낸, 하나님께 대한 신뢰

바빌론 포로생활 70년 동안 땅이 그 동안 안식하지 못한 것을 다 회복함(대하6:21).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창세기 6장, 노아 당시에 사악한 일이 땅에 범람할 때 하나님은 12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심
사람들은 믿지 않고 대언자를 멸시하였으나 120년이 차매 온 땅을 뒤덮은 홍수가 임함.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저들을 유황불로 심판함
이집트의 파라오: 참고 참으신다. 10가지 재앙까지 참으신다. 결국 장자의 죽음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언자 모세를 거역하는 것을 보고 심판을 내린다.

재판관 시대, 왕들의 시대: 참고 참으신다. 그리고는 결국 민족에게 나라에게 심판을 내리신다.

우리나라: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특히 교회).

36년 일제 식민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 동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다. 북한 공산당의 6.25 남침, 극도의 혼란과 가난을 극복하고 세계 10위 무역국가로 서게 되었다. 우리 힘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민족을 세워 주셨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한다. 나라의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이것은 교회의 타락과 정비례한다. 이제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들과 하나가 되어 이 땅에서 WCC를 연다. 교회가 회개해야 이 나라가 통일되고 바르게 살 수 있다. 정신문화/세계가 바로 설 수 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유다처럼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조롱거리, 수치거리 믿는 자들이 우상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벧전4:17).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바른 성경, 바른 구원,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우리 교회의 위치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39장에는 3명의 인물이 나온다. 시드기야, 예레미야, 에벳멜렉

(1)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 우유부단한 사람,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가 있었으나 불순종함. 37장,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시드기야가 몰래 그를 끌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고 묻는다. “바빌론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거짓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거부한다. 38장, 예레미야가 또 다른 지하 감옥에 갇힌다. 시드기야가 또 와서 묻는다. “확신을 가지고 바빌론 왕에게 나가면 살 것입니다.”(17). “바빌론 사람들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은 나를 조롱할 것이다”(19).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주변상황, 사람, 조건). 결국 심판 도시가 함락되자 왕이 몰래 도망가다가 평야 길에서 붙잡힘(4-5). 바빌론 왕이 그가 보는 데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의 눈을 뺀 뒤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교훈: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때 바르게 선택해야 한다. 우유부단한 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돌이키고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한다. 오늘 예배당 문턱을 밟고 나가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2) 예레미야: 믿음으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였으나 심판 때에 그는 오히려 자유를 얻게 되었다(11-14).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거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렘1:18-19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를 원하신다. 말씀에 두려워하면서 떨 줄 아는 성도, 눈물 계21:3-4

(3) 에벳멜렉: 38장에 보면 지하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이 목숨을 걸고 가서 구해 주는 대목이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를 구해 준 이 사람 역시 심판 날에 전져주시고 공포의 때에 그의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17-18).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에 대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예수님의 일을 위해 찬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 하나님이 이를 기억하신다.

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가? 목숨을 내걸고 예레미야를 구해 주었기 때문에, No! 네가 나를 신뢰하였으므로(18).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오직 믿는 자만 구원하신다.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예레미야를 살리려는 선한 행위를 하였고 하나님은 선행에 대해 보답해 주셨다. 구원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으로 은혜로 이루어진다. 믿음, 그에 상응하는 행위, 보상의 순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사랑침례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우리의 자유와 믿음을 지키기 위한 행위, 참된 믿음이다. 하나님의 보상

주님의 재림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의 증언(행17:22-31): ‘알지 못하는 신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건물에, 신전에 갇혀 지내는 분이 아니다. 우상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분이 사람과 짐승에게 숨을 주신다. 그분이 오대양 육대주에 사람들을 흠으셔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 무지한 때를 눈감아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

31절 자세히 설명; 세상 끝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다(벧후3:9). 공중에서 나팔소리가 난다. 심판이 이루어진다(히9:27). 당신은 휴거될 수 있는가? 믿음, 행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보상

남은 자와 쓴 뿌리(렘 강해 설교 35)

성경말씀: 렘40:1-16, 41:1-18

예레미야 대언자 41년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하여 포로로 사로잡아간다.”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 드디어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예루살렘에 빵이 떨어져서 도시가 함락됨. 수많은 사람이 죽음. 가옥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훼파됨. 남은 자들의 다수가 포로로 잡혀감.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심판이 임한다.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남은 자’, 성경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음을 보여 준다.

창세기 6장의 대홍수 심판, 노아의 8명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심판,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

왕상 19:18, 엘리야 시대, 모두가 바알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 마16:18,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남은 자’: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세 암흑시대의 남은 자, 위클리프, 에라스무스, 틴데일, 존 번연, 주기철

바빌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초토화되었으나 그래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주신다. <남은 자와 쓴 뿌리>

대언자 예레미야

39:9-10, 호위대장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가면서 가난한 자들만 남겨 둬.

대언자 예레미야도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 가운데서 사슬에 갇혀 있다가 풀려남(40:1).

예레미야의 외침: ‘바빌론에게 항복하고 목숨을 구하라.’ 대언자 역시 살려면 바빌론으로 가야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남아 있는 불쌍한 자들을 위해 예레미야를 그 땅에 남겨두셨다.

포로들을 위해서는 다니엘(20년 전, BC 606년)과 에스겔(10년 전, BC 597년)을 예비해 두셨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침.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예레미야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5), 마6:33,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면 불신자들에게 책망을 받는다(2-3).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이 이렇다. 회개해야 한다.

총독 그달리야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그달리야가 총독이 되게 하심: 이름의 뜻 “주님은 위대하시다”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5),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을 신뢰하였다(9).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자 숨어 지내던 백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7-8, 11-12).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의 도시(12), 예루살렘의 북서쪽 1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함

쉽게 말해 그를 도울 참모들과 게릴라 전투를 하던 자들이 다 모여 들.

18개월이나 전쟁을 했으므로 씨를 뿌리지 못해 곡식은 없었다. 그래서 야생 과일들만 모음(10).

하나님은 이 전쟁의 와중에서도 남은 자를 위해 야생 과일을 예비해 두심

“여기는 내가 지킬 테니 각각 자기 도시로 가서 생업에 종사해라.”

백성을 생각하는 좋은 지도자, 타고 누르려 하지 않음.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성경대로 하려는 교회들과 리더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곡식이 아니라 여름 과일로 연명하는 성도들이 있다. 곡식을 먹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

쓴 뿌리 이스마엘

“역사는 반복되지만 사람들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려고 하자 마귀도 동시에 일을 시작한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마귀가 있었다. 선한 일과 모임에도 마귀가 개입한다.

그달리야의 참모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례아의 아들 요하난(8)

요하난과 다른 대장들이 충성심을 가지고 그달리야에게 와서 반역을 고함(13-14). 암몬

또 요하난이 개인적으로 가서 이스마엘을 죽이겠다고 하나 듣지 않음(15-16). 충언을 물리칩 드디어 일이 벌어짐. 7월에 이스마엘이 왕의 통치자 10명을 데리고 미스바에 가서 그달리야와 빵을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 무방비 상태의 그달리야를 죽임(41:1-2).

중동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은 서로의 우정과 충성심을 나누는 것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 자리를 빌려 반역을 하고 지도자를 죽임. 그와 함께한 유대인들과 바빌론 사람들을 죽임(3), 이를 동안 아무도 알지 못함(3).

그리고는 극도의 위선을 보임(5). 80명의 사람들이 수염을 밀고 옷을 찢고는 헌물과 향을 가지고 주의 집에 가려고 북쪽에서 내려옴. 이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에 이스마엘이 통곡하면서 이들을 맞으러 나가 “그달리야를 만나러 가자.”고 속여 미스바에서 이들을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 넣음. 그리고 이 중에 10명이 곡식을 준다고 하니 살려줌(6-8). 그리고는 미스바에 있던 남은 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 암몬 족속에게로 끌고 감(10).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워야 한다.

(1) 지도자는 통치력이 있어야 한다. 그달리야는 마음이 선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통치력이 없고 주의력이 없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무엇이든 구하라고 할 때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다(왕상3장). 부귀영화가 아니라 통치력이 중요하였다. 통치력은 충신과 간신을 구별하는 것이다. 지금 읽은 성경과 우리민족의 역사가 이것을 극명하게 가르치지 않는가? 이것은 충언을 듣는 데서 생긴다.

예수님의 충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마10:16)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앞으로 목사가 되어 교회를 이끌고 감독할 사람들은 이 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 그달리야가 죽지 않고 남았어야만 그 땅의 백성은 평강을 누릴 수 있었다.

a. 이스마엘은 이들을 포로로 암몬으로 데려가다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동료들이 나타나자 모두 내버려두고 8명과 함께 줄행랑을 쳐서 암몬 족속에게로 감(11-17).

b. 그런데 불행히도 요하난은 이들을 암몬 족속의 손에서는 구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이집트로 끌고 갔다(17). 갈대아 사람들을 죽인 것, 믿음이 없었다.

c. 그달리야의 죽음으로 인해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이 모두 심지어 예레미야까지 우상의 나라 이집트로 가는 불행이 생기고 말았다.

(3) 이스마엘의 배반 동기: 그는 왕가의 씨에 속한 자(41:1), 다윗의 아들 엘리사마의 후손(삼하5:16) 왕의 통치자 10명이 함께함. 그의 불만: 바빌론 사람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는 것을 보고 복수심에 불타오름. 그래서 바빌론에 대항하던 주변국 암몬의 도움을 받아 바빌론에 대항하려고 함. 이를 위해서는 바빌론 왕이 세운 총독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일이 성사되면 나중에 본인이 유다의 남은 자를 다스릴 수 있음.

(4)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개인적인 욕망, 가장 큰 문제다. ‘남은 자’의 어려움

성경의 교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도 쓴 뿌리가 있다. 가룟 유다, 후매네오, 빌레도, 알렉산더, 디오드레베 개인의 이득과 사적 동기를 가지고 모임에 와서 모임을 흩으려는 자들이 있다.

마귀가 가장 즐겨하는 일: 목사와 지도자를 넘어뜨리는 일, 누구를 통해서: 명성 있는 자들

사도 바울의 목회 간증: 행20:28-32

반드시 외부에서 이리들이 나타난다. 내부에서 반역자들이 나타난다. 훈계를 기억하라(31).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맡긴다(32). 말씀의 효과(32).

(1) 목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2) 목사 주변의 리더들이 목사를 사랑하고 지켜야 한다. 공통 철학, 충성심이 없으면 그만 두어야 함.

(3) 성도들이 목사와 리더들을 믿고 지지해야 한다. (4)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긴다. 성경대로 하려는 모든 교회들이 이 원리를 가지고 전진해야 함

치명적인 실수(렘 강해 설교 36)

성경말씀: 렘42:1-22, 43:1-13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남은 자', 바빌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초토화되었으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주신다. 대언자 예레미야(끝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함), 선한 총독 그달리야(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나 통치력과 판단력이 결핍됨. 일찍 죽어 백성이 흩어지게 함), 쓴 뿌리 이스마엘(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지도자를 죽임), 내부와 외부의 적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긴다.

하나님의 은혜

이 반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통해 남은 자들에게 희망을 주셨다(41:11). 그런데 충신으로 시작한 요하난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땅 이집트로 백성을 끌고 갔다.(41:17)

표면적인 이유: 이스마엘이 총독 그달리야를 죽이면서 갈대아 사람들의 군사들을 죽임(41:3). 보복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시덤불(마13:22),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 막히게 하므로 열매를 맺지 못함. 어쩌면 그도 자기의 야욕이 있었음.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온다. 이때 우리 마음이 드러난다. 결정을 잘해야 한다. <치명적인 실수>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된 기도(42장)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 그런데 혹시 우리는 유다의 남은 자들처럼 기도하지는 않는가?

이들은 이미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마음을 정했다(41:17).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데 불안하므로 하나님의 승인을 구함.

그러기 위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나옴(42:2). 이미 기도의 공식이 있지는 않은가?

말은 잘한다(2-3): 우리가 많았지만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5-6),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잘되리이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인가? 우선

우리는 어떤가? 겉으로는 참으로 경건하게 기도하지만 속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바른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언자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갔고 열흘 후에 말씀이 임하였다.

- (1) 하나님의 약속(10-12),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 예레미야가 즐기치게 외쳤던 말씀 "바빌론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처한 악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한다."
- (2) 하나님의 경고(13-18),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이집트로 가면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칼과 기근과 역병이 너희를 다 죽일 것이다. 내 분노가 예루살렘에 떨어진 것 같이 이집트의 너희에게 떨어진다."
- (3) 너희 마음이 문제다(20), 너희가 아무리 경건한 체 해도 이미 너희가 마음속으로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렘17:9-10, (4) 최종 결과(22), 이집트에서 너희가 칼과 기근과 역병에 다 죽을 것이다.

무엇을 배우는가?

- (1) 이미 자기의 것을 정해 놓고 목사나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려 하지 말라. 기도원, 릭 워렌 20개 역본
- (2)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저버리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직장, 배우자, 교회, 일의 순서)
- (3) 누가 대신 기도해 달라고 하지 말라(2절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는 '내 하나님께 내가 하는 것'
- (4) 하나님이 열흘 동안 회개의 시간을 또 주셨다. 잘못을 알아차리고 이때에 돌이켜야 한다.
- (5) 이처럼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면서도, 회개의 기회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그는 불신자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된 태도(43장)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 다시 한번 이들의 잘못을 보여 주며 회개를 촉구하지만 이들은 대언자를 비난함.

- (1) 내가 거짓말 한다(43:2). 목사나 형제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한다: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성경,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별, 환난 전 휴거, 목사와 집사의 자격(딤후3)
- (2) 네 조수 바룩이 너를 부추기는데 네가 거기에 빠져 놀아난다(43:3).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대언자,

바룩은 그의 조수, 조수의 조언은 들을 수 있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하나님 무시 지난 몇 주 동안의 어려움: ‘거짓말 대왕, 공작 정치, 교회의 대형화, 사유화, 사모와 자매들 좌지우지’ 그분과 그분의 가정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

눅6:26

목사의 어려움, 목사는 여러 사람에게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판단/처리한다. 사람을 쓰는 일이 가장 힘들다.

전도사, 교육목사, 부목사를 데려오는 일, 가게 하는 일, 집사, 리더, 교사를 선정하는 일, 그만 두게 하는 일, 어떤 경우에는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한다(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가 불의하게 편파적으로 하지 않아도 늘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일일이 공개하면 당사자가 어려우므로 그리하지 않고 오해를 덮어쓰더라도 평안을 추구한다. 그런데 일이 터지면 목사를 원망한다. “누구의 말을 들어서 그렇다고.” 아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가져와서 이야기하면, 맞으면 공개 사과하겠다. 그게 아니고 ‘카더라’ 통신이면 그런 것으로 목사를 흔들지 말라. 여러 사람이 불행해진다. “목사가 어떤 형제, 자매, 집사의 말을 듣고 잘못 판단한다.” 목사는 가까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 너무나 당연한 일, 그러나 도리와 사리에 맞지 않으면 안 듣는다.

집사, 지역, 섬김, 목요 자매, 금요 모임, 교사들, 찬양대 모임,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판단하여 처리함. 목사는 대언자 예레미야처럼 선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하려 한다.

내 마음에 맞으면 OK,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목사나 성경을 대적하면 안 된다.

(3) 이렇게 사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자 ‘치명적인 실수’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7).

이집트로 가지 말라(611회)

아브라함의 이집트 행(창12:10-20), 기근, 사라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죽게 될까 겁이 남(12:2-3절 무시),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 파라오가 사라를 취하려 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음
출애굽기 1장, 이집트는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말리는 곳, 속박의 집, 쇠 용광로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 하나님의 은혜, 광야 생활 하면서 늘 이집트에 대한 동경이 남아 있음,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만나를 먹는데 이제는 이게 지겹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민11:5)

왕이 되려는 자는 결코 이집트로 가지 말라. 백성을 데리고 가지 말라(신17:15-15).

- (1) 성경, 부패한 성경의 출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천주교 소수 본문, 비유(영적) 해석
- (2) 성경적 교회: 설교, 음악, (3) 취미, (4) 습관, (5) 열심, (6) 모임, (7) 현금

끝까지 신실하기(렘 강해 설교 37)

성경말씀: 렘43:1-7

가례아의 아들 요하난과 유다 백성이 이집트로 가려고 함. 이미 마음속으로 정하고는 대언자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함. 대언자가 가지 말라고 하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함. 그리고는 결국 이집트로 내려감. 기도 태도, 성경 무시, 명백한 경고를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감: 복이 있을 수 없다.

리더의 필요성

하나님은 항상 리더를 세워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신다: 아담, 모세, 여호수아, 다윗, 바울, 디모데
명백한 사실: 리더가 있고 리더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크리스천 리더십이 무엇인지 잘 보여 주셨다(막10:35-45).

야고보와 요한, 무엇이든 해 주기 원합니다. 영광 가운데서 오른편, 왼편, 침례를 받을 수 있냐?

네,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의 리더십: 주인 된 권리, 권위 행사,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리하면 안 된다.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45절

섬기는 리더십(servant leadership)

교회를 하면서 요즘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예수님의 마음, 섬기는 리더, 인간의 본성과 반대가 되므로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리더는 여러 종류가 많다: 목사, 집사, 지역 모임, 각종 섬김, 주일학교, 교회행정, 남편, 아내, 직장, 모든 성도

사도 바울의 고백(고전4:1-2)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실함이다. 신실함(faithfulness). 믿음직스럽다. 하나님의 기본 속성, 우리의 불의와 불법에 상관없이 믿음직하게 역사를 이끄신다.

그런데 이 신실함이 끝까지 가야 한다.

딤후4:9-11, 16-17, 강제임스 성경, 바른 교회 끝까지 신실하게 가야 한다. <끝까지 신실하기>

신실한 자들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레미야가 얻은 것: 조롱, 비난, 멸시, 감옥, 매 맞음, 차꼬 그리고 결국 이집트로 내려가 하나님의 백성과 삶을 공유하다 이름 없이 죽음.

세 종류의 사람(5-6): 읽고

(1) 악한 일로 이름이 밝혀진 사람: 요하난, (2) 이름이 없는 추종자: 군대의 모든 대장과 모든 사람, (3) 신실함으로 이름이 밝혀진 사람: 예레미야와 바룩

(1)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로 이름이 밝혀지면 그 수치가 얼마나 크겠는가?

딤후4:14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2) 이름이 없는 다수의 추종자들: 44장에 가서 보면 결국 잘못된 지도자의 인도를 받으며 이집트에서 우상숭배를 하다가 대부분 멸절됨,

(3) 신실한 자, 대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 이집트로 가지 않아도 되었다. 호위대장의 제안에 따라 바빌론으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대언자로 유다 땅에 남기로 함. 그와 바룩이 가장 가기 싫어한 곳이 이집트이다.

그럼에도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자기들의 의지를 꺾고 이집트로 내려가 삶을 마친다.

고전4:1-2의 말씀처럼 신실함이 요구되는 시대에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자들

그들의 사역의 크기: 구원시킨 자가 많지 않았다. 삶이 부유하지 않았다. 아내도 얻지 못해 가정도 없었다 (렘16:2). 얻어 터졌다. 지하 감옥의 진창에 갇혔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신다.

말3:16, 기념책을 기록해 두신다.

(4) 이 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죄와 불법으로 물든 이 세상을 보시면 한번에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대적하는 이집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집트와 같은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사랑을 보여 주셨다.

(5) 구약시대에는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이들의 한결같은 특징: 사역의 대상인 백성들이 사랑할 만 해서 사랑하지 않았다.

이들의 사역의 대상: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하며 마음대로 살던 자들, 다 이집트로 내려간

유다 백성과 같은 존재,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다.

모세 같은 경우 너무 힘들므로 차라리 죽여 달라고도 했다. 이 정도로 힘든 게 리더의 삶이다.

마가복음 6장의 침례자 요한, 끝까지 신실한 결과가 참수형이었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요한은 가장 큰 자들 중 하나였다.

(6)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았다. 고린도에 가서는 교회를 세우고 1년 반 이상
말씀으로 먹여 잘 키워놓고 떠났다. 들리는 소식: “온다고 했지만 안 오는 것을 보니 거짓말쟁이이다”(고
후1:15-20), “글은 잘 쓰지만 실제로는 약하고 말도 형편없다”(고후10:10), “사적 이득을 취하였다”
(고후12:161-18), 역장이 무너지지 않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다 로마의 감옥에서 참수형으로 죽어갔다.

현 시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

우리는 다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대를 섬기고 간다. 70-80년

신실하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를 주셨다. 좋은 교회로 모이게 해 주셨다.

내가 해야 할 일: 신실한 자로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다.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는 흥한다.”

내가 끝까지 해야 할 일: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신실한 자로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것

앞으로 이 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목사와 여러 종류의 리더가 나올 것이다:

목사도 리더도 사람인지라 잘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신실하게 행하는데도 이집트에 마음을 두고 리더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

이럴 때는 벗어버리고 싶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나와 내 아내).

그래도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엔 이 백성을 사랑하며 나가야 한다.

어쩔 수 없는 부담

예수님이 사랑한 세상, 사람이 사랑하기에는 너무 추한 세상이었다. 그래도 요3:16

끝까지 신실하게 성경을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보여야 한다.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마25:21)

인간 본성의 끝은 어디인가? (렘 강해 설교 3B)

성경말씀: 렘44:1-19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레미야가 얻은 것: 조롱, 비난, 멸시, 감옥, 때 맞음, 차고 그리고는 가장 가기 원치 않았던 이집트로 내려감. 몇 년을 거기서 백성과 함께 지냄. 섬기는 자, 리더, 청지기, 신실함, 끝까지 신실해야 한다. 목사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해야 한다.

사람의 본성

44장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들, 45-51장은 이전에 기록된 말, 52장은 부록, 사람의 본성은? 성선설과 성악설, 인간 본성은 어느 정도로 부패하였는가? 고통을 당하면 고칠까? 교육이 해당일까? 40년간의 외침, 진실한 대언과 대언자, 바빌론 침략,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음. 남은 자들 가운데 쿠데타, 머리를 세우고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경고한 이집트로 내려감. 44장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지지만 결국 이들의 대부분은 경고를 무시하고 이집트 땅에서 칼과 기근과 역병에 죽음. 더 이상 할 말이 없음. 하나님의 대언이 멈춤. <인간 본성의 끝은 어디인가?>

결코 배우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1-14).

하나님의 최종 경고와 권고의 말씀(1)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내려간 유대인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을 끄집어낸다: 예루살렘의 멸망(2). 고통은 알면서도 그 이유는 알지 못한다(3-6). 우상 숭배, 대언자들의 말 무시, 귀를 기울이지 않음 회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 진리를 말하면 그 말을 한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 함. 유대인들의 이런 성향은 결국 600년 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이름. 예수님의 말씀(마23:37-38)

사도행전 7장의 스테반의 연설: 아브라함, 요셉, 모세,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반역, 7:51-52, 54 하나님의 질문(7-10): (1) 왜 너희 혼을 해하여 다 죽으려고 하느냐? (2) 왜 포로가 되어 수치거리가 되려고 하느냐? (3) 너희의 사악한 행위를 다 잊었느냐?

혹시 이것이 우리의 상태는 아닌가? 딤후3:1-7, 특히 6-7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11-14): 이집트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칼과 기근에 죽으리라.

배우고 이집트에서 도피해서 유다 땅으로 가는 자들만 살 수 있다(14).

여전히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고 살고 있는가? 빵이 있고 물이 있고 풍요한 것 같아도 이집트는 저주와 심판의 장소이다. 예수님께로, 가나안으로 도피해야만 살 수 있다.

이집트의 유다: 인간 본성의 종결자

이들의 대답: 우리는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16).

우리 입에서 나아가는 것을 반드시 시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음료 헌물을 붓겠다(17).

요시야의 개혁 이전에 그리할 때는 일이 잘되었다. 그런데 요시야의 개혁 이후로 그 일을 멈추니 일이 안 된다(18). 여자들의 말: 남편의 허락도 없이 우리가 그리하였겠느냐?

하늘의 여왕: 가나안의 여신 아스타롯(아스타르테, 다이아나), 번영과 다산의 신, 물질만능주의의 신

1. 과거의 경험과 감정에 의지하지 말라(17-18): “그때가 먹고살기에, 놀기에 좋았다.” 아무리 좋아도 이집트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다. 탕자가 돈을 흥청망청 쓰던 곳

창3:6의 이브,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나무
요일2:15-17 설명

젊은 청년들은 이성 사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세상의 외형은 사라진다.

2. 우상을 숭배하면 판단이 흐려진다. 자기들의 멸망의 원인이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이 원인이라고 말함.

3. 판단의 기준: “그 결과가 혹은 기분이 좋더라.”가 아니라 “그 방법이 옳은가?” 록음악, 방언, QT(아전인수식 성경해석, 나누기 위해 짜내는 방식)

4. 잠14:12, 죄의 샅은 사망이다.

5. 스스로 죄를 택하면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온다. 누구 말이 옳은지 두고 보자(27-28).

가정의 문제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신에게 경배하며 산다. 하나님이든 다른 신이든 자기든, 개인 예배, 가정 예배 유다 백성의 하늘의 여왕 숭배는 가정에서 한 일: 남편과 아내가 함께 공모하여 행함

1. 여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남편들이 알고 있었다(15, 19).
2. 남편들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자 여자들이 하면서
3. 아이들까지 동원하였다(렘7:18). 빵을 반죽하면서 나뭇가지를 주우러 다니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닮게 된다. 성경과 TV

집에서 책을 읽고 설교와 성경공부에 대해 의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가? 시간을 내서 섬기는 것, 헌금하는 것, 모이는 것 가능하면 같이 모여 성경도 읽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의 형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을 남편이 리드하고 아내가 협조해야 한다: 말씀, 기도, 회개, 금식, 희생과 섬김의 모범 남편과 아내가 오늘 섬길 자를 바르게 택해야 한다(수24:14-15).

도피해야 산다

우상숭배자들과 종교인들의 무리에 끼어서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의 권고: 할 대로 해 봐라(25). 그러면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26).

내가 그들이 망하는 것을 지켜보겠다(27).

그럼에도 이집트를 떠나 유다로 돌아오는 소수가 있다(28).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개역성경의 한계, 변영신학의 한계(십일조와 헌금), 오순절 은사주의의 한계, 바른 교리의 실종, 종교 생활의 한계

킹제임스 성경 진영으로 왔으나 다시 과거의 감정과 경험을 따라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집트를 떠나야 산다고 한다.

우리의 이집트는 어디인가? 과거에 즐기던 종교 생활과 놀이, 버려야 한다.

결론

렘17:5-10, 우리의 마음이 속중심이 바른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축복(렘 강해 설교 39)

성경말씀: 렘45:1-5

우리가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 자신을 아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보고 은혜로 구출된 유다 백성의 행태, 이집트로 내려가 하늘의 여왕을 섬김.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의 합작품 이집트에서 살 길은 없다. 도피해야 한다.

바룩

44장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들, 45장은 바룩에 관한 말씀, 36장 다음에 주어진 말씀(45:1과 36:1) 36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구술하자 바룩이 기록하고 가서 낭독하고 결국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찢어서 불에 태우는 것을 기록함, 바로 이 시점에서 45장이 나온다. 예레미야의 조수, 친구, 동역자, 바룩의 인생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을 배우고자 한다.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축복> 바룩의 하소연, 하나님의 말씀(2-3절), 화, 슬픔, 고통, 탄식, 쇠약, 안식이 없음, 지쳤음 하소연의 원인

1.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음
2. 심판의 말씀이 너무 가혹함, 도시와 성전 파괴, 칼과 기근과 역병, 포로 생활
3. 진리를 전하는 예레미야와 자기를 죽이려 함
4. 왕이 두루마리를 찢음, 식음을 전폐하다시피하고 몇 달 걸려야 완성되는 일
5. 어쩌면 둘째 두루마리를 만들 때 임함, 너무 힘이 들어 쉬려고 하나 설 수 없음. 단순히 지친 것이 아니라 낙심하였음(슬픔, 고통, 탄식, 쇠약, 안식이 없음).

바룩의 문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 슬픔, 고통, 탄식, 쇠약, 안식이 없음 오늘 아침 우리도 다 어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다. 직업, 결혼, 아이들, 부모, 학업, 성적 정체성, 교회 정착, 교리 문제, 목사의 문제, 성도의 문제

성경은 우리가 겪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겪음을 보여 준다.

심지어 우리 주님도 고통을 잘 아는 분이요,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아시는 분이시다(히4:15).

그러므로 주님은 자기에게 이런 모든 것을 하소연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바룩을 보라. 있는 그대로 하소연하고 있지 않은가? 가장 인간적인 사람을 사랑하신다. 위선 배제

하나님의 대답

“며칠 푹 쉬어라. 좀 더 쉬운 사역을 하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여전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롬8:28)

그러나 하나님은 하소연하는 자신의 종에게 “너를 위해 큰일들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다(5).

“바룩아, 네 문제는 이기적인 마음에 있다. 네 말을 보렴. 다 너와 상관이 있지 않니?”

내게 화, 슬픔, 고통, 탄식, 쇠약, 안식이 없음, 지쳤음

그리고는 이 모든 어려움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니?(3).

“주께서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주님을 원망하자 자기의 문제만 크게 보임, 어려움이 닥치면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아야 함.

바룩이 원하던 큰일은 무엇일까?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는 예루살렘의 명문가 출신, 할아버지 마아세야는 요시아 왕 당시 예루살렘의 감독자(대하34:8)

그의 형제 스라야는 고위 관리(렘51:59), 그런데 지금 그는 예레미야 옆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서기관 노릇을 하고 있음, “이게 도대체 뭐야, 나도 귀족이고 한 자리 할 텐데. 주역인 대언자도 아니고 겨우 조수 노릇을 하고 있다니.”

그는 자기만 바라보고 이웃들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4-5).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멸망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데 너는 지금 네 안위만 생각하냐?

네 주변의 일가친척과 이웃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텐데 너는 네 일만 생각하냐?

한국의 교회들이 썩어서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하고 있지 않은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찬송가 256장 “눈을 들어 하늘보라”

네 자신을 죽여라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큰일들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큰일들을 하십시오.”

누구나 하나님을 위해 큰일들을 하려고 생각한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사6:8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만 하려는 것이 문제이다.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저도 곁다리로 조금은 영광을 얻어야 합니다.”

바룩의 문제: 하나님의 성도로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

잘하다가 내게 영광이 안 되면 다 그만두려는 마음이 생긴다. No!

이런 사람들의 특징: 큰일이 아니면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큰일만 기다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큰일, 작은 일 가리지 않는다. 자기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쓰레기 분리수거, 청소, 주차 안내 관리, 주방 일, 설거지, 옥상 관리, 어느 면에서 가장 중요함 리더는 하고 싶다고 되지 않는다. 스스로 작은 일부터 성실히 하다 보면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다.

큰일만 하려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5절).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자기를 죽여야 한다. 예수님의 표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침례자 요한,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

사도 바울의 표현(롬6:6-7, 11; 고후5:15)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이기적이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충고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 바룩이 어디를 가든지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5).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지적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

바룩의 일생: 예레미야와 함께 감옥에 있으면서 땅을 구매하는 일을 다 처리함(32:11-16).

예레미야가 두루마리의 말들을 구술할 때 그의 곁에서 기록함(36:4).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직접 선포함(36:8-10)

왕이 잡으려 할 때에 예레미야와 함께 도망함(36:19, 26).

예레미야와 함께 이집트까지 내려감(43:6).

백성들은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불평함(43:3).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리더와 리더를 돕는 조력자들이 있다. 이름은 리더가 나지만 조력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리더가 일을 하는가? 다윗은 위대한 사람, 그러나 그를 돕는 장수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장수들의 이름을 성경에 넣는다(삼하23:8-39, 대상 11:10-47), 세 용사 이야기(삼하23:13-17, 대상11:15-19)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나 이후에 다른 목사가 와도 마찬가지, 리더를 돕는 조력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산다. 주님의 일이 흥왕한다.

조력자는 리더로 인해, 개인적인 야망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바룩의 경우 늘 목숨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누가 살려주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5).

하나님이 그를 위해 큰일을 하셨다. 마6:33-34,

지난 20년을 회고하면서 바룩은 45장을 순서를 무시하고 맨 뒤로 넣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늘 동일한 약속을 하신다; 렘39:18의 에벳멜렉

우리가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신실하게 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신다.

요일5:11-14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렘 강해 설교 40)

성경말씀: 애3:1-6, 19-41

애가

예루살렘 함락 후 지은 애곡하는 시, 히브리 성경 셋째 부분 메길롯에 있음(아가, 룻, 에스터, 전도서).

내용: 유다 백성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멸망

40년간 외친 것이 마치 실패와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상황, 도시와 성전이 훼파됨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는 슬픈 감정을 시로 표현함.

설명: 1:1-5; 20-21; 2:9-12; 20-21; 4:1-8; 5:1-2; 21-22

이합체 시: 22글자, 1,2, 4장은 한 절씩, 3장은 3절씩, 5장은 22절이지만 이합체는 아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공식(히12)

1. 죄를 지으면 반드시 경고를 주시고 참고 참으신다.
2. 인내에 한계가 오면 징계하신다.
3.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온다. 없으면 사생아이다.
4. 징계가 오기 전에 성령님의 은혜로 돌이켜야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3장의 핵심 내용

1장과 2장에서 도시와 백성의 황폐함을 묘사한 뒤 3장에서 대언자는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묘사한다.

1-18절은 예레미야의 절망, 19-41절은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

1-18에는 예레미야 소수의 신실한 성도들의 고통이 묘사되어 있다.

1절: 나, 2절: 어둠, 3-6절: 하나님이 치심, 7-11: 하나님이 그의 길을 막음, 12-13: 화살을 쏘, 그 결과: 평강이 없다(17). 히브리말 살롬, 결론 18-19: 힘과 소망이 없다.

19-21절 전화위복: 고난, 재난, 쑥, 쓸개를 기억하니 겸손하게 되고 소망이 생긴다(20-21).

우리는 어떤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만드는 것은 고난과 힘든 일이다(시119:71).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고난을 주기도 하신다(롬8:28).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그를 괴롭히게 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후 12:9-10)

믿음이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로 알 수 있다.

날이 가면서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감사 쪽으로 기울는가?

주님 찬양

22-23절 주님 찬양: 다 망한 것 같은데 가만히 둘러보니 여전히 유다가 남아 있다. 우리 역시 이런 경험을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주님의 긍휼(mercy)과 불쌍히 여기심(compassion)이다.

긍휼: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용서해 주시는 것

불쌍히 여기심: 같은 심정으로 위로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시103:8-9, 14(다윗의 시)

우리 같으면 참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참고 참으신다(출애굽 사건, 민수기 14장 22절, 10번).

은혜와 긍휼의 표본: 성육신, 겸손과 희생의 섬김, 예수님의 십자가(죽기까지 사랑하심), 부활, 승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어떤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느껴지는가? 찬송가 460

어르신들은 특히 어떤가? 일제 식민지, 6.25, 4.19, 5.16 등을 겪으면서도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느껴지는가?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100% 있는가?

어려움이 닥칠 때 나를 보면 낙심이 되고 환경을 보면 고통스럽지만 주님을 보면 소망이 생긴다.

주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다(22).

주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은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23).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실하심이다. 오 신실하신 주(447장), 구원이 유지되는 이유

왜 그럴까?

1. 주님은 백성을 버리고 잊지 않으신다(31절).
2.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신다(32절).
3. 징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33절).
4. 사람들이 악하게 행하는 것을 보신다(34-36절).
5.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37-38절).
6. 우리의 죄들로 인한 징계면 그분의 사랑이다(39절).

우리가 할 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40-41).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 악한 상황에 빠져도 주님께 돌아가면 기쁨을 주신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바울, 베드로
모두 보통 사람들이다.

죄 많은 인간들이다. 그러나 모두 다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회개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다.

불신자도 회개, 신자도 회개, 기독교는 회개와 믿음의 종교이다.

예레미야 총정리

40년간 묵묵히 주님의 일 수행, 모세처럼 무덤도 알려지지 않은 채 이집트에서 죽음

그는 죽었으나 그가 전해 준 말씀들은 지금까지 살아서 움직임

유다 백성의 세 가지 거짓 소망

1. 다윗의 왕좌: 하나님의 언약(삼하7), 다윗의 씨가 영원히 왕좌에 앉아 다스린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만사형통, No!
2. 성전: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렘7:4). 성전이 우상이 되고 말았다. 예배당 크기, No!
3. 이집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솔로몬, 그러나 이집트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속박하는 곳이다. 우리의 도움은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예레미야의 교훈

1.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여야 한다.
2. 참 대언자들은 대개의 경우 핍박을 받았다(모세로부터 사도들 시대까지).
3. 애국자는 백성의 죄들을 모른 채하고 넘어가지 않는다(통진당 사건, 동성애 등).
4. 신실한 대언자들조차도 종종 낙담하고 의심하곤 한다. 거의 사역을 그만두려고 하기까지 하였다.
5.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이다.
6. 사역에서 가장 큰 보상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겸손과 희생의 섬김): 예수님과 예레미야
7. 리더에게 신실한 친구와 협력자들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1. 지금 한국의 정치 종교 상태: 그 당시와 동일하다.
2. 종교 놀이와 우상숭배를 버려야 한다.
3.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목사들이 나오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
4. 내가 그런 리더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도 바르게 교회를 하겠다고 걱정해야 한다.
5.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구원, 바른 교회, 바른 사회